

# 성무

星武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다 모았다 KB Pay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10422-01291-ADP(2021.04.22 기준)

\* KB 국민카드

# 군인연금수급권자 패키지 상품안내

\* KB 국민은행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이체(변경)시 우대 혜택 제공

KB 나라사랑적금(직업군인용)

■ 군인연금수급권자 맞춤형 적금! 최저 연 2.1%~최고 연 5.6% (2021.3.8일 세전기준, 최고이율은 최대 우대이율 3.5%p 적용시)

가입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자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저축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기본이율 및 최종이율

(2021. 03. 08 세전 기준, 단위 : 연, %)

| 계약기간 |    | 1년제 | 2년제 | 3년제 |
|------|----|-----|-----|-----|
| 적용이율 | 최고 | 5.0 | 5.3 | 5.6 |
|      | 기본 | 1.5 | 1.8 | 2.1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 적용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 최고 연 3.5%p 연금(급여)이체(연 2.2%p), 신용카드(연 0.5%p), 주택청약종합저축(연 0.3%p), 앱(App)가입(연 0.3%p), KB스타클럽(연 0.1~0.2%p)

준비서류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KB 군인연금협약대출

■ 대출금리 최저 연 1.63%~최고 연 2.63% (2021.3.8 기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미만, 일시상환, 최종금리는 최대 우대이율 1.0%p 적용 시)

대출대상 |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 (KB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기준 충족 시)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일시상환 및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3천만원)

| CSS등급 | 1등급  | 2등급  | 3~4등급 | 5~6등급 |
|-------|------|------|-------|-------|
| 가중치   | 180% | 160% | 140%  | 120%  |

- 한도 산정방법 : 연소득 × CSS등급별 가중치 -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부동산담보대출 제외)

대출금리 | 금융체 6개월 변동금리 연 0.76%+가산금리 연 1.87%p ~ 최우대금리 최대 연 1.0%p (2021.3.8 기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미만, 일시상환)  
주) 연금이체(연 0.3%p), 신용카드(군인연금증 포함 연 0.3%p), 자동이체(연 0.2%p), 스타뱅킹(연 0.1%p), 적립식예금(연 0.1%p)

\*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우대금리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1년이상 최장 5년이내(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자 또는 원리금은 매월 25일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준비서류 | 군인연금증서(카드형 포함)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필요 시)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서류 문의 포함)

\* 본 상품은 KB국민은행으로 연금이체가 필수이며, 대출상담/접수 시 터 은행기관으로 연금이체로 인한 경우 KB국민은행으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여 1회 이상 연금 입금 확인 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약정납입일(자동이체일)은 매월 25일로 지정하고 연금수령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약정납입일은 날짜가 불가합니다.



##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KB국민은행으로 군인연금 이체 시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면제횟수 |
|---|------|
| · KB국민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다른은행 ATM 출금 수수료 | 무제한  |
| · 편의점(GS25·세븐일레븐) ATM 입금·출금·이체 수수료      | 무제한  |
| ※ 단, 편의점 내 일부 자동화기기(나이스·한네트운영기 등) 제외    |      |
| · 인터넷·폰뱅킹 이체 수수료                        | 무제한  |
| ※ KB골든라이프 우대통장으로 연금 수령 및 이 통장에서 이체 시    |      |
| ·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 월 5회 |
| ※ KB골든라이프 우대통장으로 연금 수령 및 이 통장에서 이체 시    |      |

## | 상품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

\* 상품 가입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운행에 있는 구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남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최고 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연3.5%p 모두 적용한 이율이며,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인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481호(2021.3.16) 유효기간(2022.12.31까지)



# 대한민국의 NEW SPACE를 이끌다! (주)한화

지난 40여년간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해온 (주)한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제도

## 목돈수탁저축



목돈이 커간다  
행복이 달린다~

### 목돈수탁저축

#### ■ 가입대상

현 군인공제회 회원,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

#### ■ 가입금액

100만원~7억원(비과세 종합저축 포함)

#### ■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단위(계속 재가입 가능)

#### ■ 이자 지급방법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금리

| 가입기간 | 만기지급식(연금리) |       | 매월 지급식(연금리) |       |
|------|------------|-------|-------------|-------|
|      | 세전이율       | 세후이율  | 세전이율        | 세후이율  |
| 6개월  | 2.04%      | 1.72% | 2.02%       | 1.70% |
| 1년   | 2.34%      | 1.97% | 2.31%       | 1.95% |
| 2년   | 2.41%      | 2.03% | 2.38%       | 2.01% |

\* 이자를 소수점 두자리만 표시함

- 이자소득세 : 2005. 1. 10[후 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목돈수탁금리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확정금리)

\* 매월 이자수령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Contents

2021. July Vol. 50

|    |         |   |  |                             |
|----|---------|---|--|-----------------------------|
| 06 | 교가      | 07  | 공사십훈   | 나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광성    |
| 08 | 인사말     | 10  | 총동창회 소식  |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다   석현수         |
| 16 | 모교 소식   | 26  | 공군소식   | 세 번으로 그치지 않을 산티아고 순례길   금기연 |
| 32 | 성무논단    | 6·25전쟁 70주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김은기<br>KF-21 개발의 전략적 가치와 기대   신보현<br>문–바이든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흥성표<br>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강병철<br>주변국의 우주력 건설동향과 시사점   이성훈<br>Mosaic Warfare 개념과 미래 항공우주작전   서명교 | 조선왕릉탐방   김동기<br>제2의 직업   서성도<br>자전거 타고 해남 땅끝 마을로   류홍규<br>국력이 강해야   김국희<br>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   성일환<br>後見之嘆   권석원<br>해외 대학 파견 객원교수로서의 활동 소감   신영덕<br>인생 결과 보고서   이두희<br>어쩌다 한의사   차종환<br>지금은 독수리 구호가 필요할 때! 독수리 구호 준비!   김정수<br>희망과 사랑을 찾아   김광희<br>우상, 은사 그리고 아버지   은석준 |                             |
| 68 | 변화하는 공군 | 공군, 항공우주군으로 나래를 펴다   추한형<br>미래 조국영공 수호를 책임질 한국형 첨단전투기, KF-21   박진구<br>4차 산업혁명 기반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추진현황   공군본부  | 176     우정기고<br>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을 회상하며   윤응렬<br>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br>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김진표<br>인정받지 못한 메추리…   도경완<br>변화하는 시대에 공군이 나이갈 길   서영득<br>명예졸업장을 받으며 드는 생각   김요안  |                             |
| 80 | 회원기고    | 나의 출격 일지   이배선<br>6·25 남침전쟁 회고록   김동호<br>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김국창<br>모교(空士)예찬   최규창<br>취미생활, 게이트 볼(Gate ball)   백승웅<br>동기생   최성열<br>타이베이, 감동의 세레나데   김의래<br>54년 전 미 공사 방문을 회상하며   장호근             | 196     동문동정<br>202     장학사업 보고서<br>206     총동창회 알림<br>213     편집후기  |                             |



##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_는 괜찮\_\_는 배 달\_\_의 아\_\_불  
2.우 리\_\_는 하늘\_\_을 배 우\_\_는 젊은 이

높고 빛나는 한 때 님 정전 아 이\_\_반 아 시  
높고 활다운 군대 의성산 새로\_\_이 학 해

누리에 멀\_\_치고 자 하늘로 옮니 니  
나라를 치\_\_끼는 힘 하늘로 달린다

우리들 영혼의 기자 공군사관학교  
우리들 충성의 원천 공군사관학교

하\_\_늘은 우리의 일타요 바울티  
하늘에 살 만\_\_서 하늘에 복승마친다

##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 인사말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 여러분!

창취한 계절 6월을 맞아 만물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우리의 일상도 활기가 돋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제28차 운영기수가 총동창회 운영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28차년도 총동창회를 맡고 1년여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COVID-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아 뜻한 바를 다 성취하지 못했음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2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을 시작할 때 목표했던 “성무대 정신으로 하나되는 공사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고자 동문 상호간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총동창회를 운영한다는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뜻깊은 성무장학사업의 영구적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동문들께서 자발적으로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심으로써 단기간 내에 3,000여만 원의 기금이 모금되어 금년 초 4명의 유자녀 대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그 승고한 뜻이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무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앞서 선배님들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비영리 법인(성무안보연구소) 설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는 총동창회의 산하기구로써 뜻있는 회원들의 연구업무 수행은 물론 총동창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 설립과 함께 제기된 우리 총동창회의 현행 회계연도(7월~익년도 6월 말)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금번 제28차 연도를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두되는 6개월 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한 사업예산과 기실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연장 임기에 돌입하면서 운영의 중점을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의 조기 안정화로써 향후 명실상부한 전문 안보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초기의 관습이 전통이 되고 문화로 형성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일류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후배 동문 회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남은 기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건안 하심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제28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최 차 규

# 총동창회 소식



공군전우회 예방 (2020. 7. 2.)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전우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 및 임원에게 취임 인사와 함께 향후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예방 (2020. 7. 16.)

회장단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특히 제28차년도 사업계획 중 졸업 및 임관기념행사 추진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생도들에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거행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군본부 예방 (2020. 7. 16.)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원인철 참모총장 및 참모들과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28차년도 사업계획 중 성무장학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공군본부의 '하늘사랑 장학사업'과 함께 공군의 양대 장학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8차년도 정기 이사회 (2020. 7. 23.)

제28차년도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함께 최초로 시행하는 성무장학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급 대상 범위 및 금액, 지급 시기를 비롯하여 향후 기금적립방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계획도 보고하였다.



예비역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2020. 10. 14.)

총동창회에서는 제28차년도 운영 임원단과 예비역 이사기수(20~34기) 임원들을 초청하여 성남체력단련장에서 골프운동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사기수 임원들은 계획된 사업들을 코로나19사태로 부득이 축소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감하며 회원들의 건강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 공군참모총장 방문 (2020. 10. 27.)

이성용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취임 인사차 본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임 참모총장은 항공안전단 신축공사와 병행 예비역 단체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조할것을 약속했다.



졸업·임관 기념행사 (2020. 10. 24.)

졸업 및 임관 50, 40, 30, 20, 10주년 기념행사를 모교 성무연병장에서 거행하였다.

매년 5월 거행하던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어 임관 50주년을 맞는 18기 30명과 기타 40~10주년을 맞은 28기, 38기, 48기, 58기는 대표 2~3명 참석으로 축소하여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50주년을 맞은 18기 대표 전기광 회원은 앞으로 우주 전략을 위한 공군의 발전을 당부하였고,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강조하였다.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020. 10. 28.)

역대 총동창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총동창회 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특히 성무장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초기에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과거 선배들의 숙원 과제였던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도 공감면서 적극 추진 토록 당부와 조언을 해주었다.



청운 보육원 후원 방문 (2021. 2. 1.)

총동창회 운영 임원단은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서울 상도동 소재 청운보육원을 찾아 연고자 없이 첫돌을 맞은 최진우 아기의 돌잔치를 후원해주었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최진우 아기가 잘 자라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69기 졸업생도와의 간담회 (2021. 3. 4.)

총동창회장단은 졸업을 앞둔 제69기 생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교장실에서 지휘관 참모와 졸업생 대표 2명과 간소하게 실시하였으며 졸업선물로 무선이어폰 200개를 전달하였다.



2021년도 성무장학금 전달식 (2021. 3. 5.)

총동창회 회장단은 성무장 학사업 시행 후 첫 번째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학생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21년도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5기 故 채기석 회원 자녀 채수명 / 37기 故 윤재훈 회원 자녀 윤호연 /
- 37기 故 장은석 회원 자녀 장준혁 / 42기 故 이재근 회원 자녀 이연서 이상 4명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 창립총회 (2021. 4. 16.)

총동창회에서는 총동창회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을 목표로 수개월에 걸쳐 정관 작성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결과 마침내 법인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비영리법인 설립 문제는 앞서 선배들이 수차례 시도했던 숙원사업으로 이번 제2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진에서는 이를 완수함으로써 향후 국가안보 및 공군력 건설과 관련한 연구는 물론 성무장학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 모교 소식



3학년 생도 공중생환훈련 (2020. 6. ~ 7.)

6월 22일(금)부터 3주간 3학년 생도(공사 71기)가 중심이 된 197명의 생도들을 대상으로 공중생환훈련을 실시했으며, 상공 2400ft(약 700M) 공중강하훈련을 통해 생도들을 그간 단련된 역량을 확인하며 훈련의 대미를 장식했다.



성무제 (2020. 10. 28. ~ 30.)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 3일간 공군사관학교 성무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성무제는 'Momento'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Momento'는 순간, 기념이라는 의미로 2020 성무제는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기억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생도들은 2020 성무제에서 13개의 이벤트 부스와 푸드코트 부스를 운영했다.



성무토론판 (2020. 11. 2.)

11월 2일(월) 교내 안중근홀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사관생도의 의사전달능력 제고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성무토론판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10월 12일(월)에 개최되어 3주간 진행되었다.



3군 사관생도 합동 교육 (2020. 11. 9. ~ 13.)

11월 9일부터 5일간에 걸쳐 합동작전에서 공군의 역할을 이해하고,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3군 사관생도 합동교육을 진행하였다.



미래 항공우주학술대회 (2020. 11. 30.)

11월 30일(월) 새롭게 조성된 단재관(교수부) 창의활동공간에서 「2020년 미래항공우주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혼용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1,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창의활동공간, 인공위성 운영실습실 개관식 (2020. 11. 17.)

'20. 11. 17. (화) 창의활동공간과 인공위성 운영실습실 완공에 따른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제51, 52대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2020. 12. 7.)

제51, 52대 학교장 이·취임식이 안증근 훈에서 거행되었다. 제52대 교장으로 취임하는 최성천 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와 관련된 교육체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생도들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습방식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며 “국가와 군의 리더로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제73기 사관생도 입학식 (2021. 3. 2.)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신입생도 218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73기 입학생도들은 입학선서를 함으로써 사관학교 정식 입학을 알렸다.



제69기 졸업 및 임관식 (2021. 3. 19.)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제69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해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졸업생도들의 감사 인사영상, 학부모 졸업 축하 영상 등이 상영되었다.



리더십 심포지엄 개최 (2021. 5. 18.)

생도 인성·리더십 함양과 군인정신 고취를 위한 '21년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분과별 발표, UCC 동영상 발표, 수상자 시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공군사관학교 교육체계



## 과정별 이수학점 [교육과정 구성/운영]

| 구 分          | 교 양  |      | 군사학  |                         | 일반학  |
|--------------|------|------|------|-------------------------|------|
|              | 필수   | 선택   | 필수   | 심화                      | 필수   |
| 70~71기       | 49학점 | 24학점 | 30학점 | 15학점<br>* 군사학 or 일반학 선택 | 30학점 |
|              | 73학점 |      | 75학점 |                         |      |
| <b>148학점</b> |      |      |      |                         |      |
| 72~73기       | 38학점 | 24학점 | 41학점 | 15학점<br>* 군사학 or 일반학 선택 | 30학점 |
|              | 62학점 |      | 86학점 |                         |      |
| <b>148학점</b> |      |      |      |                         |      |

## 학위수여 [양학사 수여제도 시행(53기 이후)]

| 학 위 | 전 공 학 과                     | 비 고          |
|-----|-----------------------------|--------------|
| 문학사 | 국제관계학, 국방경영학, 항공우주정책학       | 군사학사<br>공통수여 |
| 이학사 | 컴퓨터과학                       |              |
| 공학사 |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자통신공학, 시스템공학 |              |

## 생도 국제교류 현황

| 구 分            | 파견국가          | 교육기간                                      | 비 고                   |
|----------------|---------------|---|-----------------------|
| 위탁교육<br>(4개국)  | 미국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일본 방위대학교      | 2년  | ※ (2 ~ 3)학년           |
|                | 독일 공군장교학교     | 1년 5개월                                    | ※ 임관 2개월 전 파견         |
|                | 터키 공군사관학교     | 4년  |                       |
| 수탁교육<br>(11개국) | 태국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일본 방위대학교      | 1년  | ※ 3학년                 |
|                | 터키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몽골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필리핀 통합사관학교    | 4년  |                       |
|                | 베트남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알제리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페루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파라과이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이라크 공군사관학교    | 4년  |                       |
|                | 아제르바이잔 공군사관학교 | 4년  |                       |
| 교환방문           | 견학            | ▶ 미국·일본·태국·영국·호주·프랑스 등의<br>사관학교 방문        | 수시방문                  |
|                | 내교            | ▶ 6·25 전쟁 참전국<br>▶ 위·수탁 교육국<br>▶ 상호교환 방문국 | International Week 방문 |
|                |               |   |                       |

## 2022학년도 제74기 공군사관생도 모집요강

### ■ 모집정원 : 235명

| 계    | 남자 (211명 내외) |         | 여자 (24명 내외) |        |
|------|--------------|---------|-------------|--------|
| 235명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      | 85명 내외       | 126명 내외 | 12명 내외      | 12명 내외 |

### ■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원서접수          | 6. 25.(금) 09:00 ~ 7. 5.(월) 24:00                  | 11일간(인터넷 접수)                                 |
| 1차시험          | 시험일   | 7. 31.(토)<br>전국 16개 시험장                      |
|               | 성적확인 및 지원확정/포기                                    | 8. 6.(금) 09:00 ~ 8. 10.(화) 12:00<br>원서접수 사이트 |
|               | 합격자 발표  | 8. 17.(화) 09:00<br>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                                      | 8. 17.(화) ~ 8. 20.(금)<br>1차시험 합격자 대상         |
| AI 면접         | 8. 17.(화) ~ 8. 29.(일)                             | 개별실시 원칙                                      |
|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 8. 24.(화) 09:00<br>* 등록서류 제출 : 8. 24.(화) ~ 27.(금)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2차시험          | 8. 30.(월) ~ 10. 8.(금)                             | 개인별 1박 2일 소요                                 |
|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 11. 12.(금) 09:00                                  |  |
|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   | 12. 17.(금)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12. 24.(금) 09:00                                  |  |
| 2차 추가합격자 발표   | 12. 31.(금) 09:00                                  |  |

### ■ 입시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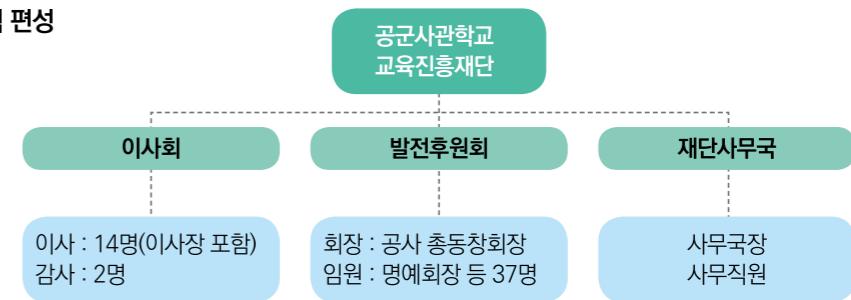
- 1) 입시 관련 자료는 공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 홈페이지 : [www.afa.ac.kr](http://www.afa.ac.kr) → 입학안내
  - ▶ 입시 자료 신청 가능(우편 발송) : 공사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입시 자료 신청
- 2) 입시상담은 전화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 ▶ 전화번호 : 043-290-5504, 043-290-6067
  - ▶ 홈페이지 : [www.afa.ac.kr](http://www.afa.ac.kr) → 입학안내 → 입시전형 Q&A
- 3) 공군사관학교(평가관리실)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우편주소 :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호
  - ▶ 팩스번호 : 043-290-6068

## 교육진흥재단

### ■ 재단 명칭 :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1996. 06. 재단설립(충청북도교육청 허가 제12-376)]

### ■ 설립 목적 :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사업에 기여함

### ■ 조직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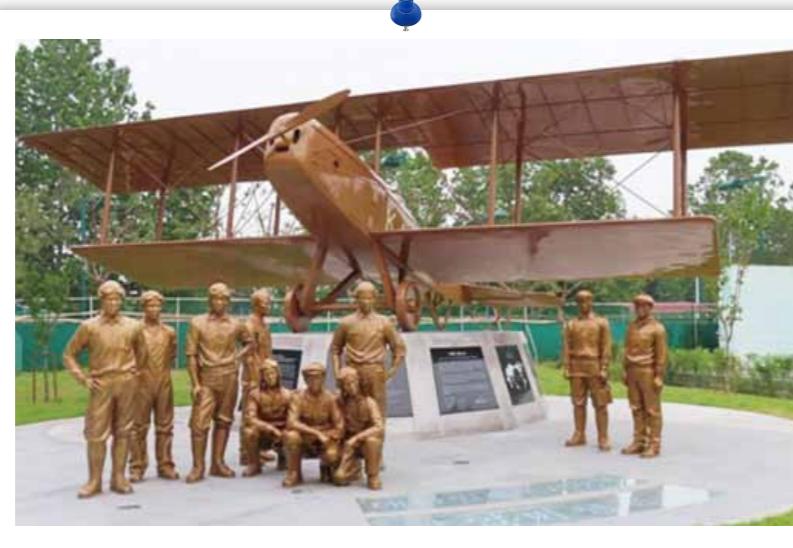
### ■ 발전기금 기부 및 집행 현황

| 구 분       | 금액<br>(억 원) | 비 고   | 발전기금 집행현황(누적현황)      |  |             |
|-----------|-------------|---|----------------------|--|-------------|
|           |             |   | 구 분                  | 세 부 내 용  | 금액<br>(억 원) |
| 기업 및 단체   | 48.3        | • (주)삼성테크윈<br>• 삼양화학공업(주)<br>• 부영(주) 등 94개 단체 | 생도 국내·외 견문 확대        | • 해외항법훈련<br>• 안보·문화·역사유적지 견학 (한민족 역사탐방)<br>• 외국 사관학교 방문(5 ~ 12개국)                    | 30.5        |
| 동문        | 38.4        | • 학교동문 1,738여 명<br>64개 단체 (동기회 등)             | 생도 학술·문화·체육 활동       | • 각종 대회출전(축구, 드론 등) 및 성무제 지원<br>• 공사를 빛낸 생도 격려<br>• 교내 학술대회, 논문발표 등<br>• 생도강의 초빙 강사료 | 6.3         |
|           |             |   | 자정 기부사업              | • 풍석 군사학연구 기금<br>• 로스트왁스 항공학술 기금   | 4.0         |
| 학부모 및 후원자 | 9.7         | • 학부모/후원자 등 546여 명                            | 교수/생도 학술연구 활동        | • 교수 국외 학술교류 및 세미나<br>• 대외 학술대회 참가 (모의UN대회 등)  | 2.9         |
|           |             |   | 생도대 생활관,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 | • 생활관 휴게실 리모델링<br>• 생도대 명예광장 전광판 교체<br>• 생활관 냉장고, 의류건조기 교체                           | 2.4         |
| 합계        | 96.4        | 총 2,284여 명<br>158개 단체                         | 합계                   | -  | 46.1        |

### ■ 교육진흥재단 안내

-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fund.afa.ac.kr>/
- ▶ 출연 문의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전화) 043-290-5717

# 공군 소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기념조형물 제막식** (2020. 7. 14.)

공군은 공군의 발상지이자 요람이었던 예전 김포기지 부지에 건립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공 독립운동정신과 항공선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한인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한인비행학교」기념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했다.

기념조형물은 1920년 한인비행학교 개교 당시 촬영된 역사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Standard J-1 훈련기 1대와 10명의 학생비행사들의 모습을 재현했다. 12면으로 구성된 기단부에는 건립취지문, 비행학교 소개 및 관련인물(노백린 장군, 김종림·곽임대 애국지사, 비행학교 교관·학생 등)에 대한 설명이 판각되어 있다.



**제39정찰비행단 창설** (2020. 11. 3.)

공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39정찰비행전대를 신규 정찰자산 도입과 더불어 미래전의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 증대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 규모를 격상하여 핵심전략부대인 정찰비행단을 새롭게 창설했다.



**전군 최초 AI 기술 활용한 우주기상예보모델 개발** (2020. 12. 16.)

기기상단 우주기상팀 김경호 병장(병 798기)이 태양 활동에 따른 우주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우주기상예보모델을 전군 최초로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 2020년 탑건 KF-16 전투조종사 한재석 소령 (2020. 12. 29.)

‘2020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대회 결과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 탑건에 총 1,000점 만점에 965점을 획득한 KF-16 전투조종사 한재석 소령(공사 59기)이 선정되었다.



#### 장병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언택트 드라이브’ 운영 (2021. 1. 26.)

공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와 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軍 버스를 이용하여 부대 인근 지역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정차하지 않고 둘러보는 버스 투어로, 마스크 착용과 버스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휴가 제한이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2020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전영기 소령 (2021. 3. 2.)

공군은 ‘2020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전영기 소령(공사 53기, 주기종 F-16)을 선정하고 대통령 표창을 시상하였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탑건(TOP GUN)’과는 달리 한 해 동안 모든 임무수행 분야를 종합하여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 (2021. 4. 9.)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되었다. KF-21은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다.



### 공군 픽토그램, 독일 아이에프(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2021. 4. 13.)

공군이 「공군 픽토그램」으로 독일에서 개최하는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IFDesign Award)’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공군이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19년 「공군 의복 캐릭터」에 이어 두 번째다.

수상작인 「공군 픽토그램」은 항공기, 의복, 무기, 계급 등 공군과 관련된 요소들과 스포츠, 사무실 등 일상 요소들을 27개 카테고리의 720가지 그림문자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디자인의 독창성과 창의성, 영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GO BEYOND

F135

## 독보적인 성능. 비할 데 없는 가치.

F-35 의 추진력은 각종 위협에 대비하고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9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된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적, PRATT & WHITNEY의 F135 엔진은 전투 추진 엔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적응형, 유지 정비에 편리한 설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 및 5세대 기술을 탑재한 F135를 통해 F-35는 다른 항공기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PRATTWHITNEY.COM](http://PRATTWHITNEY.COM)에서 F135의 성능을 확인해 보세요



# 성무 논단

34 6·25전쟁 70주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 김은기

37 KF-21 개발의 전략적 가치와 기대 | 신보현

42 문-바이든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홍성표

51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 강병철

56 주변국의 우주력 건설동향과 시사점 | 이성훈

63 Mosaic Warfare 개념과 미래 항공우주작전 | 서명교



# 6·25전쟁 70주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김은기(2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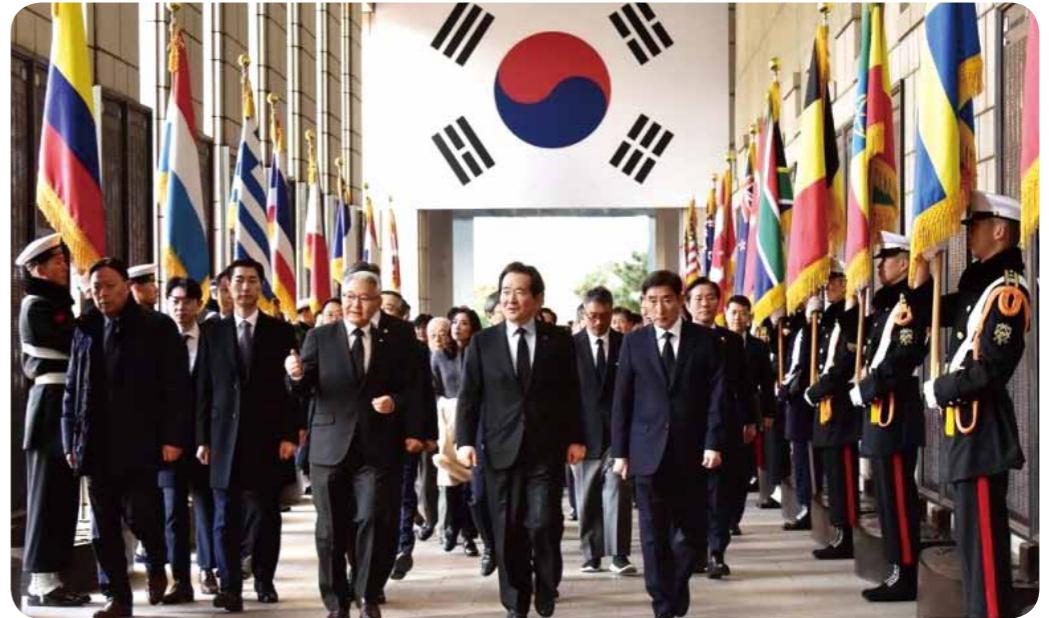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한바탕 전쟁을 치러낸 2020년은 대한민국이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힘든 상황 속에서도, 6·25전쟁 사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 덕분에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정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와 국민, 유엔참전국 등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범정부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 1월 31일 민·관 합동위원회인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6·25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40년 가까이 헌신했던 군인으로서 국민들에게 6·25전쟁의 의미를 알리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고, 14명의 정부위원과 참전용사 및 국방·통일·문화·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기억·함께·평화’라는 주제 아래 50개의 세부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냈다.

처음에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규모의 해외 초청행사와 다양한 국내외 행사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야속하기까지 하였지만 '6·25전쟁 70주년'은 소홀히 다를 수 없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면 대체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엔참전국에 마스크를 보낸 사업이었다. 당시는 국내 마스크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 준 분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스크 100만장을 보냈고, 작은 선물이었지만 참전용사분들께서 크게 감동 받으시는 모습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 마스크 사업은 '22개 참전국 국민들에게는 자국의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계기와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이 마음을 담아 보내온 감사 메시지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수준 높은 해외홍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해외 PR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기억’하고자 민간주관으로 추진된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을上げ는 관포 태극기(전사자 관 위에 덮는 태극기) 모양의 배지 122,609개를 제작하여 배포한 캠페인이었다.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147구)과 함께 거행되었던 6·25전쟁 70주년 행사는 TV 시청률 20%를 기록하며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기억하는 국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국내의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8만여 명에게 은(銀)으로 제작한 '감사메달'을 전달하여 희생과 현신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며, 美 타임스퀘어 등 참전국 전광판과 CNN, BBC등 103개국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전쟁과 참전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에 감사를 전했다.



참전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22개 참전국의 주물과 DMZ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패’를 주한(駐韓)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전달하고, 평화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참전국 간의 미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유엔참전국 대표회의’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그 외에 어린이들의 평화에 대한 그림을 ‘달 항아리’에 담은 강익중 작가의 설치미술 ‘광화문 아리랑’ 전시, 동양화와 사진 등 작품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전(展)’, ‘6·25전쟁 그날, VR체험전’, ‘미래평화 학술회의’ 등 다양한 문화·학술행사도 계획, 추진하였다.

6·25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잊힌 전쟁’이고 ‘아픈 기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란의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분들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역발상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현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K-보훈’이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작년 한 해 추진한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기록하여 사업을 역사에 남기고 추후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내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책자(冊子)뿐만 아니라 전자책,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올해 6월이면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장 활동이 종료되지만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6·25 전쟁’이 모두에게 ‘기억해야 하는 전쟁’이 되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후 6·25전쟁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지나도 6·25전쟁이 ‘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신보현(21기)

## KF-21 개발의 전략적 가치와 기대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미군으로부터 10대의 L-4 등 항공기를 인도받아 창설된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 전투기를 운영했었다. 1970년대 이후 윤곡사업으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서 공군은 직구매 가격 대비 1.3~1.7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F-5E/F 기술도입생산, KF-16 면허생산, KT-1 국내개발, T/A-50 국제공동개발 등의 추진과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획득을 추진해왔다. 직구매 대비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을 축적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설계·제작한 국산전투기를 갖고 싶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서야 공군 전투기의 국내개발 추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KF-21 국내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의 부정적 견해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국방부훈령에 의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주요 의사결정과정 때마다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려 하자 핵심기술개발에 20년 이

상 소요될 것이며 2025년까지 KF-21 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등의 극심한 부정적 보도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한국항공과 체계개발 계약을 2015년 12월 28일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항공은 보란 듯이 체계개발 계약일정을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해서 드디어 2021년 4월 KF-21 시제 1호기가 출고식을 가졌다. 결국 KF-21 국내개발 사업추진을 성사시키고 성공적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해서 시제 1호기 출고식을 갖게 된 것은 공군인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면서 염원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KF-21 개발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정리해서 제시한다.

### I. KF-21 개발의 전략적 가치

전투기 국내개발 완성은 국가방위에 핵심전력인 공군의 전투기를 국산화 했다는 근본적인 명분을 넘어 유·무형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천문학적 국가예산을 들여 전투기 전량을 해외에서 도입해오던 관행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국내개발 항공무장의 사용과 항공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지대한 기술파급을 가져올 것이다. 전투기 성능개량의 해외의존 탈피로 엄청난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게 해주어 국가 경쟁력도 크게 제고해 줄 것이다. 국가방위의 중심전력에 대한 독자적 수급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자주국방 기틀을 공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KF-21 국내개발이 가져다 줄 전략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국내 항공산업 차원의 가치가 있다.

KF-21 국내개발 성공은 한국을 서방국가 중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명실공히 4.5세대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그동안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선도해 온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 전투기 생산 국가와 대등한 항공산업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 체계 종합, 공대공/공대



지 유도무기, 각종 항공 센서 등 분야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그에 따른 선순환은 국내 항공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에 더해 KF-21 개발을 통해 확보한 첨단 핵심기술들은 여타 방산 및 민수분야에도 전용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첨단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향후 타국의 전투기 개발이나 각종 군용기 성능개량,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경쟁력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이와 같이 KF-21의 국내개발은 한국의 항공산업을 크게 육성시켜주는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 2. 국가안보 차원의 가치가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안보를 대외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항하고 침략을 배제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KF-21 국내개발 성공은 국민들에

게 대외적으로 우리도 첨단의 중형급 전투기 개발능력을 보유했다는 군사·외교적 자부심을 크게 증대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KF-21 전투기 전력화는 외부의 군사적 공중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도 필요시에는 타국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의 자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자긍심

은 군사적 안보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기술 등 국가안보의 제요소에 널리 파급되어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등 무형적인 국가 안전보장 증진의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군 주력 전투기에 대한 자체 후속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유사시 국가 안보적 차원에 유사시 원활한 전력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에 더해 유형적으로는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전투기 성능개량 및 국산 무장 장착을 국내기술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첨단기술 및 기밀 정보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안보 차원에도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3. 자주국방 차원에 가치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수준의 부족으로 거의 해외도입에 의존하다보니 항공무장획득과 항공기 성능개량을 항공기와 항공무장 생산국에 의존해온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자주적 공군력 운용에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KF-21 개발의 성공은 전투기 국내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기술로 국산 유도무기의 장착과 성능개량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외국의 첨단기술 수출승인 획득통제와 무관하게 미래 예상되는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여 누구(전투기 판매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운영의 융통성을 갖게 된다는데 자주국방 차원에 큰 가치가 있다. 불특정 위협과 분쟁 발생 시

에 정치적 문제 등으로 전투기 판매국의 일방적인 후속지원 중단과 같은 압박을 받지 않고 명실공히 자주적으로 공군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 전투기 획득 시 기보유 항공무장을 사용하기 위해 서라도 항공무장 생산국의 전투기를 최우선 구매 대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장착·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장 운용능력이 확대될 것이고,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성이 증대될 것이다. 자체 후속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군의 자립화는 물론 획득비의 60~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운영유지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명실공히 자주국방력 건설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방력 운영에 융통성을 증대시켜 주는 자주국방 차원의 큰 전략적 가치가 있다.

## II. KF-21 개발에 거는 기대

### 1. 비싸지 않은 명품 전투기 출현을 기대한다.

한국항공은 T-50 초음속 훈련기를 기대 이상의 명품 항공기로 개발하였듯이 KF-21 역시 명품 전투기로 개발하여 전력화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8대의 초음속항공기로 구성된,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세계 에어쇼 올림픽이라 불리는 영국 와딩턴 국제에어쇼(2012. 6. 30 ~ 7. 1)에 처음 참가하여 최우



수 에어쇼 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세계 11개국 40개 팀이 참가한 리아트 에어쇼(7. 7~8)에서도 시범비행 최우수상과 리아트 에어쇼를 후원하는 1,397명의 항공군사마니아가 선정하는 인기상도 수상했다. 이는 해외 첫 출전, 낯선 환경, 원활하지 못한 군수지원 여건 하에서 세계적인 에어쇼 팀들과 경쟁하여 수상한 결과로서 한국공군의 블랙 이글스팀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였음을 입증했다. 블랙이글스팀이 거둔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공군 조종사의 조종기량이 우수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산 T-50 항공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블랙이글스의 국제 에어쇼 수상은 이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과학기술의 종합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초음속항공기 T-50이 명품이라는 사실을 에어쇼에서 보여준 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준 과학기술분야의 뛰어난 기술적 재능들을 입증해 보인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은 17~22세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보 등의 분야에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기능올림픽에 1966년에 처음 참가하여, 1968년 3위 입상을 시작으로 최근의 2019년까지 총 29회에서 우승 19회, 준우승 5회, 3위 입상 3회라는 세계를 놀라게 한 대기록을 수립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천부적인 기술적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다. 그러한 분명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한국인들은 명품 T-50 항공기

에 이어 KF-21 항공기도,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들이 20세기 후반에 설계·제작하여 판매한 F-86 전투기, F-4 전폭기, F-16 다목적전투기 등과 같은 명품 전투기들과 대등한 명품전투기가 될 것을 한국인들은 기대한다. 그래야 현재 공군의 120대 소요 이후 2030년대 이후에 발생할 공군의 노후 도태 전투기들도 KF-21 후속기가 대체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F-21 개발 소요 이후에 한국 공군의 전투기 보충 소요들은 KF-21 후속기가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F-2 와 대만의 IDF 개발 및 전력화 사례들을 참고할 때 당연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KF-21 개발의 성공을 빌면서 명품전투기 출현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명품이면서 다른 유사 기종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야 한다. 정부재정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제 한국군도 국방예산이 군사전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 미래에도 일정 규모의 공군력을 운영 유지해야 하는 한국공군의 입장에서는 KF-21 국내개발이 국방예산 절감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F-21 국내개발 사업을 국가가 허락할 때 경제성의 문제를 고려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방산수출과정에서 제품이 아무리 명품이라 해도 가격이 비싸면 수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한 연유로 KF-21 개발 관련요원들에게 한국공군이 KF-21 획득과 운

영유지과정에 지불해야 하는 총수명주비용 최소화 노력을 주문한다. KF-21 획득비용과 운영유지비용 모두 해외업체에서 생산한 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개발해야 한다. 비싸지도 않고 운영유지비도 저렴한 명품전투기를 누가 마다 하겠는가? 해외수출 길이 넓게 열린 비싸지 않은 명품전투기 출현을 기대한다.

## 2. 미래 전투기 기술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위상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도 이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주요 문제의 중심에서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인 주력 전투기 설계·제작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지대하다. 위에 서술한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 창출은 물론 미래 전투기 기술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KF-21의 국내개발을 간절히 바랐던 국민들의 마음 저변에는 우리 한국도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초정밀(NT) 등 기술 분야에서와 같이 우주항공기술(ST)분야에서도 기술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

은 열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한국 공군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10년 간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High급 전투기는 해외에서 구매하고 Medium급 이하 전투기는 국내개발 전투기로 충당한다는 전투기 획득 기조는 우리 한국이 High급 전투기를 설계·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금번 KF-21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기술협력이나 모방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제부터 KF-21 개발에 참여한 모든 엔지니어들이 자기 담당분야의 제품을 세계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해당분야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설계·제작하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졌으면 하고 기대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더 높은 곳을 향한 강렬한 열정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천부적으로 타고난 과학기술분야에 기술적 재능 등 한국인의 저력을 일깨워서 도전의식을 발휘한다면 분명 가능하다고 믿는다. 금번 KF-21 개발을 통해 미래에 한국이 전투기 개발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신보현, 보라매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2009. 11. 13., 국방장관 공청회 발표자료, WCAR)
- 신보현, 한국형전투기 사업추진전략과 제언(2014. 6. 24., KODEF 발표자료, WCAR)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전투기 개발계획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2(2015. 9. 10.)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국방부)

# 문-바이든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홍성표(28기)

## I. 서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1일 미국을 국빈방문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70여 년 전 한국전장에서 어깨를 서로 맞대고 함께 피 흘려 싸우면서 다져진 혈맹임을 확인하고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이 이제 까지 번영과 평화안정을 지속해왔으며 동맹의 끈끈한 근간을 이루어왔음을 재확인하였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미동맹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어떻게든 북한과 평화모드를 유지하고자 심지어 굴종까지도 불사하면서 유화책을 펼치고자 애쓴 문재인정부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급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욕구가 결합되면서 남북 및 한미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우여곡절들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정책으로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가치들이 손상을

입거나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기(失機)하는 등 양국관계는 예전처럼 원만하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했던 대북 접근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 경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롭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구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잇는 하나의 경제권역 벨트를 건설하자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경제권역이 형성되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아 미국은 이를 경계하면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발족시키고 역내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를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대통령을 초청했고, 마침내 두 정상은 세  
국가가 주목하는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개  
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향후  
제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남  
이 첫 순서로 한국전쟁의 영웅 랠프 퍼켓  
(Ralph Puckett Jr.) 예비역 육군대령에게  
최고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조지아 출신의  
5세인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청천강 전  
선에서 미8군 소속 특수부대 중대장으로서  
1명의 특수요원들을 이끌고 10배가 넘는  
공산침략군과 용감하게 싸워 격퇴시켰으  
며, 그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당시 그는 군사메달을 받았으나 훗날 그의  
용맹함이 재평가되어 훈장으로 격상되었고  
이번에 다시 최고명예훈장으로 서훈된 것  
이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던 그는 많은 나  
라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처럼 감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감사한 마음  
을 표했다.

이번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서훈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행한 첫 장수여식으로써 한미정상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더욱 뜻 깊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그 처절했던 한국전쟁에서 공산세력에 맞서 함께 피 흘리며 용감하게 싸웠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역사 속에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온 동맹 중의 혈맹임을 상기시키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 이는 또한 한미 양국에게 더없이 소중한 한미동맹을 그 어떤 미사여구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로 전 세계에 전파됐다.

이어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밸  
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  
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약하였다.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  
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  
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정표임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중진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고,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두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한 간, 미북 간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



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두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정상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 정상은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홍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가 전염병 예방진단 대응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두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두 정상은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동의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 신홍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두 정상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홍기술 분

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두 정상은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두 정상은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고,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한미 양국은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하여 큰 자부심을 느낀다.

두 정상은 부패 척결, 표현 및 종교 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두 정상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들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괄목 할 만한 것은 공동성명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해협을 직접 명기함으로써 중국이 내정문제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에 대하여 한미가 공동의 관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구를 확실히 날리고 있는 것이다.

### III.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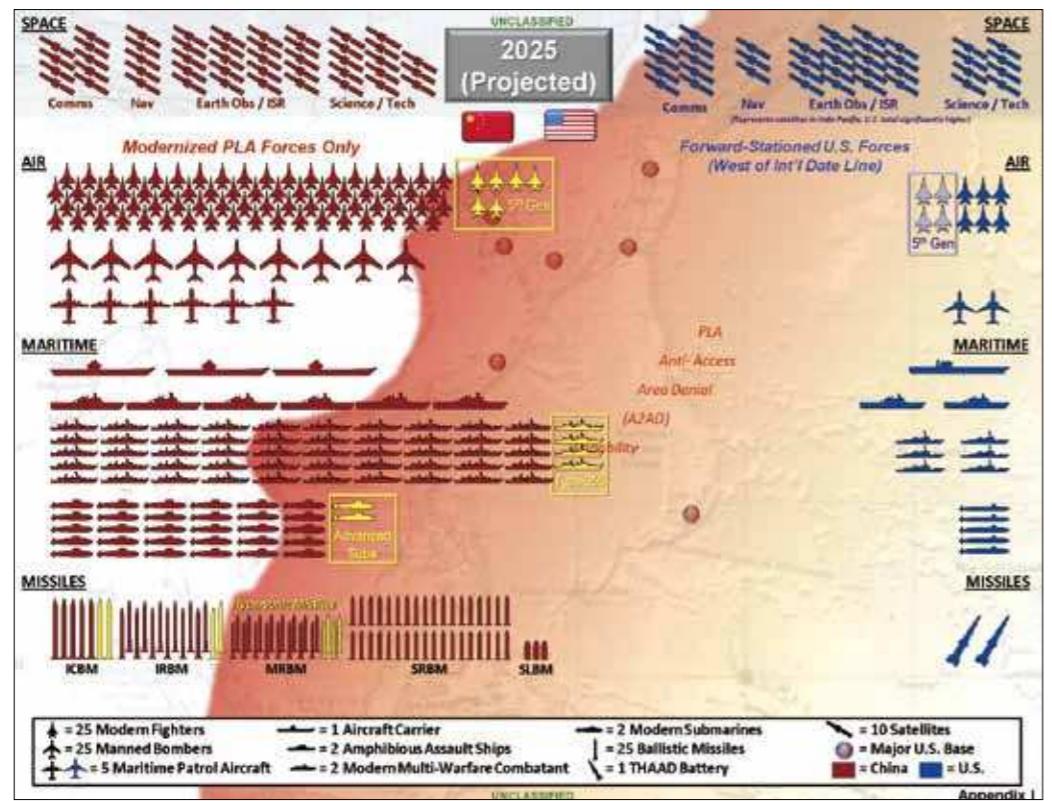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매우 만족스런 소감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힘 있게 강조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여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한국 기업들이 4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미 직접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두루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의 영웅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한 것은 특별한데,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들 하지만 오늘 양국의 대통령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한 것은 결코 잊혀 지지 않은 전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어느 동맹들과는 다른 혈맹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면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기화로 미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남중국해, 쿠드, 무역불공정은 물론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재조사까지도 명기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확실히 한미동맹 쪽으로 명료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기술협력 -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5G/6G 통신기술, 우주개발 등의 협력과 경제협력은 모두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미의 상생협력인 것이다.



[그림 1] 인도-태평양사령부의 2025년 중국군사력과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력 비교

여기에 더하여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규범 대신 물리적 힘으로 주변 약소국들을 내몰고 있는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중국은 홍콩,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남사군도에 관계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인접국 어선들을 몰아내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제질서를 저해·위협하여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감된 입장을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굳건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과시하였다.

인도-태평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1년 국방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46.8억 달러를 요구했고, 또 2023~2027년의 중기 계획에는 226.9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급부상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미국은 쿠드협력체를 근간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쿠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QUAD Plus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성과는 대북정책에 관한 두 정상의 공동 합의를 들 수 있다. 문대통령은 미국이 이제까지의 미북합의 선상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환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말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대화와 협상을 위해 대북제제를 완화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만 줬다는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 1979년 한미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합의하면서 탄두 500Kg, 사거리 180Km로 제한했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와 탄두 제한을 완화했고, 이번에 이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같은 제한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현무-4에서 보여주었듯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 및 탄두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미사일 규제를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문대통령은 코로나 전염병이 범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한국에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55만 명 장병들에게 백신을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sup>1</sup> 대신 향후 한국에서 삼바,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를 통해 아태지역 코로나 백신 허브를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은 또한 원자력발전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도 갖추지 못한 3세대 원전인 APR 1,400의 설계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미국과 합작 진출 시 국제 원전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원전 건설 세일즈에 나선다는 정책적 모순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한국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대를 들 수 있다. 문대통령의 비공식 경제사절로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의 대표들이 기자회견장에 동석했는데,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라인 증설에만 20조 원 규모를 투자하며,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배터리 공장을 추가 증설하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도심항공교통,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하이오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기로 하

고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경제협력은 코로나사태 이후 급격하게 증대될 세계경제의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써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거대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했다가 현지의 정치적 규제로 낭패를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불안정한 투자여건과 비교하면 미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다. 다만 한국 내 투자가 그만큼 위축되어 국내 고용 및 신기술 창출 등 경제적 추동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정적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두 정상은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원칙을 강조하였고, 군경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조속한 평화복원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력할 것도 촉구하였다.

문대통령은 귀국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역설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 호혜동맹으로의 발전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이처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전쟁에서 함께 싸우며 다져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함으로써 한미관계가 여느 양자관계들과는 확연히 다른 협력임을 재확인하였다.

#### IV. 한미동맹의 과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 달러로 증액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물론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원조 차원의 부담이라서, 도의적으로는 한국이 전세계로부터 친빛을 갚는다는 의미가 크지만, 실상은 미국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하는 형식이라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도움으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단기간 경제성장 모델국가로 발돋움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함께 도입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미국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요소였다. 해방과 정부수립 기의 경제 무상원조를 비롯하여 1970년대 초까지의 무상 및 유상 군사원조, 그리고 그 후로 한국의 산업화를 지원해온 무역최혜국 대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책들 -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국가성장은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한미동맹의 미래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한미동맹 편에 확고히 서야 한

다. 그동안 문정부가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줄 수 없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누려왔다. 그보다 더 좋은 맹방이 어디에 또 있는가. 반면,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보여준 대국답지 못한 행태들은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도(正道)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길로 정진해야 한다.

다음은 북한문제에 관한 한미간의 빈틈 없는 정책공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는 의미는 그가 권력의 핵심부에서 오랫동안 북한의 행태를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와 기만에 낭패를 반복해왔지 않은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시로 도발하는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는 한국도 환상을 버리고 유화책이 아닌 단호한 입장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온전히 합류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북한 해법의 정석(定石)이다.

다음으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충실한 대내외정책들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시대에 걸맞는 국가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첨경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

<sup>1</sup> 실제로는 미국이 100만 명 분의 얀센 백신을 제공했고, 한국은 이를 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과의 원전합작을 추진하는 것도, 미얀마 사태에 정의로운 압박성명을 천명하는 것도, 중남미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경제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대규모 전염병 위기로부터 인류를 지키려는 아태지역 백신허브 구상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지속에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키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한 차원 격상시켜줄 것이다.

## V. 결언

그동안 한국은 분단 현실과 미·중 갈등의 높은 파고에 묻혀 분단국으로서의 굴레를 헤어나지 못하고 강대국들 눈치를 살피느라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가정체성을 제

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제는 이 같은 굴레를 벗어나 한국의 국가위상에 걸맞는 미래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정도(正道)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해야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문화 강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못지않은 우수민족국가 대한민국, 인구 4천만 명으로도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영제국 못지않은 21세기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건설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의기투합한 것처럼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혼들림 없이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 21세기 냉혹한 국제정치무대에서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은 국익을 보호·증진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한결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강병철(34기)

#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의

## 인도-태평양 전략의 등장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이 가장 중요하게,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13년 3월,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연설 중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고, 2013년 5월, 호주 「국방백서」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사용되었다.<sup>1</sup> 그럼에도, 오늘날 유일 패권국인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것도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을 경제·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틀로 활용한다는 점은 과거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언급한 인도-태평양과는 본질적으로 그 함의가 다르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의 발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대외전략과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대외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의 대외정책은 집권세력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Joe Biden)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sup>2</sup>

전술(前述)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유대와 자유롭고 개방

<sup>1</sup>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제33권 2호, 2018, pp. 269-271.

<sup>2</sup>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Washington D.C.: DOD, 2019)



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적시하고 있다.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으로, 미국이 주목하는 도전 및 위협 세력은 4개의 국가 또는 집단으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서의 중국, ‘갱생된 악덕 행위자’(Revitalized Malign Actor)로서의 러시아, ‘불량 국가’(Rogue State)로서의 북한, 그리고 테러집단 등 초국가적 위협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방 전략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지역 차원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지속 부분으로, ‘준비태세’(Preparedness), ‘파트너십’(Partnerships),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의 증진’(Promoting a Networked Region) 등 세 가지의 ‘노력선’(Line of Effort)을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2장과 4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환경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즉 현상파 국가로 인식한다. 문제는 중국이 정치적 · 경제적 · 안보적 이익의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당사국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체제 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국제체제를 침해하고,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외 행태를 조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군 현대화 및 강압적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전략적 이득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이다.

먼저 군 현대화 및 강압적 행동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은 경제적 · 군사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1등’(global preeminence) 국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의 전략적 방향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광범위한 군사 프로그램과 무기에 대한 투자이다. 전력투사 능력의 향상, 핵전력의 현대화, 사이버 · 우주 · 전자전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작전 수행능력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반 접근/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의 개발로서, 이는 중국이 자신의 주변 지역에서 타국의 군사작전 수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셋째, 역내 분쟁지역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저강도 강압(low-level coercion)의 구사인데, 중국은 ‘평화로운 관계와 명시적인 적대관계’(peaceful relations and overt hostilities) 사이의 ‘회색지대’(grey zone)에서 작고 점진적인 조치들을 지속해왔다. 넷째, 대만 사태에 대비한 능력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잠재적인 분쟁 상황에서 요구되는 첨단 군사능력들을 지

속적으로 개발 ·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민해방군(PLA)의 현대화로서, 특히 중국은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합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군의 재조직은 물론, 지휘통제, 훈련, 인원, 군수 체계의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음은 전략적 이득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이다. 국가 간 관계 측면에서 볼 때, 한 국가의 투자는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에 어느 정도 이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나 심지어 투자 수용국의 주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2018년 방글라데시는 뇌물 수수로 인하여 중국의 국영기업 중 하나를 활동 금지시킨 바 있고, 같은 해 몰디브 재무장관은 중국이 이전에 합의한 가격에 비해 훨씬 부풀려진 가격으로 자국의 사회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더욱이 중국의 한 국영기업은 스리랑카 정부가 외채 상환 의무에 처한 상황에서 현금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99년 동안 함반토타<sup>3</sup>(Hambantota) 항구를 운영할 수 있는 통제권을 매입하기도 하였다.<sup>4</sup>

###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영향력 지속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을 위해 추구하는 전략은 세 가지의 ‘노력선’으로 집약된다. 이는 상위문서인 국방전략서(NDS)에 연원을 갖는 것으로, 동 전략서에서 미국은 국방부에 ‘치명성(lethality)의 증가, 동맹(alliance)의 강화, 그리고 경쟁 공간(competitive space)의 확대’를 주문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준비태세,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의 증진(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이라는 세 가지 노력선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노력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다.

첫 번째 노력선은 준비태세이다. 미국에 가장 큰 압박감을 주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는 경쟁국들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은 경쟁국들이 힘을 통해 이익을 증진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분쟁 초기에 자신들의 국지적인 군사적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시나리오<sup>5</sup> 하에서 경쟁국들은 제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sup>3</sup> 스리랑카 남부 주 함반토타 지구의 수도

<sup>4</sup> 일부 학자들은 시진핑이 중국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이 많은 저개발국가들을 ‘부채의 빚’에 빠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미국은 ‘BUILD’(the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로 대응하고 있다.

<sup>5</sup>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경쟁국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신들의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대응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방부는 군사력 운용, 위기 대응, 군사력 건설 및 개념 개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 등에 관한 구상을 할 때,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기 국방전략서가 국방부에 준비태세를 갖추고(posture ready), 전투 신뢰성이 있는 군사력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주변에 전방 배치하고(combat-ready forces forward alongside allies and partners), 필요하면 싸워서 이길 것(if necessary fight and win)을 주문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미국이 추구하는 접근방법은 경쟁국들이 신속하고 손쉽게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두 번째 노력선은 파트너십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동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 사이의 파트너 관계는 다양한 수준에서 관찰되는데, 먼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며, 미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역내 평화와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과는 기존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와는 ‘주요 국방 파트너십’(Major Defense Partnership)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과는 ‘신흥 파트너십’(Emerging Partnerships)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에 대해서도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초석’(cornerstone)으로, 후자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구심점’(linchpin)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가치와 인식을 가장 긴밀하게 공유하는 국가는 일본인 듯하다.

세 번째 노력선은 지역 네트워크의 증진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적인 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며, 다른 하나는 다자 참여를 통한 지역 제도의 강화이고, 나머지는 아시아 내부(Intra Asian)의 안보관계 강화이다. 먼저,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은 역내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기제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3국은 규칙-기반의 국제

전후 문맥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일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분쟁 지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중국의 주변 해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기 해역으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리상의 유리함 등 국지적인 군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기정사실화’ 시나리오를 이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질서를 지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성취하며, 역내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제도의 강화는 주로 아세안(ASEAN)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역내 안보 구조에 있어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지해왔고,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내부의 안보 협력은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안보협력 증진이 결국 지역적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방부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상호 연계된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함의

21세기 국제정치의 핫 이슈는 단연 미·중 패권경쟁이다. 공격적 현실주의를 주창한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에 따르면, 모든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중국 또한 중국몽이나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해양력과 항공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군의 급속한 증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해양영토를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벌이는 갈등의 양상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지역패권 추구의 의지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지난 4년과는 다른 對 중국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국제정치의 속성상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sup>6</sup>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중국과 동시에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입장이다. 향후 언젠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해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고 신남방정책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대외 전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와 중국은 긴밀한 경제 파트너이지만, 우리와 미국은 위협을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이 염존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는 외부의 힘에 의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sup>6</sup> 지난 2월 9일 미-인도 정상 간 통화에서도 ‘쿼드’(Quad) 강화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2021. 2. 9



# 주변국의 우주력 건설동향과 시사점



이성훈(39기)

## 1. 서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경쟁이 최근 들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우주 전력 확보와 우주군을 창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우주의 군사화를 넘어 우주 무기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제1의 우주강국인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은 우주공간의 패권 장악을 위해 우주발사체, 독자 위성항법체계 등에 역점을 두고 우주력을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주공간의 군사화를 목표로 극초음속 비행체등 우주무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찰위성 개발과 우주 감시체계 등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전력의 확보와 더불어 우주사령부를 비롯한 우주군 조직 발전에 대한 움직임도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2015년 우주군이 포함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으며, 러시아도 동년에 기존의 공군과 항공우주방위군을 통합해 항공우주군을 만들었다. 미국은 2019년에 우주군을 창설하였으며, 같은 해 프랑스는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하였다. 2020년에는 일본이 항공자위대 예하에 우주작전대를 편성한 바 있다. 이글에서는 위와 같은 주요국들의 우주전력 건설동향과 우주관련 조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군의 우주력 건설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주요국의 우주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대국과의 우주영역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점유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 미 의회는 미국이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충분한 수준의 우주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군 위주의 우주개발에서 탈피하여 우주군 창설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켰다. 더불어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4대 국가우주전략’으로 ①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 우선,

② 미국의 우월적 우주 우위 지속, ③ 강력한 힘으로 평화 유지, ④ 4대 원칙<sup>1</sup> 기반의 통합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2019년 '제4차 우주정책지침'을 발표하고 12월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2020년 6월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국방우주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첫째, 우주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에 대해 우주 차원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전략적 맥락’에서 우주로부터의 위협, 우주를 둘러싼 위협과 도전 및 기회 등을 분석하였다. 중·러를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이란을 갈수록 높아지는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 ‘전략적 접근’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 우주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10년 동안 우주능력을 향상시켜 우주 우위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주능력 개발의 특이사항으로 Space-X를 활용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STARLINK)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군을 활용하여 전 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 서비스를 목표로 1만여기 이상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우주선의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및 유인화성탐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중국

중국은 우주영역을 전략적 경쟁지역으로 인식하여 적극적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의 집중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우주능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sup>2</sup> 독자 위성항법체계인 베이더우(北斗)를 구축하고 우주정거장 설치를 추진하는 등 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주의 전장화에 대비하여 위성요격미사일(ASAT, Anti-Satellite), 고출력 레이저 등 우주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0년부터 베이더우 계열의 위성 총 59기를 발사하여 2020년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완성하였는데, 현재 베이더우 계열 위성 55기중 35기를 상시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상황을 실시간 관측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 걸쳐 우주감시자산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통신위성은 대부분 민·군 겸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사위성은 적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총 44기의 통신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기가 군사위성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0년에 발사한 Feng Huo-1은 중국군의 지휘통제체계인 Qu Dian 운용에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감시정찰위성은 2019년 기준으로 군 감시정찰용 56기, 민간 관측용 103기 등 총 159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달 후면부에 대한 최초 탐사에 이어 달 착륙 후 샘플을 지구 귀환에 성공시켰으며, 2030년대까지 유인 달 기지 건설을 기반으로 유인 화성탐사 계획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① 4대 원칙 : ① 보다 탄력적인 우주 아키텍처로의 전환, ② 억지력 및 대비태세 강화, ③ 기본역량, 구조 및 프로세스 개선, ④ 국내 및 국제환경 조성을 말한다.

2 중국은 2016년 13차 5개년 경제계획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에서 △인공위성 △우주항행 △화성탐사 △위성항법체계 △운항암볼선 △로켓발사체 등 6대 우주능력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다. 일본

일본의 우주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2008년 ‘우주기본법’에 우주영역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2015년 수정된 우주기본계획에서 미·일 공조를 통한 우주안보 역량강화와 10년 이내 우주산업 규모 5조억 엔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4번째 국가로서 H-2 및 H-3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독자적인 우주기술은 우주로봇기술로서 2013년 Jirobo라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우주정거장에 발사한 바 있으며 우주정거장의 실험모듈인 Kibo를 발사한 적도 있다.

또한 일본은 소행성 탐사, 유인 우주왕복선 사업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주기술은 항상 군사적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잠재적인 우주작전 수행능력은 우주선진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은 우주작전 능력향상을 위해 우주감시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 ‘준천정 측위위성체계’<sup>34)</sup>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독자적인 항법체계인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QZSS는 JAXA에서 관리하며, 완전한 독립체계가 아니라 미국 GPS의 보조수단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서비스 범위도 동북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총 7기 중에서 4기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종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감시정찰 목적으로 다양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IGS(Information Gathering Satellite)는 총 8기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8척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IIA는 잠재적으로 1,450km 고도까지의 물체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라. 러시아

러시아는 2016년 ‘2016~2025 국가우주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우주 강대국으로서의 재도약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현 소유즈(Soyuz) 우주선을 대체할 모델을 개발하고, 2023년경 새로운 우주정거장 발사와 유인우주선 발사, 달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전자정보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등 총 90여 기의 위성을 운용 중에 있다.

러시아의 위성요격 능력은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상 기반의 경우 A-135 미사일을 이용하여 약 900km 고도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현재 A-235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지역 분쟁 등 군사작전 전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위성을 적극 활용중이며, 서방의 경제제재 등 제반 제약속에서도 차세대 위성역량 확보를 위해 전력을 경주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 위성운용 수준은 구소련시절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영상정보위성은 위성 수 및 성능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위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 개발측면에서는 ’14년 크림반도 병합후 경제 제재 조치로 항공전자장비 등 주요 구성품이 조달되지 않아 개발기간이 지연되어 왔으나, 향후 대규모 예산과 인력 집중 투입으로 자체 개발 노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주요국의 우주관련 조직 및 창설유형<sup>3</sup>

주요국들의 우주군 조직과 창설 과정을 살펴보면 공군 산파형(미국), 별도 군종형(중국), 공군 진화형(일본), 공군 흡수형(러시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군 산파형**의 경우 공군을 모태로 하여 우주군의 창설 기반을 조성한 후 마지막으로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하되, 여전히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는 공군이 주도적으로 우주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이다.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우주군 창설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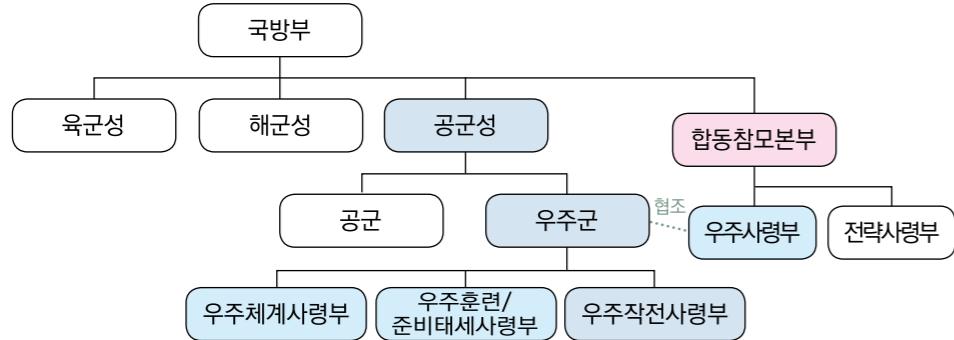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방부 공군성 예하에 6번째 군(기존 육, 해, 공, 해병대, 해안경비대)으로 우주군과 합참 예하에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우주군의 역할은 미국을 위해 ‘우주 내에서, 우주 밖으로, 우주 안으로의 작전적 자유’를 제공하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우주작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주사령부는 통합 전투사령부에 우주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군사

우주체계를 획득하고, 우주전 전문가 양성 및 우주군 교리 개발, 우주군 편성 및 훈련을 담당한다. 우주사령부는 3개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우주작전사령부는 현용 군 인공위성, GPS, 미사일 경보위성, 위성 통신체계 등 우주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며, 우주체계사령부는 우주군의 주요 장비 획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산파형이 가지는 장점<sup>4</sup>은 첫째 별도의 군종으로 확립시까지 공군의 우주업무에 관한 기존 인원과 조직,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부수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 이후에도 과도기를 설정해 공군과의 연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우주군이라는 별도의 군으로 창설시 그 위상과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에 과도기동안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우주군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본래의 취지와 다른 상황 전개가 발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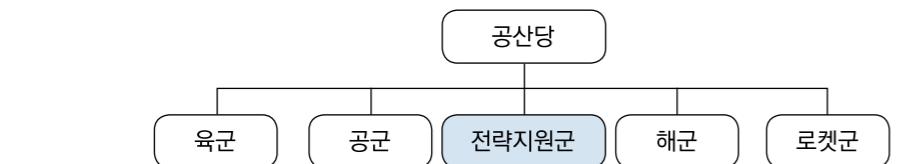
<sup>3</sup> 이 글에서 제시되는 우주군 창설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이강규·송화섭, “주요국의 우주군 창설유형과 시사점,” KIDA, 「동북아 안보정세분석」(2020)

<sup>4</sup> 위의 글, p. 4.



(2) 별도 군종형의 경우 어느 군과도 연계하지 않고 우주군을 처음부터 별도의 군종으로 독립하여 창설하고 운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중국이 2015년 말에 전략지원사령부를 창설하고 여기에 우주력 관련 업무를 배당한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우주 지배력을 따라잡기 위해 2016년 1월 전략지원군을 창설하였다. 전략지원군은 미국의 우주군과 달리 우주 능력과 전자전, 사이버능력을 통합한 합동부대이다.

전략지원군 예하 우주작전 조직은 우주체계국(SSD, Space Systems Department), 네트워크국(NSD, Network Systems Department)이 있다. 우주체계국은 지휘통제, 통신, 감시정찰과 관련된 위성발사와 궤도에 위치한 위성의 운용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며, 네트워크국은 통신 위성, 항법 위성에 대한 재밍공격, 위성 및 지상통제국에 대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한다.



이 방식의 장점<sup>5</sup>은 첫째 처음부터 별도의 군종으로 창설되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독립성과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다. 둘째, 중국의 전략지원부대에서 보듯이 미래전의 중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을 결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직 확립시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고, 따라서 많은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별도 창설에 따라 명확한 임무, 군 조직내에서 위치, 조직 발전방향 등

<sup>5</sup> 이강규·송화섭, 앞의 책, p. 6.

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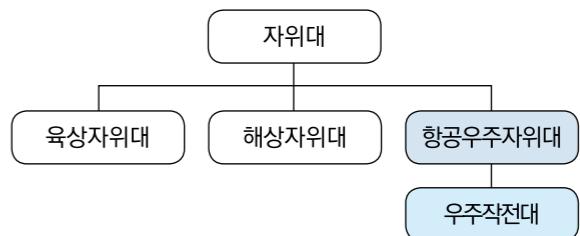
(3) 공군 진화형은 앞의 두 방식이 별도의 우주군 조직을 창설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군에 우주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명칭의 변경을 통해 공군이 우주군으로 진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은 최근 10여년 간의 북한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목적의 우주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항공자위대 내에 우주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우주작전대’를 창설하고 2020년대 초반까지 항공자위대 중심의 완전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일본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우주작전대는 미국 우주군 및 우주사령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주작전 COP, 통신, 항법 등을 제공하는 우주방어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우주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와 조직, 인원 등을 융통성있게 활용함으로써 가장 적은 노력으로 우주군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항공(air)과 우주(space) 능력 모두를 발전시켜야 하는 공군의 특성상 우주 관련 업무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러시아군 신임 항공우주 총사령관〉

(4) 공군 흡수 유형은 기본적으로 우주군을 별도로 창설한 후 공군에 통합하는 형태를 말하며 러시아가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매우 이른 시기에 우주군을 창설하였으나, 여러 통폐합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공군에 흡수되었다. 러시아는 2015년 8월 공군, 방공군, 대공미사일부대 등 산재한 우주조직을 통합하여 항공우주군을



성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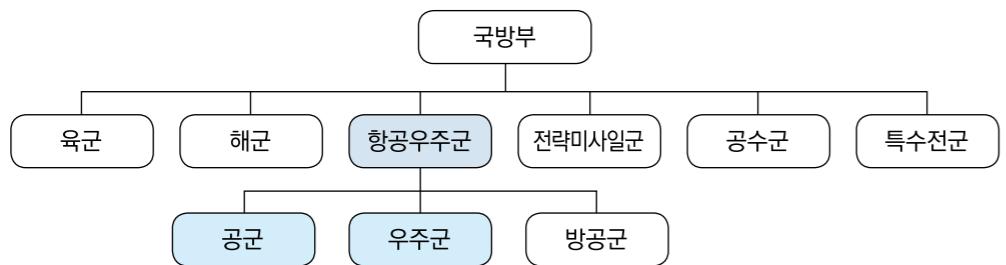
·

·

·

창설하였다.

항공우주군 예하에는 공군, 우주군, 방공군 등 3개 병종을 운용하고 있다. 우주작전은 항공우주군 예하 우주군과 방공군에서 담당한다. 우주군은 감시정찰, 항법, 통신위성 등을 수행하며 방공군은 탄도미사일 식별 및 경보, 미사일 요격, 공중 및 우주영역에 대한 감시 및 추적 임무를 담당한다. 공군은 발사, 운용 및 관리, 위성자산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이 유형의 장점은 항공(air)과 우주(space)가 단일 혹은 연장된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서 출발한 것이니만큼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공군내에서 여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각 기능의 발전에 있어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주변국들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자국의 우주우세를 위해 군사위성을 비롯한 우주무기 개발 및 군사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공군을 중심으로 국방우주력을 선도하기 위해 단계별 우주력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우주군사화 그리고 무기화 추세와 비교시 군사 우주전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북한지역 감시를 위한 독자적인 감시 자산이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시 그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주변국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상황에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군의 역할이 선도적이고 막중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법·제도적인 기반은 물론 교리·전략 개발, 우주 전문가 양성, 관련 연습·훈련 등의 분야에 있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

## Mosaic Warfare 개념과 미래 항공우주작전



서명교(46기)

2017년 미국 DARPA<sup>1</sup>에서 Mosaic Warfare(모자이크 전쟁)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어 한국군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공군도 ‘공군비전 2050’과 ‘Air Force Quantum 5.0’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되어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고는 Mosaic Warfare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미래 항공우주작전에 적용하여 설명하려 한다. 먼저 미국에서 Mosaic Warfare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 후 미래 항공우주작전 적용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앞으로 공군은 어떻게 Mosaic Warfare를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등장배경

Mosaic Warfare는 미국의 전력규모 축소와 경쟁국인 중국과의 압도적인 기술우위 제한 등으로 군사적 우위가 상실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면밀히 연구한 이후 미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개념이 필요했다.

### 개념, 효과 및 필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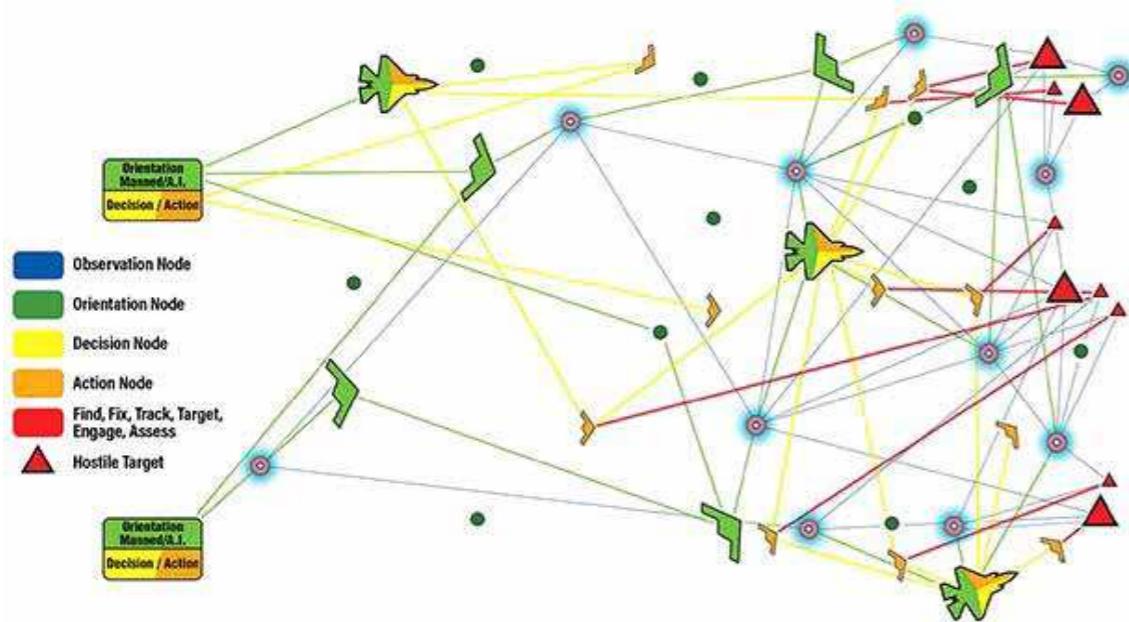
예술기법의 한 종류인 Mosaic(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빛깔의 돌, 색유리, 조각비 등의 조각을 맞추어 만든 무늬나 그림으로 어느 한 조각이 빠져도 전체 구성에 문제가 없고 다른 조각

<sup>1</sup>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미국 국방성 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로 이곳에서 최초의 인터넷이 탄생하였다. 국방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 및 감독하는 기관이다.



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Mosaic Warfare는 이런 모자이크 기법의 특징을 전력구성 및 전쟁 수행에 적용한 것으로 어느 한 전력의 사용이 불가할 때 다른 전력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모자이크 기법이 여러 가지 조각을 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Mosaic Warfare는 전력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최선의 효과를 달성하게 해준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은 아군에게는 적응성을 높이고 적에게는 아군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복잡성을 강요할 수 있다.

이 작전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고성능의 플랫폼(예를 들면 F-35,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어떤 전력과도 쉽게 편조를 이를 수 있는 다수의 분산 플랫폼(센서 무인기, 통신 무인기, 자폭 무인기, 기관 무인기 등), ② 효과적인 전력을 신속하게 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통제체계, ③ 각 작전요소(플랫폼, 지휘통제체계 등)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sup>2</sup>, ④ 각 플랫폼의 인공지능기반 자율운영 기능<sup>3</sup>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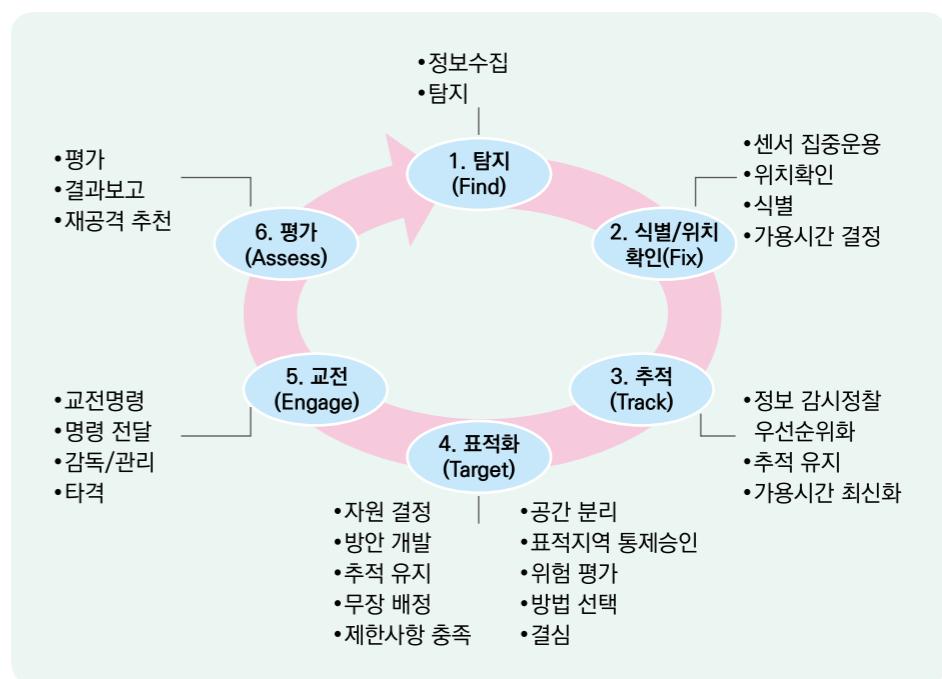


2 현재까지 미국의 전력 획득은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고성능 다기능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개발되었지만 타 전투체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권한이 위임된 상황(지휘관과 통신 두절 등)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능력

## 항공우주작전 적용 예상 시나리오

현행 항공우주작전 임무는 다음 그림과 같이 F2T2EA[탐지(Find), 식별(Fix), 추적(Track), 표적화(Target), 교전(Engage), 평가(Assess)]의 표적처리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어 이동 중인 TEL<sup>4</sup> 타격 임무(항공차단작전<sup>5</sup>)를 부여받은 조종사는 지정된 시간에 임무 지역에 진입하여 F2T2EA 절차를 수행한다. 항공기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Find)하고 관심지역에 센서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표적을 식별(Fix) 및 위치를 확인한다. 식별된 표적들에 대해 우선순위화 및 추적(Track)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타격할 표적에 대해 부수적 피해, 공격무장, 적 위협 등을 고려하여 공격패턴을 계획(Target) 및 공격(Engage)한다. 공격 이후에는 자체 센서를 통해 BDA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지대공 위협이 높은 적 지역에서 조종사가 수동으로 센서를 조작하며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Mosaic Warfare 개념을 미래 항공우주작전에 적용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았다. 우주를 포함한 전 영역의 정보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적 TEL 정보(발사대, 지휘용 차량, 지

4 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이동식 발사대

5 적의 잠재적인 군사력이 우군의 지·해상군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파괴·무력화 및 제압하는 작전



원차량 및 병력 00명, 대공포 0문, 휴대용 SAM 0문)가 아군 지휘관의 한 모니터를 통해 시현되고, 다른 모니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의해 추천된 3가지 옵션(대안)이 시현된다. 옵션1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6세대 전투기 1대, 무인기 사령부의 센서 무인기(표적식별 및 좌표 확인) 2대, 타격 무인기 4대, 통신 무인기(통신 중계) 2대, 기관 무인기 4대이며, 옵션2는 육군 특전사 1개팀이 운용 중인 자폭 무인기 20대, 통신 무인기 4대, 생체모방 잠자리 로봇 100대(표적식별 및 BDA<sup>6</sup> 확인용으로 이미 임무지역에 위치 중)이며, 옵션3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스텔스 무인 수상함(지대함 미사일 탑재) 2척, 센서 무인기 4대, 통신 무인기 4대가 제시되었다. 각 옵션은 반응시간, 정확성, 임무 성공률 등 장·단점이 비교되어 시현되고 있다. 지휘관은 긴급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반응시간이 가장 빠른 옵션1을 선택하였다.

임무가 부여되자 공중 대기하던 6세대 유인 전투기는 인근 장기체공 수송기에서 투발된 무인기 12대와 편조를 이루어 임무 지역으로 진입한다. 유인 전투기는 위험이 다소 낮은 원거리에서 체공하고 있고 무인기들은 임무 지역 상공까지 진입하게 된다. 센서 무인기로부터 획득된 표적들이 통신 무인기를 통해 전투기와 지휘부 모니터에 보다 선명하게 시현되며 표적 좌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중이던 TEL은 잠시 정지하여 정비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휘관은 조종사에게 표적을 우선순위화(지휘부 차량-휴대용 SAM-대공포 순) 하여 공격을 지시하였고, 전투기 모니터에는 타격수단(항공기 탑재 무장 - 지휘부 차량 타격, 무인기 1-휴대용 SAM, 타격 무인기 2-대공포)이 추천되어 시현 된다. 조종사는 지휘부에서 지시한 표적에 대해 표적별 무장을 선택하고 공격을 인가한다. 임무 중 아군 센서 무인기가 모두 격추되어 작전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인근에서 대기 중인 수송기가 추가로 센서 무인기를 투발하여 보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는 인근에서 임무 종료 후 복귀하는 센서 무인기를 확인하고 그 지역에 투입할 것을 지휘관에게 추천하였다.

옵션2와 옵션3의 전력들도 옵션1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임무 실패를 대비해 대기 중이다. 만약 옵션1의 대부분의 전력이 피격을 당해 목표달성이 제한될 경우 지휘관의 결심에 따라 옵션2 또는 옵션3이 즉시 시행될 것이다. 통신두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율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이 사전 위임된 권한(표적 종류에 따라 타격, 보류, 복귀 가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에서의 Mosaic Warfare 개념이 적용된 분야는 ① 전력 구성면에서 고성능

<sup>6</sup> BDA : Battle Damage Assessment, 전투피해평가

플랫폼에 추가하여 다수의 분산 플랫폼(센서, 통신, 타격 기능 무인기, 생체모방 로봇 등)을 갖추었다. 그리고 ②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세 가지 옵션을 지휘관에게 우선순위화하여 제공하였고 옵션1에서 센서 무인기가 모두 피격되어 작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동일 또는 유사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③ 작전기간 동안 모든 작전요소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 중이었고, 통신두절 시 ④ 개별 전력이 자율작전을 수행되도록 프로그램되었다.

## 우리의 준비

앞서 언급했듯이 Mosaic Warfare 개념이 많은 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군 구조,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Mosaic Warfare가 제시하는 장점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전력 획득 시에 상호운용성 강화,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 유·무인 복합체계, 소형 무인기 군집 운용 등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NATO는 전투발전요소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sup>7</sup>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도 반영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sup>7</sup> 우리군의 전투발전요소(DOTMPF)는 Doctrine(교리), Organization(구조·편성), Training(교육훈련), Materiel(무기·장비·물자), Personnel(인적자원), Facilities(시설)를 뜻하며, 곧 미군처럼 Leadership(리더십)과 Policy(정책)가 전투발전요소에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NATO는 정책(Policy) 대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전투발전요소에 포함하고 있다.



# 공군, 항공우주군으로 나래를 펴다



추한형(50기)

2021년 2월 1일, 미 우주사령부는 새로운 전략보고서<sup>1</sup>를 통해 잠재적 적이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활동을 위협할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군사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중·러를 우주 영역에서 장기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우주 영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11월 3일 브라이스 우주기술(Bryce Space and Technology)<sup>2</su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은 2020년 한 해 29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인공위성 최다 발사국이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22년까지 우주 정거장을, 2045년까지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우주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우주기술과 역량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전통적인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를 군사화하여 전투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군사 교리 발전과 우주무기체계 개발·시험 및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우주 영역에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미·중·러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20년 5월 1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예하 첫 우주 전문부대인 우주작전대(Space Operations Squadron)가 창설되었다. 우주작전대의 주요임무는 감시용 레이다를 운용하여 자국 인공위성을 적 위협 및 우주 쓰레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써 일본도 미·중·러와 마찬가지로 우주 영역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움직임으로 전통적인 전장(戰場)이었던 지상, 공중, 해상을 벗어나 우주 영역에서 군사적 이용이 대두됨에 따라 이제까지 체계적·단계적으로 우주력을 발전시켜 왔던 대한민국 공군도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을 모색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과거 공군의 발전상을 되짚어 보면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의 청사진을 살펴보려 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 직제’가 수립됨에 따라 1,600여 명의 병력과 L-4/5 항공기 20대를 보유한 군으로 창군(創軍)하였다. 직제에 의해 창설된 공군본부는 예하에 비행단, 공군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등 6개 부대를 편성하고 이

<sup>1</sup> 본 보고서는 군사기술에 필수적 위성자산인 ‘GPS 유도/경보/요격’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세 및 방어 개념을 담고 있음.

<sup>2</sup> 브라이스 우주기술社는 정부 프로그램 지원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석·엔지니어링(analytics and engineering) 회사임.

후 여의도기지, 김포기지 외에 5개 작전기지를 추가 확보하여 공군의 기틀을 다졌다. 2021년 현재 비행단 첫 번째 부대번호를 갖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은 공군의 창군(1949년 10월 1일)과 함께 창설된 ‘비행단’의 명칭을 6.25전쟁 기간 중 제1전투비행단으로 변경하여 창설되었다. 1951년 9월 28일에는 F-51 전투기 단독출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 있던 제10전투비행전대(사천기지)를 강릉기지로 이동하였고,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전대의 부대격(部隊格)을 상향하여 두 번째 비행단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였다.

6.25전쟁 이후 공군은 전력 현대화를 위해 1955년 F-86F 전투기와 T-33A 훈련기를 도입하였고 제10전투비행단에 배치하였다. 1958년 8월 1일에는 김포기지에서 제111전투비행대대와 제112전투비행대대를 보유한 제11전투비행단이 창설되었다. 제11전투비행단도 제10전투비행단과 마찬가지로 F-86F 전투기와 T-33A 훈련기를 도입 및 배치하였다. 1958년도에는 비행단 외에 제31항공통제전대, 제32전술정찰비행대대, 제33구조비행대대 등 다양한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창설되었고 이러한 부대들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1961년 7월 1일 공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60년대 북한은 공군 전력 현대화 및 전술기지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 대비 우세한 항공 전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도 1965년 4월 F-5A/B, 1969년 8월 F-4D 전투기 도입과 레이더 기지 및 작전기지 건설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군 전력은 북한과 비교하여 열세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74년 8월 F-5E, 1977년 6월 F-5F, 1977년 9월 F-4E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 및 전력화하였다. 1960~70년대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의 공군 대비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전력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1982년 9월에는 국산전투기 ‘제공호(F-5E/F)’를 수원기지에 배치하였고, 1986년 4월 F-16 전투기, 1988년 1월 C-130H 수송기<sup>3</sup>, 1989년 12월 RF-4C 정찰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1985년 7월 자동화 방공관제체계, 1986년 12월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Korea Combat Operations and Intelligence Center)를 운영하여 유사 시 제공권 확보 및 지·해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1991년 5월 제19전투비행단이 창설되었으며, 1994년 9월에는 국산 KF-16 전투기가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되었다. 1991년 7월 작전사령부 예하에 방공포병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공군은 방공포병사령부<sup>4</sup> 창설을 통해 단일 작전지휘체계로 항공기, 방공포, 레이더 등 3개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군으로 진보하였다. 또한 1996년 12월 서산기지에 제 20전투비행단을 창설함으로써 공군은 12개의 비행단을 보유한 군으로 성장하였다.

<sup>3</sup> C-130H는 제5전술공수비행단(1955년 대구에서 창설되어 1972년 김해로 이전)에 도입·배치되었고, C-130H 도입·배치와 함께 제251전술공수비행대대가 창설됨.

<sup>4</sup> 1972년 12월 오산에서 창설된 방공포병사령부는 1991년 7월 공군으로 전군되었으며, 2013년 6월 11일 부, 방공포병사령부 부대명칭이 방공유도탄사령부로 변경됨.



2000년 9월 공군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KT-1 기본훈련기, 2005년 12월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28일 F-15K 2대를 최초 도입한 후 2008년 10월까지 제11전투비행단에 F-15K 전투기를 배치·전력화(1차 사업)하였고, F-15K 도입 2차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공군은 국내 개발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 전력화를 마무리하였

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1년 1월 전술입문용 항공기 TA-50을, 2013년 8월에는 경공격기 FA-50을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를 도입·전력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0년 10월에는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E-X 사업)의 결실로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가 창설되었다. 2011년 9월 E-737(공중조기경보통제기) 1호기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2년 10월까지 E-737 도입이 완료되었다. 2018년 9월에는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중급유기 운용 대대인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가 창설되었다. 2018년 11월 KC-330(공중급유기) 1호기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1월까지 KC-330 도입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공군은 E-737과 KC-330 도입을 통해 항공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거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군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11월 1일 제39정찰비행단<sup>5</sup>이 공군의 13번째 비행단으로 창설되었다. 이는 1996년 제20전투비행단 창설 후 약 24년 만의 비행단 창설로 공군 역사에 기록될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공군은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시정찰 항공기의 퇴역으로 2010년 초반까지 부족한 감시정찰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제159전투비행대대를 제159전투정찰비행대대로 전환하여 제39정찰비행전대로 예속 시킴으로써 RF-5A, RF-4C를 운용하던 제39정찰비행전대의 명맥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또한 공군은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도입·운용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였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에서 미래전의 감시정찰 능력



<sup>5</sup> 제39정찰비행단은 새로운 감시정찰 무기체계 도입과 연계하여 통합·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1989년 창설된 제39정찰비행전대를 부대격 상향하여 전환창설됨.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찰비행단' 창설이 탄력을 얻게 되었다. 제39정찰비행단 창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군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전력의 도입과 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제 공군은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주영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공군은 20여 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①교리, ②조직<sup>6</sup>, ③훈련<sup>7</sup>, ④전력<sup>8</sup>, ⑤리더십, ⑥인력, ⑦시설의 7가지 우주력 발전 요소를 체계적·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와 더불어 2020년 4월 대한민국 공군은 창군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Air Force Quantum 5.0'<sup>9</sup>을 발간하고 우주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들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미래 공군은 '우주상황인식' 수준의 제한적 우주작전을 넘어 '우주전력투사' 및 '대우주작전'과 같은 다양한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출력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조기경보위성, 대위성 재밍체계 등의 자산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주작전 수행 부대를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은 눈부신 항공력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군사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변국의 우주를 향한 굴기(屈起)가 계속되는 한 항공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군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02년 3월 12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우주군의 주역으로 공군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이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은 언제나 공군이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군이 강하고 스마트한 항공우주군의 당당한 주역이며,  
21세기 항공우주시대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

- 2020. 3. 4.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공군이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군인 모두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관심과 당부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지난 70여 년 동안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군을 발전시켜 온 선배들의 지혜와 슬기를 되새기며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군을 향해 힘찬 나래를 펼쳐 나갈 것이다.

<sup>6</sup> 1998년 전투발전단 예하에 우주분야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우주처, 우주정보상황실, 우주작전대 등 우주정책·전략·전력·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전담조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옴.

<sup>7</sup> 2012년부터 연합연습을 위한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sup>8</sup> 2012년 탄도탄감시체계를 시작으로 2014년 우주작전상황체계를 구축함.

<sup>9</sup> Quantum 5.0의 의미

- Quantum은 물리학적으로 '양자'를 뜻하며 미래를 주도할 핵심 과학기술인 '양자혁명'을 염두에 둔 공군의 대도약을 표현  
- 2050년대를 준비하는 공군의 비전과 미래 핵심능력 발전분야를 5가지로 집약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의미

# 미래 조국영공 수호를 책임질 한국형 첨단전투기, KF-21



박진구(47기)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한 항공기가 우리 공역에서 날아야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공군의 정신적 지주, 최용덕 장군입니다. 최용덕 장군의 열망은 1953년 10월 10일,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 완성으로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관측 및 연락 기로 쓰인 부활호로부터 시작된 국산 항공기의 개발은 기본과정 훈련기 KT-1 웅비(1995년),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2002년)을 거쳐 부활호 완성 이후 67년이 지난 지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사업은 대한민국의 전방위 자주국

방의 핵심전력으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써, 올해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되고 난 후, 2022년 상반기 첫 시험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계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KF-21는 2026년부터 노후화된 F-5 및 F-4를 대체하여 F-35A, F-15K, (K) F-16, FA-50과 더불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써 조국 영공을 수호하게 됩니다.

KF-21이 이제 조국 영공으로 박차오를 시간이 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자국산 첨단전투기 개발은 동북아 주요 국가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F-22, F-35에 이어



부활호



KT-1 웅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2017년 실전 배치하였고, 일본은 1978년 자국산 훈련기인 T-2를 기반으로 F-1을 자체 개발한 후, 2000년에는 미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F-2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은 이때 자체 개발한 전투기 탑재용 AESA 레이다(뒤쪽에 설명)를 F-2에 장착·사용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용 엔진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자국산 전투기인 칭쿠오(經國)를 이미 1989년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FA-50 공격기를 만든 역사가 있지만, 훈련기인 T-50을 토대로 만든 파생형의 것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KF-21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KF-21이 어떤 전투기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KF-21의 일반적인 외형과 성능은?

KF-21의 외형은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현재 공군이 실전배치 중인 F-35A보다 길이는 약 1.2m, 폭은 약

0.5m 더 큽니다. 엔진의 최대 추력은 4만 4000lbs, 최대 이륙중량 25.6t, 공대공/공대지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t이며, 기체 배면과 주 날개에 10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 유럽의 주력전투기인 유로파이터에 이미 운용되어 검증된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대지 무장으로 레이저 정밀유도폭탄(LGB), GPS 정밀유도폭탄(JDAM), 레이저/GPS 정밀유도폭탄(LJDAM), 소규모 정밀유도폭탄(SDB),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일반 목적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첨단 핵심기술의 요체(AESA), AESA 레이다

1차대전의 전설적인 조종사인 ‘オス발트 벨케(Oswald Boelcke)’는 공중전의 승리를 위한 ‘벨케의 8가지 금언’을 남겼고, 이 금언은 현재까지 전투조종사들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벨케의 금언 중 첫 번째가 ‘태양을 등지고 적이 눈치 채기 전에 적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하강하며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적을 보고 (적이 인지하기 전에) ‘먼



T-50 골든이글



KF-21 시제기 제작 모습



저'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먼저' 공격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중전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바로 이 '먼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입니다.

공대공 · 공대지 · 공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 추적하는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자식 레이다로써,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까지의 기계식 레이다는 사람의 눈(目), AESA 레이다는 잠자리의 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눈은 옆에 있는 목표물을 보려면 눈동자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작은 눈으로 이루어진 잠자리 눈은 눈동자의 움직임 없이 훨씬 넓은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형추적(TF: Terrain Following) 모드를 포함한 KF-21용 AESA 레이다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KF-21의 스텔스 성능은?

KF-21는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지만, 여러 저피탐(低避探) 기술과 내부 무장창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오늘날에 KF-21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KF-21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KF-21를 통해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로 가까운 미래에 독자 기술로 만들 6세대 전투기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 KF-21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意味)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군력은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30년 전 걸프전(1990~1991)을 통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우리 공군은 비전을 가지고 능력과 영향력을 신장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F-15K 도입, 국산훈련기 KT-1/T-50 개발, 항공통제기 E-737,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및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KC-330 도입 등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창군 100년이 되는 2050년을 앞두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다음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이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첨단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라는 지난 30년간의 우리 공군인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결정체이자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우리 공군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발점으로써,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을 이어주는 중요한 징검다리이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KF-21 사업에 대한 공군 선 · 후배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 4차 산업혁명 기반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추진현황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신기술정책과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교통 혼잡도에 따라 교통신호를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밤길을 걷는 사람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가로등을 켜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보호자와 관계센터에 알려주는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다양한 서비스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공항도 '관제탑에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하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과 장비를 원격에서 감시 ·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스마트공항(Smart Airport)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스마트 팜(Smart Farm)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만큼 성숙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안전해지고 생활은 편리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로 인해 우리 국방도 최근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도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와 우주로 전장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차원적 전장 환경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공군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을 공군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능형 스마트비행단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비행단이다. 공군 비

행단은 공군작전사령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이다. 따라서, 비행단에서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 지원하고 평소에 효과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병영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공군은 이러한 비행단의 핵심 능력을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항공우주작전, 기지방호작전, 작전지원, 교육훈련, 병영복지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군은 2017년부터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을 단계별로 진행해 왔다. 첫 번째 단계로 모든 비행단의 정보통신 환경을 분석하고 부대별로 다른 ICT 기반을 표준화하여 스마트비행단 구축 여건을 조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2018년부터 비행단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지휘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상황실과 실시간 정보공유가 되는 환경을 구축 중이며 올해 모든 비행단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의 핵심인 세 번째 단계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임무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2단계에서 비행단 지휘소와 현장 사이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초연결 네트워크, 상황 감시·통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3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임무 전반을 혁신하는 응용체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으로 장비와 물자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원격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비인가 드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제20전투비행단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혁신적인 응용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비행단 구축은 국방부와 공군만의 노력이 아니라 타부처, 민간기업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民·官·軍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을 의결하여,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을 위해 범부처간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체계 사업을 디지털 뉴딜과 같은 국가 중요정책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 연구개발(R&D)과제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방실험사업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최신 기술과 체계를 군에 시범 적용하거나 군에서 체계를 자체개발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첨단 혁신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진행한 스마트 디지털관제탑은 최근 구축이 완료되어 작전수행에 활용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디지털관제탑은 인공지능,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반으로 활주로 주변 지상과 공중의 모든 상황을 360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고 통제 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로 비행단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시정계와 지능형 경계감시체계 등 시범체계들이 완성되어 임무에 활용되고 있다.



공군은 지난해 1월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와 6월 국방/과기정통부장관 공동주관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시연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또한,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SNS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국민에게 성과를 알렸다. 이제 육·해군, 해병대에도 공군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여 스마트 부대 구축을 선도하고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우리 공군은 창군 이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은 국방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군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유연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공군 지능형 스마트비행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개념, 사업현황 등)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을 구축해 왔으며 많은 임무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군의 지능형 스마트비행단의 핵심개념과 단계별 구축전략은 이제 육·해군, 해병대 스마트 부대 건설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임무수행체계 구축도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비행단에서 ‘무인경계로봇이 기지외곽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병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훈련하고, 무인자율주행차로 근무지와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등 작전 수행환경과 병영 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 공군은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전 임무 분야에 적용하여, 항공 우주작전 수행체계의 지능화와 국방운영 환경 고효율화로 업무혁신과 전투력 증강을 달성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 기술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회원 기고



- |                                 |   |
|---------------------------------|---|
| 82 나의 출격 일지   이배선               | 135 제2의 직업   서성도                        |
| 87 6·25 남침전쟁 회고록   김동호          | 138 자전거 타고 해남 땅끝 마을로   류홍규              |
| 91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김국창           | 144 국력이 강해야   김국휘                       |
| 94 모교(空土)예찬   최규창               | 147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   성일환                  |
| 96 취미생활, 게이트 볼(Gate ball)   백승웅 | 151 後見之嘆   권석원                          |
| 99 동기생   최성열                    | 154 해외 대학 파견 객원교수로서의 활동 소감   신영덕        |
| 101 타이베이, 감동의 세레나데   김익래        | 159 인생 결과 보고서   이두희                     |
| 105 54년 전 미 공사 방문을 회상하며   장호근   | 162 어쩌다 한의사   차종환                       |
| 120 나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광성    | 167 지금은 독수리 구호가 필요할 때! 독수리 구호 준비!   김정수 |
| 123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다   석현수         | 170 희망과 사랑을 찾아   김광희                    |
| 126 세 번으로 그치지 않을 산티아고 순례길   금기연 | 173 우상, 은사 그리고 아버지   은석준                |
| 132 조선왕릉탐방   김동기                |   |



# 나의 출격 일지



이배선(1기)

1931년 함흥에서 태어난 나는 1948년 11월 공산체제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자유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1주일간의 고난과 역경을 치루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월남했다. 당시 북한은 공산치하에서 주민들의 삶이 점점 더 제약받고 성분에 따른 차별이 구체화되어, 김일성대학 입학 면접에서 떨어진 나는 월남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서울의 형에게 가져다주라고 싸주신 마른 가자미 40마리와 옛 한덩이를 배낭에 걸어지고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철원, 금화지구의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남하했다. 일행은 60세를 갓 넘긴 고모부와 15~16세의 여성 2명 총 5명이었다. 안내원은 월남하는 사람들을 38선 이남으로 안내해주고 그 안내비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당시는 북한 당국의 감시가 심하여 월남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다.

함흥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서 철원 행으로 갈아탔다. 철원역은 감시가 심하다 하여 한 정거장 전인 평강역에서 내려 철원 까지 걸어갔고, 거기에서 다시 김화로 가는 전철을 타고 한 시간을 달려 김화역에 도착

했다. 김화에서부터는 산악지대를 걸어서 남한으로 들어가야 했다. 새벽 4시에 김화 여인숙을 나선 일행은 하루종일 걸어서 해질 무렵에야 어느 외진 서당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해질녘에는 남한의 포천 어디에 도달하는 여정이 있다. 원래 이 길은 북한에서 소를 몰고 와 남한에서 팔면 3배의 이득을 보는 소장사들의 밀거래 루트였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소똥을 보고 남하하는 산길이었다.

새벽 5시에 여인숙을 출발하여 2시간 쯤 걷다가 고모부가 도저히 더 못 걷겠다며 포기하는 바람에 작별을 고해야 했다. 다시 4시간쯤 걸었을 때 이번에는 갑자기 내게 탈진 상태가 덮쳐왔다. 시야가 노랗게 변하며 그대로 텔썩 주저앉고 말았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며칠 째 강행군을 계속해 온 내 체력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 안내원은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그냥 행군을 계속하겠다고 독촉했다. 갑자기 어머님이 싸주신 옛 생각이 나서 배낭에서 꺼내어 돌로 깬 다음 한쪽을 입에 넣으니, 금새 혈기가 돌고 기운이 차려졌다. 행군을 이어가는데,

눈이 쏟아지더니 사방이 금방 눈으로 덮혀 중간에 길을 잊고 헤매다가 날이 저물었다. 강추위 속에 안내원이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 겨우 불을 지피고 나서야 모닥불 옆에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어 살펴보니 우리의 발자국들이 눈 위에 얼은 상태로 드러났다. 그를 따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 잊었던 길을 되찾았고, 소똥도 다시 보였다. 서당으로 다시 들어가 여장을 풀고 3일 간 쉬면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남하를 시작하여 해질 무렵에 포천 북쪽의 산속 숯 굽는 마을에 도착했다. 드디어 남한에 다다른 것이다. 안내원은 이곳에서 작별을 고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읍의 경찰지서에 들어가 월남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단순 월남자라는 증명서를 내주었다. 길을 계속 걷다가 트럭을 만나 몰래 뒤에 매달렸는데 조수에게 들켜서 난감했을 때, 마음씨 좋은 운전수가 그래가지고서야 언제 서울에 도착하겠냐면서 차에 올라타라고 하여 천만 다행으로 트럭을 타고 서울 돈암동까지 오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북아현동의 고모님 댁에서 3개월을 지낸 적이 있어서 서울 지리는 어느 정도 익숙했다. 종로에서 전차를 타고 서대문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천우신조로 연세대에서 수학 중이던 친형(이배석 의무감 예편)과 마주쳤다. 집을 떠난 지 1주일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형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

이듬해인 1949년 3월 공군 병과3기생으

로 입대했다가, 6월에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했다. 1년 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토요일에 외출 나온 나는 일요일 11시경 서대문 로터리에 붙어있는 “북괴군이 38선을 넘어 침공했으니 모든 군인들은 즉각 귀대하라”는 공고문을 보았고 지나가는 군용 짚차에서 확성기로 “모든 군인은 즉각 원대복귀하라!”는 확성기 소리를 듣고 노량진을 거쳐 김포가도를 달려 김포공항 맞은 편의 공군사관학교로 복귀했다.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김포비행장의 기지사령부로 가서 항공기연료 드럼통을 소개시키는 일이었다. 작업 후 귀대하던 중 적기의 기총공격이 있었는데, 모두들 보리밭 속으로 대피하였다. 저녁 식사 도중에도 기총공격을 받아 모두들 식탁 밑으로 피했다. 전쟁이 실감나게 느껴졌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26일 오전, 말로만 듣던 제트전투기 F-80의 초계비행을 목격했다. 김포에서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던 C-54 항공기가 이륙하여 한강상공으로 선회하는데 적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나 공격강하 태세를 취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미군 제트기가 순식간에 적기를 격추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적기를 보고 동료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27일 오전에 또 기총소리가 가깝게 들려 밖으로 뛰어 나가보니, 적기가 400미터 상공에서 미 제트기의 공격을 받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배면비행상태로 추락하다가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탈출하는데 지장



의 아군 총탄을 맞고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적기는 학교에서 700미터 떨어진 논두렁에 쳐박혔는데, 수거하여 교육용으로라도 사용하자고 했으나 장비도 기술도 없는 상태여서 그냥 방치되었다. 적기는 주로 IL-10 또는 YAK-9이었는데, Mi F-80에 의해 여지없이 격추되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나는 전투조종사에 대한 강렬한 매혹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연세대 의과에 재학 중이던 형님은 통역요원으로 미 제10군단을 따라 북진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때 함통에 있던 우리 가족 모두를 흥남 부두에서 미군함정을 타고 거제도로 월남하게 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거제도에서 상봉했다. 학업을 마친 형님은 공군군의관으로 근무하였고 공군병원장으로 전역하였으며, 한때 우리는 6형제가 모두 공군에서 복무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1951년 7월 공군소위로 임관한 제1기사관 비행훈련 A반원 13명은 사천에서 약 1년간의 조종훈련을 마치고 52년 11월 C-47 수송기로 강릉비행장에 배치되어 전투임무에 투입되었다. 12월 14일 나는 첫 출격을 하게 되었는데, 4개 편대 16대의 항공기로 적의 보급기지와 적 사단본부를 공격하는 임무였다. 출격전 브리핑이 있었고, 편대장은 내게 편대장기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다니는 것이 표적에 대한 공격보다도 우선

임을 강조하며 격려해 주었다. 낙하산, 해상구명대, 권총 등의 장구를 갖추고 트럭에 분승하여 P-51 무스탕 전투기로 갔다. 흑속에서 정비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항공기에는 500파운드 폭탄 2발과 2.75인치 로켓 2발, 그리고 Cal 50 기총 6문과 총탄 1,800발이 장착되어 있었다.



사전 약속동작에 따른 수신호대로 시동을 걸고 PSP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여 기지상공을 선회하면서 대형을 갖춘 편대군은 목표지점으로 날아갔다. 철원 상공에서 적의 고사

포탄이 좌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터졌지만 항공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우리는 고사포탄을 좌우로 피하면서 계속 비행하여 목표상공에 도착했다. 제1편대의 1, 2, 3, 4번 기들이 종대대형으로 폭탄공격에 이은 로켓공격, 그리고 기총공격으로 적을 박살냈다. 제2, 제3편대에 이어, 나는 제4편대 2번 기여서 정신없이 편대장을 따라 적진을 공격하고 무사히 빠져나와 아군지역으로 진입하니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이제 무사히 착륙만 하면 첫 전투출격 임무는 완수였다. 마침내 착륙하여 항공기 엔진을 끄고 나니 비로소 안도와 함께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강릉시내에 나가 소주잔을 부딪치며 첫 출격의 성공을 축하했다.

3개월 후에 동기생 비행훈련 B반 12명이 훈련을 마치고 강릉기지로 배속되어 왔다. 1952년 3월 6일 임택순중위와 한 편대를 이루어 출격했는데, 임중위는 2번기, 나는 3번기였다. 당시 난 36회째 전투출격이었고, 임중위는 15회째 출격이었는데, 표적에 대한 임중위의 공격이 끝나고 내 차례가 되어 공격태세로 진입하는데, 날개 끝에 표적을 두고 2~3초 후 공격하기 위해 90도 각도로 급강하할 때 500미터 지점에서 폭발에 이은 큰 화염을 목격했다. 적의 탄약고가 피폭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표적을 계속 공격했다. 로켓공격에 이어 기총공격까지 마치고 귀환을 위해 대형을 갖추면서 체크하는데 2번기가 안보였다. 편대장의 무전 호출에도 무응답이었다. 불길한 생각이 스치며 혹시 아까 그 화염과 함께 적 대공포에 희생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덮쳐왔다. 편대장기와 함께 공격지점으로 가보니 산산조각난 항공기의 잔해와 태극기가 그려진 동체가 아직도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다. 순간 심장은 격하게 고동쳤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임중위는 폭탄공격 진입시 적의 대공포에 피탄되어 장렬히 전사한 것이다. 기지로 복귀하여 단출한 그의 유물을 정리할 때의 비통함과 애절함은 말로 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되면서 전투가 중지되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적아간의 격렬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90회째 출격은 적 지상군집결소와 351 고지의 적에 대한 공격임무

였다.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25분 후에 목표지점에 도착했다. 아군에 의해 경계선을 표시한 오렌지색 깃발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T-6 모스키토의 유도에 따라 적의 사단본부와 병커에 대하여 폭탄, 로켓, 기총공격을 감행하고 무사히 귀환했다. 착륙 직후 주스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또다시 출격명령이 떨어졌다. 적군 병커와 포대에 대한 공격임무였다. 포대공격은 대공포화가 심해 위험했지만, 임택순 전우의 희생에 대한 복수라는 신념으로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무사히 귀환하여 점심을 먹는데, 또 출격임무를 받았다.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모든 폭탄을 적진에 다 퍼붓자는 구호를 외치며 출격하여 적의 포대와 병력집결소 등을 무차별 초토화시켰다. 무사히 귀환하니 정비사들이 라인에 나와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비행모자에 92번째의 표식을 짓는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흐뭇함이 절로 배어나왔다. 그 모자는 미 공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록 100회 출격에는 못 미쳤지만 92회의 전투출격은 내 스스로도 무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한 쏘티의 출격을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 그날의 기상관측 보고로부터, 통신, 정비, 관제, 군수, 행정 등등의 숱한 노력의 결과로 한 쏘티의 전투출격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노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전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동안 혹한과 폭염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비행단 전우 모두가 기필코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희생정신으로 불철주야 헌신한 결과였다.



적의 대공포화를 맞고 장렬하게 적진으로 자폭하여 산화한 전우, 중무장으로 이륙하다가 항공기 고장으로 동해상에 추락한 전우, 훈련 도중 비행사고로 순직한 전우, 출격 전투 중 적단에 피탄되어 간이 비상활주로에 비상착륙 중 전복된 항공기에 거꾸로 매달린 채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립니다!”라고 절규하던 전우들의 그 무한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풍전등화의 전란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지난날의 전쟁과 전투상황을 회고하노라면 먼저 자신 전우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다함없는 감사와 빛진 마음, 또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위험상황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52년 12월 첫 출격부터 92회까지의 출격일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심으로 썼다. 일지에는 공격목표, 주변지형 그림, 대공포 위치, 비행루트, 비행시간, 특이사항 등에 이어 끝부분은 다음 출격을 위한 다짐으로 정리되어 있다. 1~43회와 44~92회까

지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6·25를 기해 대한민국 역사자료로 지정되었고,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항공박물관에는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출격할 때마다 모자의 채양에 // 표식을 했는데, 이 모자도 전쟁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쟁을 겪고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국군장병들과 유엔참전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싱턴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거지 얹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벽 글씨가 새겨져 있다. 바로 오늘의 한국을 일컬음이 아니겠는가. 역사를 망각하는 나라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이제 90을 넘어 후진들에게 다시금 그쳐질하고 생생했던 전투체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축복이며 감사한 일이다. ♣



김동호(2기)

## 6·25 남침전쟁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 전쟁 종료 1주일 전인 1945년 8월 7일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저항력을 상실한 채 수세에 몰린 일본 관동군을 무찌르고 파죽지세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측 전쟁지휘부에서는 소련의 급속한 남하를 저지하고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38도선을 잠정적 분계선으로 설정하여 소련군으로 하여금 38선 북쪽에서의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소련군의 38선 이북 지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한국은 세계사적인 면에서 그리 흔치 않은 단일 혈통민족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와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였으나, 19세기 말 동진하는 서구 문명의 조류에 역행하여 주변 열강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급기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약 40년간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중국대륙의 공산화 이후 소련의 공산 종

주권이 확립되었으며 이후 세계는 사회주의 공산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극단적 경쟁체제인 ‘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38선은 우리 민족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전쟁 종료의 정리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써 우리 민족이 견디기는 힘든 고통이었고 또 하나의 전쟁을 내포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로 무책임하고 어이 없는 강대국들의 횡포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Declaration)은 태평양방어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다는 선언이었으며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해당지역에서의 소련·중공의 남진정책에 힘의 공백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 김일성 북한 공산집단으로서 소련·중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남침전쟁을 감행했던 것이다.

1949년 한국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공군력은 중등급 훈련기 10대



와 초등 훈련기 12대 등 도합 22대뿐이었으며, 병력도 1,600여 명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 공군은 김일성의 인민군대가 탱크를 앞세워 남진해오는 작전도로 상공에서 15~25파운드 폭탄을 2~4개씩 후방석 승무원이 손으로 투하하는,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원시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수준이었다. 김일성의 남침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한 시기에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50년 4월 필리핀의 UN대사를 역임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카를로스 로му로(Carlos Romulo)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The US withdrawal from South Korea was like a decisive action for the North Korea to invade the South. Before long, communists will invade some place and that place will be in the Korean Peninsula."*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한국군의 고위지휘부는 전날 저녁 늦게 까지 이어진 육군회관 오픈기념 행사로 인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많은 병사들은 농번기에 특별휴가를 받아 병영을 떠났거나 잔여 병력도 휴일의 느슨함으로 인하여 병영은 비어 있다시피 했다.

이날 새벽 04:00 시에 북한 인민군은 38선 전 전선에서 일시에 대거 남침을 감행

했다. 북한 공군은 06:00 시경 최초로 김포 기지에 날아와 기총소사로 공격하고 북으로 철수해갔지만 소수의 일직 장병들조차도 그 항공기가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북한 YAK-9 폭격기인데도… 한국의 신생정부는 물론 군대조차도 특히 공군의 입장은 전쟁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침공해 온 적 전투기조차도 우방국가의 항공기인가 할 정도로 임전태세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개전 다음날인 26일 적들은 다수의 편대로 김포 기지와 여의도 기지 등에 여러 차례 폭격을 시도했으나, 미국인 철수 수송기 엄호차 출동한 미 공군전투기에 의해 적수가 되지 못하고 격추되거나 도주하고 말았다. 개전 초 210여 대의 전폭기와 10여 개소의 출동 작전기지를 보유한 북한 공군이었지만 미공군의 신속한 대응과 그 후 UN 공군의 합세로 북한 공군은 상대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체 전선은 아군의 강력한 제공권 하에서 공중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북한 공군은 초기에 보유한 전폭기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조종사들의 기량부족과 수적 열세 때문이었다. 수개월 후 MiG-Alley의 제한공역에서 본격적인 공중전을 전개하게 되었을 때의 공산측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다수 참전하여 출동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1950년 9월 중순 한반도의 남측 최후 보루전선인 낙동강 전선(다부동전투) 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감행으로 공산 침략군의 전선들이 돌파되고, 이후 파죽지세로 궤멸되어 북으로 격퇴된 데에는 미 공군과 UN 및 한국 공군 그리고 미 태평양함대의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이 헌신적이고도 치밀한 제공작전과 후방차단, 그리고 공지합동작전인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을 기민하게 수행한 덕분이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뒤이은 평양대폭격작전은 세계전사에 길이 빛나는 2대 대성공작전으로 기록되었다. 이 작전에 참전하여 출격한 항공력은 미 공군과 한국 공군 그리고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공군과 항모에서 출격한 미 해군 및 해병 항공력 등이었으며, B-29를 포함하여 이들의 일부는 해외기지인 Okinawa, Philippines, Guam 등지에서 출격했다. 일일 출격회수가 많을 때는 1,000 쏘티나 되며 공군력이 전 전선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히 컸다.

이들 출동 공군전폭기들은 적의 병력 집결지, 군수물자 저장소, 지휘, 통신소, 철도, 물자보급소, 교량, 군사도로 등을 폭파하고 절단시켰으며, 각급 제대 지상군의 진격과 교착작전지역에 근접지원 등 공지합동작전을 감행했다.

1950년 10월 1일 UN군 기치 하의 아군이 38선 전선을 일제히 돌파하고 10월 20일에 한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제일 선두로 적의 수도 평양을 점령하고, 이어서 미 1기병사단과 UN군이 속속 입성했다. 명실공히 북한군은 궤멸되어 지휘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이 기회에 조국의 통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950년 10월 UN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하자 중공은 과거 국민군(장개석군)으로 편성된 정규군 30만, 연병력 100만 명을 은밀히 투입,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격하여 6·25 전쟁의 주력군으로 개입했다. 실제로 UN군 및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쟁으로 양상이 돌변한 것이다. 중공군의 독특한 인해전술과 계릴라전법은 주로 야간과 산악진격 작전으로 소위 전형적인 모택동 전법을 구사함으로써 공군력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유엔군의 공중우세로 북한지역의 비행장들이 위험해지자 만주에서 출격할 수밖에 없었던 공산군 공군력을 공중에서 차단, 격퇴한 것이 MiG-Alley 공역에서의 공중전이다. 우리 공군은 MiG-Alley에서 F-86/Saber로 소련제 MiG-15와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는데, 이는 근세 및 현대공중전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항공드라마(Air Drama)였다.

1950년 11월 한중 국경까지 진격했던 UN군은 중공군의 불법 월경 반격으로 전선이 차단되고 각급 제대간의 작전체계가 붕괴되어 UN지상군 전체가 분단, 고립, 패

퇴를 거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홍남 대 철수를 포함하여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여지없이 후퇴해야 했다.

중공군의 개입을 확인한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전 전선에서의 패퇴를 방지하고 6·25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하여 만주에 대한 전략폭격을 건의했지만, 미국 지도부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아더장군의 만주폭격이 감행되었더라면 38선이 없어지고, UN에서 결의한 불법 무력침공 세력(북한, 중공)을 응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 민국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 것이 실로 통탄할 일이다. 이후의 전선은 정전협정이 합의될 때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김일성에 의한 6·25 남침전쟁은 3년여의 긴 교전을 뒤로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3년도 채 안되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당시 남북한 합쳐서 대략 3,000만 명의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아축 피해를 보면, 사망, 부상, 실종, 포로를 합쳐 총 77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공산측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3만 명 이상이 사망·부상·실종되었다. 물적 피해 또한 엄청나서 수많은 가옥과 건물,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들이 대부분 초토화 되었다.

이 같은 전쟁 피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전쟁의 발단과 그 엄청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인적·물적·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전쟁범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북한군에 의한 불법 남침의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북측의 사죄와 반성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 조치도 없이 그저 허구적인 평화통일이란 장밋빛 미래만을 기대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 발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북한 당국의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야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 6.25



김국창(7기)

##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나이가 80대 중반을 넘다 보니 가끔 내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동기생의 떠남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겨지기도 하여 마땅히 빈소를 찾아가 문상을 하고 영별을 해야 함에도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여 선뜻 나서기가 주저될 때도 있다.



룩대며 도망쳐 버리는 신세가 된다.

아무런 욕망도 기대도 없이 병고와 고독, 권태 속에 지쳐버린 삶을 무의미하게 연명해 갈 뿐이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뿐인데 ‘죽지 못하게 된 숙명’ 때문에 죽지도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의 연속이겠는가!

반면에 앙드레 모로 아는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호기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라 했다. 지은 짓값의 경·중에 따라 천당 또는 지옥으로 가는 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저승에 가면 이승의 일은 완전하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강’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건지, 아니면 스리랑카 전설처럼 ‘저승’에 가면 회전목마를 타고 돌면서 ‘이승’에서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 옛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임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호기심 많은 사람은 묘한 기대감으로 설렌 나머지 죽음을 동경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호주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데이비드 구들 박사는 102세까지 연구와 논문을 쓸 정도로 건강했으나 별다른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3세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기력과 정신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104세가 되자 과학자의 역할은커녕 더 자력으로 살아가기조차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남



들에게 신세 지며 구차하게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국의 ‘안락사금지법’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하직할 방법이 없음을 괴로워했던 그는 사랑하는 조국 호주에서 영면하기를 포기하고 결국 비용을 들여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떠나야만 했다. 드디어 그는 스위스 의사가 처방한 치사 약병에 주사기를 끊고 스스로 벨브를 열었다.



주사약이 몸에 스며드는 동안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을 들으며 서서히 잠들도록 편안하게 미소 지은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아름다운 마무리’였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 죽음이 무섭고 서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 사람들이나 글도 적지 않으니 죽음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여 두려워하거나 비탄에 빠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중국 송나라 학자 주신중(朱新仲)은 사람이 바람직하게 세상을 살다가 아름답게 떠나는 방편으로 인생 오계설(五計說 : 生計, 身計, 家計, 老計, 死計)을 설파(說破)한 바 있는데 그중 인간의 최대 관심사라 할 사계(死計)에 대하여만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사계(死計)에서는 인간이 운명(殞命)에 앞서가게 되는 여러 가지 미련(未練)이나 두려움 등을 한(恨)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 한을 완전하게 해소함으로써 인간이 편안하게 종말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심각한 이 한(恨)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 이 한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고 닥쳐오는 종말(終末) 앞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한(恨)의 정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한(恨)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쉽게 표현하면 대체로 종말 앞에 ‘억울함, 아쉬움, 아까움, 안타까움’ 등 네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고 이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다섯 가지 한(恨)을 완전히 없애든가 아니면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계(死計)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사계(死計)의 사안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억울함 :** 어차피 불로장생을 위해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뜻을 이루지 못했고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종연(終焉)을 억울해하기보다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고 노년(老年)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둘째 아쉬움 :** 회자정리(會者定離)인 것을 어찌하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랫말처럼 평소에 가족, 친지, 지인 등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 나눔과 배움 등 선행을 몸소 실천하고 세상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여 어떤 아쉬움도 남기지 말아야겠다.

**셋째 아까움 :** 공수래, 공수거가 인생이거늘 가진 것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떠나면 자칫 부모 빈소에서 자손들이 재산 다툼할 우려가 없지도 않으니 평소 가족들은 물론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 가진 것들을 줄이면 아까움도 소멸하고 떠나는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넷째 안타까움 :** 인생은 유한한데 어찌 계획했던 일, 마음먹은 일들을 다 이루고 떠날 수 있으랴! 나이가 들면 하던 일들을 미리미리 정리하여 자식이든 사회든 넘겨주어 종결짓지 못하고 떠나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다섯째 두려움 :** 성자(聖者)가 아닌 사람이 죄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한 일이기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죄를 깊이 반성하며 선행, 봉사, 자선 행위 등 적선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과연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위의 ‘억울함, 아쉬움, 아까움, 안타까움’ 등 네 가지 한(恨)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 해도 마지막 ‘죄로 인한 두려움’ 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로서 이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때 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종교’, 즉 신(神)에의 귀의(歸依)이다.

결론적으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감히 권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를 가지시라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돈도 자식도 아닌 오직 [종교]뿐이다. 자기가 선호하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죄 문제는 물론 생로병사와 사후의 문제’까지도 뚱뚱 자기가 믿는 신(神)에게 맡기면 미련이나 두려움도 없어지고 노년 생활이 안정되며 자기의 종말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사계(死計)가 또 어디 있겠는가! ➔

# 모교(空土)예찬



최규창(7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굴러가는 가랑잎처럼  
삶에 지친 영혼  
자꾸만 쓰다듬어 주며  
동강난 삶의 토막들을  
이어주고 밟쳐주던 그대여  
당신은  
나의 포근한 안식처였었지

담장을 날아가는  
이름 모를 새들과  
우렁찬 폭음으로 하늘을 가르며  
멀리 사라져 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토했을 때엔  
어느덧 가까이 다가와  
저 산위의 푸른소나무 같이  
굳세게 살아가라며 금빛같은 언어를 뿌려주고  
삶의 의미와 예지를 심어 주던 그대여  
당신은  
나의 근엄하신 아버지였었지

구슬땀을 흘리던 더위도  
목소리마저 얼어붙던 추위도  
몸으로 마음으로 막아주고  
아플 때엔 아린 상처 할아주며

뜨겁게 뜨겁게 위로해 주던 그대여  
당신은  
나의 인자하신 어머니였었지

아가페의 화신처럼  
덕목의 온상처럼  
언제나 주기만 하던 그 사랑  
언제나 베풀기만 하던 그 은덕  
내 일생 다 가도록 갚을 길 없어

찬란한 이 아침  
참회의 눈물을 모아  
애절한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내 사모하는 모교여!  
내 여로의 등대불이여! ➔





# 취미생활, 게이트 볼(Gate ball)



백승웅(10기)

취미란 자유 시간을 흥미롭고 알차게 보내는 활동으로서 생활인들에게 고립과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통하는 보람된 인생, 바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금년 2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전염된 COVID-19는 광범위하게 번져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공공장소기가 잠정 통제됨으로서 일반 활동에서 불편함을 감수해 가는 중이다. 마침 마을 공원에 조성된 게이트볼 운동장을 쉽게 찾아서 게이트볼 경기를 통하여 즐거움과 묘미를 맛볼 수 있었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경기를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소로서 중·장년기 이후 건강관리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취미생활의 영역을

넓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게이트볼의 기원은 1300년경 남부 프랑스 농부들의 놀이에서 시작되었으며 17세기에 들어와서 이태리와 스코틀랜드에서 전파된 후 영국에서 크로켓(Croquet)란 명칭으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일본이 초기에 받아들인 것은 1947년 2차 대전 후 지금과는 다소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1953년 훗카이도 지방에서 성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59년 서울 진명여고에서 교사들에 의해 게이트볼이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65년에 일본 페크리에이션 대회에서 소개된 이후 1970년 초부터 본격적인 스포츠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육계의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1980년대 들어서 일본에 게이트볼 열기가 일어났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동호인들의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전국 게이트볼 협회

가 출범,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1995년 대한 게이트볼 연맹이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1998년 청소년 대회 창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된 후 현재 인기 종목으로서 동호인이 백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게이트볼 경기에는 총 10명(홍·백팀 각 5명)이 참가한다. 경기 도구로서는 볼 10개(홍색 5, 백색 5)와 볼을 치는 막대기(Stick)와 득점 기 각 1개씩이면 족하다. 경기 방법은 각 개인이 경기장(크기: 가로 20m×세로 15m)에 설치된 3개의 게이트(높이 22cm)를 통과한 후에 최종으로 중앙에 세워둔 Pole(높이 20cm×직경 2cm)에 맞추는 경기이다. 점수배정은 한 사람이 Ball(크기 7.5cm) 1개씩을 T자형 스틱(길이 55cm 이상)으로 Touch하여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1점을 얻게 되며 3개의 게이트를 모두 Pass 하면 3점을, 마지막으로 경기장 중앙에 세워둔 Pole에 닿으면 2점을 추가해서 총 5점을 얻게 된다. 5명으로 구성된 한 팀의 총득점은 최고 25(5\*5)점이 된다. 경기 시간은 3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백팀별 각 개인의 득점을 합산하여 팀의 총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개인의 반복연습이 중요하다. 경기 규칙을 숙지하여 공을 치는 방법과 각 게이트를 통과하는 기량을 숙달해가는 것이다. 상대방의 볼(홍, 백색)을 식별한 후, 원근에 따라

서 맞추는 방법과 가까이에 접근시켜 상대편을 견제하고 자기편의 득점을 위해 상부상조해가는 절묘한 경기진행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도록 흥미를 유발시켜준다.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으로 득점해 가기 위해서 평소 즐겨 왔던 운동들과 비교하여 기교와 묘미들을 연관시켜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골프경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퍼팅 기술과 유사함을 밝히고 싶다. 게이트볼에서 첫 Gate(4m)를 통과한 후, 둘째 셋째 Gate를 통과(평균 10m 거리 이내에서 Stick으로 Ball을 타격)시켜야 함이 중요하다. 마치 골프 경기 중 Green에서 퍼팅 과정을 연상해 보면 된다. Golf Ball(크기 4.3cm)을 퍼팅하여 Hole cup(크기 10.8cm)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 방향·거리측정 그리고 타격감과 몸의 자세 경기장 상태(Green의 저항과 경사정도 읽기)등에 대한 판단과 감각들을 익숙해가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다.

다음은 당구경기에서 공의 빗겨 치기가 득점력과 직결되는 것처럼 게이트볼 경기에서도 빗겨 치기는 경기 중 공방에서 최대의 기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보단계를 지난 후 경기력이 향상되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과히 절묘한 기량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기쁨을 주었던 컬링 경기



의 기술과 유사점을 강조하고 싶다. 득점 기준이 원으로 구성된 하우스의 가장 안쪽(버튼)에 각 팀의 Stone을 위치시키는 결과(팀의 총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게이트볼에서도 득점을 위하여 자기의 볼을 적아 Ball의 가까운 위치에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기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로 게이트볼에서만 맛볼 수 있는 Spark 타격법과 경기 중 적아 득점에 필요한 팀워크와 공격과 방어술은 별도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모든 단체경기가 그러하듯 자기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매 경기마다 집중과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규칙준수와 바른 예의는 더욱 중요하다.

한 게임당 30분씩 걸으면서 공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고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면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함은 물론 구부린

참고, <http://www.youtube.com> : Gateball, <http://www.gateball.or.kr>  
전국적으로 등 주민센터 주변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설치되고 있음.



자세로 하는 스윙동작으로 허리 복부근육을 강화시켜 준다. 매 경기마다 공격 방어 전술은 상황 판단과 분별력 그리고 집중력이 요구됨으로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경기를 통하여 많은 대화 소통으로 동료 이웃들과 함께 오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함으로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노년기에 찾아오는 무료함과 우울증도 달랠 수 있다.

100세 시대에 은퇴 후 30~40년이야말로 생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쉼을 통해 여유로움을 갖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시간으로 자칫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에, 심신의 건강과 취미와 여유시간을 위해 게이트볼이야말로 추천하고 싶은 생활운동이다. 특히 부부·자녀들 그리고 한 마을 이웃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동화되어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제안해 본다. ↗

## 동기생



최성열(15기)

우리는 공군사관학교 15기생이다. 동기생은 비록 전역한 날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친구들이다. 사관학교에서는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시한다. 아마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나 싶다. 기합을 받아도 동기생이라 같이 받고 칭찬을 들어도 동기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듣곤 했다. 선착순 구보를 해도 선두로 들어오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곤 했는데 동기생 모두 낙오 없이 함께 들어오길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동기생 중의 하나였고 동기생은 또 다른 나였다. 학교 졸업 후에도 각 기지에 배속되어 군 관사에서 같이 살기에 가족들도 형제자매 이상으로 가깝고 속속들이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전역 이후에는 현역 시절처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매달 오찬이나 운동을 하면서 어울리곤 한다.

무술년 마지막 12월 송년 겸 오찬모임을 가졌다. 참석 예상인원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예상보다 적게 모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이면 흥허물 없는 말들이 걸쭉하게 오고 간다. 지난 얘기 지금 얘기. 모두들 마음은 메추리 기본군사훈련 받던 그 시절의 그 기분이다. 막걸리 한 사발씩 들이켜고 묵은지에 수육과 특 쏘는 홍어 한 점 올리고 한 입 크게 벌리고 털어 넣는다. 삼합에 목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웃음소리는 더 높아진다. 오가는 홍탕과 파전에 실려 무술년은 벌써 저만치 갔다. 그런데 순두부, 청국장이 또 따라 나온다. 모두들 거나하고 배들은 찼는데 식탁에는 아직도 음식이 한 가득이다.



세월 탓인가 술도 음식도 양이 많이 줄었다. 수육 남은걸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 개나 갖다줄까?” 여기저기서 아까운데 잘 되었다며 음식 접시들을 밀어 준다. “아줌



마, 이것 좀 싸줘요.” 한 친구가 소리친다. “혹시 개 싸다 준다고 하고 니가 먹을라고 하는 거 아냐?”, “아파, 귀신같이 아네, 마누라가 저녁 안 해도 되니까 기분 째지게 생겼다.” 웃자하게 웃음이 터진다. “야, 요새 개도 막걸리 먹어”, “소주도 먹을 걸” 통째로 남은 소주·막걸리 병 들도 쏟아진다. 그러다 보니 쇼핑백으로 한 가득. 무게가 보통이 아니다.

내가 지팡이 짚은 걸 보고 오상이가 지하철까지 들어주겠다고 했다. 친구들은 계단으로 앞서 가고 나는 뒤쫓아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리자마자 열차가 도착해 타고 보니 일행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전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구, 개밥 날라가게 생겼네’ 이 때 휴대폰이 빠리릭. 신분당선에서 다시 만나 개밥을 찾는 감격도 호들갑을 떨며 연출한다.

판교에서 내리는 호재는 경강선 플랫폼까지 개밥을 들어 주고 드문드문 있는 배차 간격 지루하지 않게 말동무까지 해주고 간다. 모두들 말들은 하지 않지만 오래된 우리 사이에 자연스레 우러나는 마음 씀씀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배가 더 불러진다. 이렇게 해서 교대 앞에서 이천까지 도기백doggie bag의 긴 공수작전이 끝났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하늘이를 보며 개밥 보따리를 풀었다. 파전도 홍어도 수육도 골고루 담겼는데 하늘이가 수육은 잘 먹겠지만 파전은 먹을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푸성귀까지 곁들여서 쌌으니 개밥인지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리송해진다. 에라, 개밥이면 어떻고 내가 먹으면 어떠랴? 우리 하늘이하고 막걸리 한잔 따라 놓고 동기생들 따뜻한 마음 비벼서 같이 먹으면 그게 사는 맛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듈다.

### 동기생!

지난 세월 살면서 때로는 의지가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아웅다웅하며 불편한 마음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동기생이라는 게 어디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숙명같이 인생 항로를 함께 헤쳐 온 동반자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다 보니 개밥에 철학이 묻어났다. 그러면 이런 건 무슨 철학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 맞다. 개밥철학이다. 개똥철학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어쨌든 다음에 만나면 하늘이 죬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먹었다고 해야 될까? 또 한바탕 웃을 일만 남았다. ♪



김익래(16기)

## 타이베이, 감동의 세레나데

### 타이베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도시 이름이다. 그곳이 어떤 특별한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지는 않을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서린 곳이다. 타이베이에서 보낸 30대 짚은 시절의 한가운데 토막은 내 인생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안겨준 유일한 힐링의 일 년으로, 그리고 이후 나의 삶의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친 기간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본다. 감동적인 날들이 줄줄이 엮여 나온다.

### 타이베이 행 가족티켓

1981년 자유중국 공군과 교환교육의 일환으로 타이베이 국방대학원(당시 3군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가 있었다. 수학기간에는 가급적 가족이 함께해야 하고 생활비용 일부도 지급해주는 좀 특이한 과정이었다. 당시 군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에 나가 거주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당시 자유중국정부와 우리 정부는 돈독한 국교관계를 유지하며 맹방으로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베풀고 있을 때였다. 바로 그 시기에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갔다. 아주 좋은 주변 환경 속에서…

### 중정공항에서 만난 두 사람

내가 타이베이 중정공항에 내렸을 때는 비가 양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이 악천후에 그래도 나 혼자 선발대로 먼저 온 것이 다행이었다. 갓 배운 서툰 중국어에다 이 빗속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마침 근처에 있던 한 짚은이가 다가와 “무얼 도와드릴게 없는지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로 내 처지를 알게 된 그는 내 짐 가방을 챙겨 시내행 리무진까지 안내하여 짐을 실어준 후 기사에게 나를 소개해 주고 나서야 안심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그가 바로 첫 번째 만난 중국인이었다.



리무진에 탑승하자 그 기사는 기사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의 양해를 받아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속을 뚫고 한 시간여 만에 터미널에 도착한 리무진,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런저런 걱정에 내리길 망설이고 있을 때 그 기사가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으란다. 손님이 다 내리자 나 홀로 태운 그 버스는 잠시 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국방대학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가 먼저 내려 정문초소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프차 한 대가 빗속에 나타났다. 그 지프차에 짐을 옮겨 실어준 뒤에야 그 기사는 버스와 함께 빗속으로 멀어졌다. 그가 두 번째 만난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내가 중국 땅에 도착하여 처음 조우한 두 명의 중국인은 나의 향후 타이베이 생활에서 외국이라는 낯설음을 완전히 씻어주기에 충분한 첫 인상들이었다.

### 대 저택에 짐을 풀다

주택문화가 우리와 다른 대만에서 쾌적한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에서 생활하는 입식문화인지라 벽이나 방바닥이 페인트나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어 낯설고 놋눅 칙칙하여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벌써 2주간 매일 지프차로 주택단지를 누비고 있는 두 분 대령 보도관에게 미안해서라도 대충 정하고 싶었지만 생후 3개월 된 막내아이를 안고 올 아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붕붕거리며 다닌 동료가 느닷없이 뒷자리에 타란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고급 빌라촌이었다. 한 저택으로 나를 안내한 그는 열쇠를 건네며 일 년간 이곳에서 지내란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누나 집인데 집 잘 지켜 달란다. 거실장에 가득 찬 고급술도 얘기요람도…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고 사용하란다. 놀랍다. 행운일까 아니면 통 큰 녀석일까. 3일 후 막내를 안고 온 아내와 우리가 죽은 그 쾌적한 저택에 짐을 풀었다.

### 그것은 꼴불견이 아니라 선입견이었다

어느 날 중국 지인의 가족 결혼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10여 명이 앉는 중국식 원탁 테이블에 좀 부유해 보이는 노부부와 신혼으로 보이는 그들의 아들 부부와 함께 자리했다. 잠시 후 나와 아내는 앞좌석 가족들로부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20대의 젊은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들자 옆 좌석 시아버지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준다.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찌 이런 꼴불견이!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그 가족의 모습은 다정다감하고 예절 바르고 서로를 배려해 주고 정말 이상적인 가족모습 그것이었다. 조금 전 그 장면은 정말로 꼴불견이었을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선입견은 아니었을까. 우리문화의 잣대로 본 오류는 아닐까. 그들에게 담배는 그저 커피와 같은 기호품일 뿐이었으니, 지금도 그때 그 가족의 담배장면이 또렷이 떠오른다. 아주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아주 부러운 모습으로. 이런 내 생각이 이상한 건 아닐까?

### 원주민 고산족, 그들의 마음은 하얀색이었다

타이완 원주민! 그들은 대륙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까지 이 섬의 주인이었을 게다. 지금은 산속으로 밀려나 부락을 이루어 그들 고유의 생활풍속을 유지한 채 안착하고 있지만… 학교 동료 중에 원주민 고산족이 한 명 있었다. 고등학교 때 타이베이로 유학 와서 군관학교를 졸업 후 장교가 되었단다. 그가 우리 가족을 고산족 부락에 있는 부모 집으로 초대했다. 부락 입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 고유 복장을 한 10여 명의 그의 가족들이 길가에 나와 우리를 맞았다. 여자아이 둘이 다가와 아내가 안고 있던 막내아이를 받아 손님의 불편을 쟁겼다. 그들의 표정과 눈빛에서 우리나라의 맑은 영혼, 8순 할머니의 잡은 손에서 전달되는 태고의 온정, 아이들의 거무튀한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새하얀 예쁨,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길지 않은 시간, 나는 그들에게서 가식 없는 원색적 행복을 보았다. 인간성의 본질은 원래 이렇게 새하얘울까. 돌아오는 길, 영육으로 얼룩진 내 모습이 산림에 걸쳐 그림자처럼 어둡게 비쳐진다. 지금도 가끔 순진무구한 그들의 가족, 해맑음만이 넘치는 그들의 표정들이 쉽게 그을려 가는 내 마음을 씻어주곤 한다.

### 아리산, 마음을 훑힐 시켜주는 사진 한 장

나는 가끔 사진 한장을 꺼내 본다. 아리산 그 정상 표지석을 배경으로 8개월 된 막내아이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큰애와 포즈를 취한 사진이다. 그저 보기엔 한 장의 관광사진일 뿐이지만 그 사진 한컷이 찍혀지기까지의 동료들의 우정과 배려가 한 롤의 긴 필름으로 펼려나오는 사진이다. 연이어 가오슝, 타이난, 타이중 등 각 지역 가족들이 베풀어 준 친절과 감동들이 기



역의 꼬리를 잇는다. 2300여 미터의 낮지 않은 아리산, 그 산만이 품고 있는 엄청난 신비로운 경색들과 함께 그 산 높이만큼이나 가득 쌓인 타이베이 생활의 감동들, 반가운 얼굴 얼굴들이 사진 속에 함께 어우러져 점점 옹색해져가는 내 마음을 활짝 넓혀 준다.

### ROKAF 빨간 마후라의 퍼포먼스

졸업기를 앞둔 마지막 과정으로 각 세미나별 발표대회가 열렸다. 타이베이 인근 A기지에서 이륙하여 대륙의 후저우(福州) B기지를 공격하고 귀환하는 작전계획이 주제였다. 7개 세미나에서 각각 한 명씩, 그리고 외국학생인 나의 특별발표, 총 8명의 발표자가 선정되었다.

1주간의 준비기간 동안 각 세미나는 열띤 토론과 모의 연습에 들어갔다. 지도교관 한 명과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나는 곳곳에 분포된 해안포와 미사일 기지들을 회피할 침투루트 결정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스라엘 6일 전쟁이 떠오르자 주저함 없이 바로 펜을 들어 A기지와 B기지 사이에 자로 직선을 그었다. 이 하나의 직선을 따라 초저고도 고속으로 침투하고 귀환하는 것이다.

당시는 9인치 필름에 공격 루트를 그려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발표하던 때였다.

나의 발표가 끝난 후 강당 내 교장 이하 150여 명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는 준비해 온 120장의 ROKAF이 주기된 빨간 마후라를 동료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들은 나를 따라 함께 목에 둘렀다. 대강당이 빨간 물결로 휘덮인 감격의 순간이었다.

### 아내의 숨겨진 외고

내가 소속된 학원 내 교수, 참모진, 그리고 동기생 등 150여 명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아내의 초대식탁에 앉았다. 아내는 매주 수요일 20여 명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우리 집 원형식탁은 외교관의 외교테이블보다 더 끈끈하게 우리들의 신의를 맺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었다.

### 귀국길 갑사의 노래

학기가 끝날 무렵 육해공군 학원생 합동 졸업축하 연의회가 열렸다. 800여 명의 학생 및 교수가 함께한 그 무대에서 나는 노래를 불렀다. 나라가 두 동강난 슬픔을 구절구절 품고 있는 “국가”라는 노래다. 전 자유중국 국민이 애국가같이 부르는 국민노래였다. 나는 한 사람의 대만국민이 되어 그들과 동질의 슬픔, 동질의 열망으로 노래를 불렀다. 나의 그 마음은 강당 내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열화 같은 기립박수를 받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노래를 부르며 그곳의 감동들을 잊지 않고 있다. [타이베이, 감동의 세레나데]로.**

## 54년 전 미 공사 방문을 회상하며



장호근(17기)

1967년 생도 시절 미 공사와 주요 공군기지 방문 때 겪은 새로운 경험들

### 들어가는 글

모든 군인처럼 필자도 군에 있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다. 1969년에 임관하여 2002년 전역할 때까지 총히 30번 정도 된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사할 때마다 ‘영구보관’이라고 표시해 놓은 상자 몇 개는 풀지 않고 갖고만 다녔다. 이 상자는 전역하고 한두 번 또 이사할 때도 풀지 않고 보관만 해오다가 3년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야 모두 풀고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군에 있을 때 기념품과 사진들이었지만 이 중에서 눈에 크게 띈 것은 생도 3학년 시절 3주 동안 미국의 공군사관학교와 주요 공군기지를 견학할 때 노트에 쓴 누렇게 색깔이 변한 13쪽의 일기장 그리고 이때 찍은 몇 장의 개인 사진이었다.

1960년도 후반은 베트남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로, 미 공군은 베트남전쟁 참전국의 공군사관생도를 미국에 초청하여

미 공군을 홍보하고 관숙 시키는 프로그램 (orientation course) 운영하고 있었다. 1967년에는 17기와 18기에서 각각 2명이 선발되었는데 4명 중에 운이 좋게도 필자가 포함되었다. 그 당시에는 외화도 부족해 해외 여행을 제한하던 시기로 지금과 달리 대다수 국민이 외국을 다녀올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 재학 중인 생도에게는 대단한 특전이었다.

이번에 발견한 일기애 모든 일정을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 일기장을 기초로 반세기 이전 짧은 날의 기억을 돌이켜보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 사진 몇 장 이외에 미 공군에서 찍은 공식 사진이나 기록이 내게 없어 아쉽다.

이 기행문은 들어가는 글로 시작하여 여행 일정을 소개하고, 여행 중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일자 별로 정리하여 기록했다. 또한, 관련 사진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 참고 내용을 별도로 삽입했다.



기행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미리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1967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미리 알고 읽어 주셨으면 한다. 1967년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은 150불로 북한보다 적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 국적 항공사도 없고 경부고 속도로도 없던 때였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어 가난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었다. 당시 한국공군도 전투기가 북한보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 여행 일정(1967년 11월 24일(금)에서 12월 18일(토)까지 24일간)

- 11월 24일(금): NW288편(Boeing 707)으로 김포국제공항(MAC terminal)에서 워싱턴주 맥코드 공군기지(McChord AFB)를 향해 출발
- 11월 25일(토)~26일(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인근 지역 관광
- 11월 27일(월): 콜로라도주 라우리 공군기지(Lowery AFB) 방문
- 11월 28일(화)~12월 1일(금):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의 미국 공군사관학교 방문
- 12월 2일(토)~12월 5일(화): 워싱턴(Washington) D.C. 관광(주말)
  -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Annapolis) 미 해군사관학교 방문
- 12월 6일(수)~12월 8일(금):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관광
  - 락크랜드 공군기지(Lackland AFB) 방문
- 12월 9일(토)~12월 11일(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관광(주말),
  - 윌리암스 공군기지 (Williams AFB) 방문
- 12월 12일(화)~15일(금):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기지(Mach AFB) 방문, 노스럽(Northrop) 및 노스아메리칸(North American) 항공사 견학, 디즈니랜드 관광
- 12월 16일(토): LA에서 시애틀 인근의 맥코드 공군기지로 다시 이동 후, 서울을 향해 출발
- 12월 18일(월): 김포국제공항 도착 귀국



(왼쪽에서 세 번째)  
미 군사고문단의 리매스터 대위

### 새로운 경험들

#### 출국 준비

우리 일행의 출국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는 생도대 훈육관, 7기생 합종우 대위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다. 그리고 주한 미 군사고문단(JUSMAG-K)의 리매스터 대위(Cpt. Remaster)가 우리 일행의 사전 준비와 절차를 직접 챙겨 주었다. 리매스터 대위는 우리를 미 용산기지의 장교 가정 방문도 주선하는 등 미국에 대한 사전 경험

과 영어 실습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는데 이때 리매스터 대위가 만들어준 미국 표준 영문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은 생전 처음으로 신사복을 맞추었던 기억이다. 당시 생도 규정은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공식 여행을 앞두고 사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 입게 되었다. 그때 맞춰 입은 옷은 짙은 회색 바탕에 약간의 쑥색 실이 들어간 추동복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 김포국제공항 출발

우리 일행은 1967년 11월 24일(금) 오후 4시 반에 North West 288편(Boeing 707)으로 김포국제공항의 미군 공수사령부의 맥(MAC: Military Airlift Command) 터미널에서 출발했다. 목적지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미군 공수사령부 기지인 맥코드 공군기지(McChord AFB)였고, 일본 도쿄 근교의 요코다 공군기지(Yokoda AFB)를 경유했다.

1960년대 당시 국내 민간항공사도 유명 무실하던 시절에 김포국제공항의 시설은 매우 빈약했다. 해외 여행객들은 출발할 때 환송객들과 공항의 시계탑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환송객들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주기장을 떠날 때 공항 건물 2층의 “송영대(送迎臺)”에서 손을 흔들어 환송했다. 그래서 여객기를 타고 외국을, 그것도 미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 설레고 흥분되는 생애 첫 경험이었다. 그 감회를 11월 24일 출국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번 일주일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하루가 꼭 한 달씩은 되는 것 같은 느낌, 초조한 마음을 얹지도 달래봤다. – 중략-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본다는 설렘을 갖고 16:30에 이륙,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었다. 사관학교를 좌측에 두면서 하늘을 날을 때는 정말 작구나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했었다. – 중략- 15분만 있으면(일본 요코다) 착륙한다. 설렘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몹시 배가 고프다.”*



(왼쪽에서 네 번째) 합종우 훈육관



출발을 위해 항공기 트랩을 오르는 모습



우리 일행이 탄 여객기가 김포에서 이륙해 당시 대방동에 있던 우리 공군사관학교 상공을 날아갈 때 학교에 있는 동기생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동기생 중에서 나만 특혜를 받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드디어 14시간 비행 후, 14일 오전 10시쯤 맥코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오는 중에 해가 졌다가 다시 떴지만, 현지 시각으로는 아직도 14일 금요일 오전이었다. 맥코드 공군기지는 시애틀 남쪽 약 40마일에 있는 미군 공수사령부(MAC) 기지였다. 맥코드 기지의 국제선 입국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입국 공항 세관검사에서 애를 많이 먹었다. 우리는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여 덴버로 가기 위해 다시 시애틀 공항을 향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안내 차량의 엔진 고장으로 시애틀 공항에서 출발 시간도 지연되었다. 마침내 김포에서 출발한 지 약 30시간 만에 덴버 공항에 잘 도착했다. 그리고 덴버 인근 미 육군기지의 내빈숙소(guest house)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덴버 공항에 도착하여 라우리 공군기지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다. 우리는 미국 내에서 이동할 때 안내장교가 항상 동행하지 않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 후에 필요한 연락처만 갖고 있었다. 덴버 공항에서 안내장교를 기다리던 중에 사복을 입은 어느 젊은 흑인이 와서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면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나는 안내장교가 나을 거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연락하니 안내자가 차량을 갖고 이미 나갔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때 아까 왔던 젊은 흑인이 와서 자기가 안내자라고 해서 매우 미안했다. 아마도 젊은 영어 실력도 문제였겠지만 우리의 선입관이 더 문제였다. 나는 미 공군에 흑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그 후부터 나의 경험과 식견이 얼마나 깊었었나를 반성해 오고 있다. 나중에 미 공군 역사를 읽고 알았지만, 미 공군은 흑백 인종 차별 문제나 여군제도 등 양성평등 문제에서도 미국 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 덴버의 라우리 공군기지

미국에 도착한 날이 금요일이었기에 25일(토)과 26일(일)에는 덴버 관광에 나섰다. 여행 중에 코가 마르고 몹시 답답했다. 고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했다. 계속 졸리고 피곤했지만 모든 걸 무릅쓰고 나섰다. 덴버의 콜로라도주 주청사, 박물관, 공원, 백화점 등을 돌아봤다. 덴버 날씨는 우리나라 겨울보다도 더 좋았다.



덴버의 콜로라도 주청사(state capital) 앞에서



폐광된 금광에서 기념으로 구매한 문진

하늘은 맑았고 습기가 없이 청명해 항상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일요일에는 덴버에서 약 100마일 주변의 스키장과 기념관 및 기념탑 등을 두루 관광했다. 파이크스 피크(Pikes Peak, 4,300m) 산 위는 매우 추웠으나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관광지가 된 옛 금광(old gold mine) 캡내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기념품도 샀다.

그리고 일요일에 라우리 공군기지 방문자 숙소의 스위트룸(suite room)으로 옮겼다. 사관생도는 대령과 동등한(VIP code 7) 대우를 받기 때문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텔레비전 등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일류 호텔과 같은 숙소의 일일숙박료가 60센트에 불과했던 사실이었다. 지금에는 혼한 가전제품이지만 물이 한번 데워진 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커피포트도 그때 처음 보아 매우 신기했다.

그리고 그날 일요일 저녁에는 미 공군 상사가 집으로 초대한 만찬에 참석했다. 안내장교들(Lt. Pump와 Long)도 함께했다. 사복을 준비해간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현지에서 바바리코트와 와이셔츠를 샀다. 특히 옥스퍼드 원단의 코발트색 와이셔츠는 색깔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옷은 임관 후에도 내가 제일 즐겨 입는 외출복이 되었다.

27일(월)에는 라우리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청취하고, 부대를 견학했다. 라우리 기지는 덴버에서 2마일 정도 떨어

진 공군기지로 임무나 역할 면에서 보면 당시 대전에 있던 한국공군의 기술교육단(교육사령부의 전신)과 유사한 부대로, 비행훈련 이외의 여러 분야의 기술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일행을 위해 중령이나와 브리핑을 해주었다. 전반적으로 귀빈(VIP) 대우를 받았다. 졸린 눈을 억지로 붙잡아 가면서 일과를 마쳤다.

### 미국 공군사관학교

11월 28일(화)에 덴버에서 출발하여 미 공사가 있는 해발고도 3,000m의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에 도착했다.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였지만 국내선 항공기로 이동했다. 미 공사에 도착해서 쓴 첫날 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아주 짧은 시간 비행기 여행이었다. 자동차를 이용했으면 했지만, 비행기만 타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여기 도착해서 규모가 큰데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3,0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위한 시설이라지만 놀랄 뿐이다. 생도들을 위해 있는 장교와 사병들의 가족을 위해 고등학교가 있을 정도다.”**

나의 안내 생도는 4학년 야마모토(Walter M. Yamamoto)로 호스트(host) 겸 룸메이트 역할을 해주었다. 내방은 8층(Room no. 13 Sq. 6Do1)에 있었다. 나는 내방에서 눈에 들어오는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을 70개까지 세어 봤다. 생도체육관과 팰콘 스타디움(Falcon Stadium) 이외에 미식축구



장 9개, 하키장도 50여 개나 되는 듯했다. 우리 공사의 체육관 앞에 축구장과 럭비장 그리고 열병분열을 위한 잔디밭 정도만 보다가 미 공사의 체육 시설들을 보니 그 규모와 숫자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공사에서 1학년을 “메추리”라고 호칭하는 것과 비슷하게 미 공사에서도 1학년 생도를 “돌리(doolie)”라고 불렀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턱을 당기고, 직각 식사를 하고. 상관의 질문에는 큰소리로 “옛 셀(Yes sir!)”하는 것, 그리고 직각 보행(square corner)을 하는 것은 매우 같았다. 아마도 우리가 보고 배워왔지 않았나 생각했다.

그러나 미 공사의 생도 생활은 1학년도 일정 기간과 장소만 벗어나면 매우 자유스러운 것 같았다. 야간 점호도 기숙사 개인의 방에 있나 여부만 확인하는 탭(tap) 점호였다. 나의 안내 생도 야마모토는 4학년 이어서 허용되는지 1인용 전기밥솥도 갖고 있었다. 식사 집합 전에 밥을 미리 준비했다가 식당에 갖고 가서 나와 나눠 먹었다. 할 때는 하고 자유스러울 때는 한 없이 자유스럽게 보였다. 출국 전에 평소 상상해 보았던 것 이상이었다. 반면에 학과를 따라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다. 4학년인 야마모토 주변 동료 생도들을 보니 리포트 내느라고 타자기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



미 공사 생도대 앞에서

생도 기숙사 교정 가운데 생도들이 오가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진 자그마한 동상이 있었다. 이 조형물에는 어미 독수리와 새끼 두 마리가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의

이름이 “독수리와 어린 새끼들 동상(Eagle and Fledglings Statue)”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평생 인간의 비행은 그의 지식의 힘으로 지속된다(Man's flight through life is sustained by the power of his knowledge)” 미

공군의 지도자와 공중근무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필수적으로 명심해야 할 좌우명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지금에 와서는 필자인 내가 한국공군의 조종사와 지휘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식을 쌓기에 힘썼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글귀이기도 하다.

11월 29일(수)은 미 공사에서 2일째 되는 날이다. 조식 집합과 동시에 점호를 한 후에 식당으로 행진했다. 식당 규모에도 놀랐지만 메뉴도 매우 좋았다. 식사 후에는 미 공사 관광 코스를 따라 박물관이기도 한 방문자 센터(visitor's center)를 둘러보았다. 미 공군의 아버지 아놀드(Henry Arnold) 공군 원수 기념관이며 생도회관이기도 한 아놀드 홀(Arnold Hall)을 방문했고, 생도교회(cadet chapel)를 갔었다. 교회는 로키산맥의 산들을 형상화했다고 했다. 그곳에서

는 기독교, 천주교는 물론 유대교와 불교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미리 준비해갔던 작은 불상을 선물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두리틀(Doolittle) 기념컵”이었다. 1942년 4월 두리틀 중령이 이끄는 16대의 B-25 경폭격기가 도쿄 공습 작전을 시행했다. 기념관 내에는 이 작전 참가자의 이름이 새겨진 컵을 진열해 놓았다. 그중에 전사자와 사망자의 컵은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아마도 지금쯤은 모두 컵이 뒤집어 놓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산 미 공군기지 정문의 명칭도 여기서 따온 ‘두리틀 게이트(Doolittle Gate)’인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11월 30일(목)은 미 공사에서 3일째 되는 날로 생활에 좀 더 익숙해졌다. 오늘 기본 체육관에는 거의 모든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영장, 아이스하키장, 그리고 처음 보는 스쿼시 코트(squash court)도 있었다. 유도, 당수, 태권도장도 둘러볼 수 있었다. 도복에 한글로 이름을 새겨 놓아서 반가웠다. 그리고 교외에 있는 브로드무어(Broadmoor) 아이스하키 링크에서 미 공사와 일반대학의 시합을 관람했다. 공사가 4 : 2로 패했다. “We do not always win, but our spirit is high!”라는 말이 떠올랐다.

또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관광 명소로 신비스러운 바위들이 있는 신들의 정원(Garden of the Gods)도 둘러보면서 사진도



신들의 정원(Garden of the Gods)에서

찍고 서울에 보낼 기념 우편엽서(post card)도 샀다.

저녁 시간에 1학년 생도 3명이 방으로 찾아 왔다. 한국의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한국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가를 질문하기도 했다. 대부분 원하기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짧은 영어였지만 알아듣고 공감하는 듯했다. 한국에 관해 설명할 때 미리 준비해간 태극기도 잘 활용했다.

1967년 우리 일행이 미 공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열병분열을 위해 퍼레이드 장으로 가는 통로(warrior ramp)에 “Bring Me Men”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 미 공군대학 군사유학 때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이 글귀가 있었다. 이 뜻은 미국 유명인의 시에서 따온 말로 “나에게 사나이를 보내다오”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글은 양성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은 미 공군의 핵심가치(core values)로 바뀌었다.

[이 글귀는 미국의 시인(Sam Walter Foss)의 “Bring me men to match my



mountains”에서 따온 것. 그러나 이것은 1976년 여자 생도가 입교를 시작한 이후 2003년 양성평등 문제로 삭제되었다가, 2004년 공군 핵심가치(core values)로 변경되었음. 즉 “Bring Me Men Ramp” 가 “Core Values” Ramp로 변경. 미 공군 교리의 공군 핵심가치(core values)는 ① Integrity First, ② Service Before Self, and ③ Excellence in All We Do!

12월 1일(금)은 미 공사 방문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생도 학과장을 방문했다. 학과장의 텔레비전 강의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항상 바쁘게 보였다. 그중에서도 학과에 따라가기가 바쁜 것 같았다. 학과장에서 눈을 감고 쉬는 것처럼 보이는 생도들을 봤을 때 학업을 따라가기에 매우 힘들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저녁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내에 있는 생도회관(Cadet Club)에 갔었다. 4학년은 이곳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생도들은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4학년 생도와 한국공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는 한국공군이 F-5(Freedom Fighter) 보유하고 있고 조종사들이 우수 하므로 믿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공산주의자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길래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이 달라 현재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했다. 그밖에 대화를 통해 생도들 봉급은 150~170불 정도로 개인용품(식사 및 옷)을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 액수는 50불 정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일 워싱턴D.C.로 출발한다. 출발 전에 이곳을 떠나면서 느낀 점이다. 첫째, 미 공사의 규모에 놀랐다. 그리고 모든 생도가 군사훈련도 힘들지만, 공부를 소홀히 하면 졸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았다. 끝으로 1학년 생도들 둘리(doolies)의 훈련이 정말 잘 되었다고 느꼈다. 부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으면 저 정도일까 생각했다. 할 때 하고 놀 때 논다는 개념이 확실했다.

###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12월 2일(토)은 미국에 와서 두 번째 주말이다. 이번 주말에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덴버로, 덴버에서 시카고(Chicago), 시카고에서 다시 워싱턴D.C.로 국내 민항기를 타고 여행했다. 그리고 백악관 인근 15번가의 워싱턴 호텔(Hotel Washington)에 숙소를 정했다.

공사 1기생이신 공군무관 마종인 대령님을 만날 기대를 했으나 출장 중이셨다. 우리 일행은 개인적으로 호텔 주변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카페테리아를 찾아 식사도 했다. 그러나 음식이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여기서 음식을 사서 먹어 보니 미 공사의 식사가 훌륭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녁때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호텔 주변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건널목이 대각선으로 된 곳도 있어 직접 건너보기도 했다. 이것도 신기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1987년에는 필자가 주

미 공군무관으로 근무할 때도 이곳을 또한 자주 방문하곤 했었다. 미국에 군사유학 중인 많은 한국공군 장교들이 D.C.를 공식 방문할 때마다 머물렀던 미 공군의 지정 호텔이었기 때문이다.

12월 3일(일)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3,000m나 되는 고원지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다가 낮은 고도로 오니 그런 것 같았다. 이곳 날씨는 서울과 비슷한 것 같았다. 또한, 첫눈이 와서 주변이 모두 하얗게 변해 더욱 기분이 좋았다. 오전에는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다가, 오후에는 잠깐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동상들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저녁에는 공군무관님 숙소에서 오랜만에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다. 양식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여행 중에 처음 먹어 보는 한국 음식이어서 많이 먹었다. 사실 어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에 대한 기대가 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오늘에는 더욱 맛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자동차로 워싱턴 명소들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 묘지의 꺼지지 않는 불을 지나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다.

12월 4일(월)은 워싱턴D.C.를 본격적으로 관광했다. 우리 일행은 알링턴 국립묘지,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백악관, 의회 의사당 등을 구경했고, 워싱턴 기념탑에

서는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갔었다. 이곳에서는 D.C.의 모든 관광 명소가 있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의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여러 기념 동상이나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같은 사진의 우편엽서를 사는 것을 빼뜨리지 않았다. 당시 여행하면서 소식을 한국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엽서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1주에서 2주가 걸렸다. 그리고 나는 민간인 친구의 사진기를 빌려 왔었지만, 여행하면서 사진 찍기가 제일 큰 취미가 되어 버렸다.

D.C. 방문 3일 차인 12월 5일(화)에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관광차 방문했다. 미 해사는 D.C.에서 동쪽으로 30여 마일 떨어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Annapolis)에 있었다. 120여 년 이상 전통을 가진 미 해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역사가 있어 보였다. 최신 것은 드물었다. 지난 6월에 입교했다는 한국인 교포 “조”생도가 안내를 해주었다. 특히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생도대 현관에 게시되어 있는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미 해사 선배들의 명단과 사진이었다. 나는 미 해사 생도들이 이 사진을 날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매우 궁금했다.

오늘은 조생도가 안내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온종일 여행을 우울하게 했다. 그는 “국력이 약하니까 힘이 없다”라고 했다. 미 해사에서 받은 인상이 아주 별로였다.



## 샌안토니오의 락크랜드 공군기지

12월 6일(수)은 서울을 떠난 지 12일째다. 워싱턴 D.C.에서 락크랜드 공군기지(Lackland AFB)가 있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San Antonio)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에도 국내선 민항기(Eastern Airline)를 타고 갔다. 잠이 모자라는지 이제는 비행기만 타면 잠을 자고 착륙해야 께 정도다. 여행이 피로한지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락크랜드에서 4기 선배 연락장교(liaison officer) 한영규 중령님을 만났다. 매우 반가웠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는 여름 날씨로 야자수(palm tree)가 여기저기 보였고 서부영화에서 보던 목장이 눈에 들어왔다. 밤에는 샌안토니오 시내를 차로 둘러보았다.



락크랜드 미 공군기지에 파견근무 중이었던 연락장교 4기 한영규 중령(가운데)과 일행. 맨 우측은 미 공군 안내장교, 그리고 맨 좌측이 필자

도 복장 때문인지 모두 매우 반가워했다. 국방영어학교는 미국으로 군사유학을 하리 가는 한국군 장교들이 기술 및 전문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 많이 다녀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 기지에는 미 공군병원(Air Force Hospital)도 있었다.

12월 8일(금)에는 락크랜드 2일 차로 학사장교학교(OTS: Officer Training School)를 방문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군 초급장교 훈련도 겸하고 있었다. 여군 훈련생들이 직각 보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훈련을 받고 나온 여군 장교라면 사병들로부터 경례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했다. 열병 분열도 참관했다. 남녀구분 없이 섞어서 실시했다. 여군 훈련생이 지휘자로 연습하는 모습도 보였다.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 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연락장교 한영규 중령님 숙소에서 저녁을 먹었다. 공군병원에 입원해 계신 박재성 중령님(2기)도 참석하셨다. 박 중령님은 우리 일행에게 만년필 선물로 주시면서 “훌륭한

12월 7일(목)에는 락크랜드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공군 사병(airman)을 훈련하는 신병훈련소가 있었다. 제식훈련을 하는 것을 보니 1학년 메추리 가입교시절 기본군사훈련이 생각났다. 한편에는 내무사열을 하고 있고 구급법 훈련도 하고 있었다. M-16 사격훈련도 참관했다. 편리한 조작법, 정확한 명중률, 성능 등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국방영어학교(DLI: Defense Language Institute)에서 영어교육 중인 여러 국가의 장교들도 만났다. 사관생

후배들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해주셨다. 박 중령님은 한국에서 비행사고로 화상을 입은 후 이곳으로 후송되어 미 공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셨다. 여행 중 모처럼 대선배님들과 함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 피닉스의 윌리암스 공군기지

12월 9일(토)로 미국에서 3번째 맞는 주말이다. 샌안토니오 락크랜드 공군기지를 떠나 애리조나주 피닉스(Phoenix)로 가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올랐다. 피닉스 근교에 있는 윌리암스 공군기지(Williams AFB)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하니 날씨가 청명해 첫인상이 매우 좋았다. 쭉쭉 뻗은 야자수가 남국을 연상하게 했다. 광활한 평야의 텍사스와 느낌이 또 달랐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도로 주변의 오렌지와 끝 과수원은 보기도 좋았지만 내 입안에 침이 나오게 했다. 여행 중에 가장 좋은 날씨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비행학교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숙소에 짐을 풀 후 주말을 보낼 준비를 위해 매점(B,X)에 들리니 용케 도 유니폼을 보고 코리아를 알아맞힌다.

12월 10일(일)에는 피닉스 주변 관광에 나섰다. 안내장교 없이 운전기사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오산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운전기사는 굉장히 친절했다. 피닉스 시내와 교외의 서부개척시대를 연상케 하는 주변의 관광 명소를 다녀왔다. 여행 중 잊지 못할 에피소드 또한 가지다. 당시 감귤이나 오렌지는 한국에서 매우 귀하

고 비싼 과일이었다. 감귤을 영어로 텐저린(tangerine)이라고 했다. 여행 중에 우리는 도로가의 과일 판매대에서 숙소에서 먹을 과일을 조금씩 샀다. 나도 서울에서 못 먹어 보던 과일인 감귤부터 샀다. 그러나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움직이는 차 속에서 굴부터 먹기 시작했다. 너무 맛있었다. 차 뒷좌석에 돌아 앉아 3키로 그램 정도 되는 굴 한 망태기를 혼자 다 먹어 버렸다. 감귤을 담은 망태기의 줄 색깔이 주황색이었다는 것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 그 결과는 뻔했다. 배탈이 나서 그다음 날까지 고생 좀 했다. 그래도 당시에 서울에서도 귀했던 작은 오렌지인 감귤을 마음껏 먹어 보았다는 사실은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즐거운 추억이다.

12월 11일(월), 윌리암스 공군기지(Williams AFB)를 견학하는 날이다. 이 기지에는 비행훈련학교(Under Pilot Training School)가 있었다. 훈련 기종은 T-37과 T-38(F-5 복좌)로 모두 제트기뿐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사장교(OTS) 출신이 50% 정도이고 미 공사 출신은 30% 정도라고 했다. 비상탈출훈련을 위한 ‘사출기(Boom Bucket)’ 훈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도 귀국하면 내년부터 비행훈련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 관심이 많았다. 이곳에도 한국을 다녀간 장교들이 많아 인사를 많이 받았다. 또한, 이곳 비행학교를 졸업한 한국공군 선배 장교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군기지를 방문하면서 대령



급 내빈 대우를 받아왔다. 특히 새로운 기지에 도착할 때마다 의전을 담당한 여군들의 세련된 안내를 받았을 때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했다. 미 공군의 여군(WAF: Women in the Air Force)들에 대한 첫인상이 나에게는 매우 좋았다.

### 로스앤젤레스(LA) 여행

12월 12일(화) 피닉스에서 출발하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를 하는 데모 군중을 목격했다. 또한, 전쟁에서 귀국하는 군인을 마중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여인이 울면서 귀국하는 군인을 포옹하고 있었다. 젊은 시간이었지만 전쟁의 아픔이 무엇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강한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장교를 만났다. 흑인 소령인데 성이 ‘니그로(Nigro)’이다. 그런데 ‘나이그로’라고 발음하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민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의 ‘홈스테이(home stay)’였다.

짐을 풀기 전에 우리는 노스럽 항공사(Northrop Aviation)를 방문했다. 한국 공군도 보유한 F-5A/B 생산 설비를 견학했다. (한국 공군은 1965년 F-5A/B 1개 대대를 도입했다.)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들이다. 한국에서 항공기 수리창도 기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생산 공장시설인지 알 수도 없었고 그저 담담한 느낌이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조차 몰랐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다. 한심하게도 그저 선물 받은 F-5 넥타이핀(tie pin)이 새롭고 좋기만 했다.

그날 저녁은 안내장교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 Side)의 은퇴한 노부부 집에서 하룻밤의 민박, 즉 ‘홈스테이’를 했다.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다.

12월 13일(수), 리버사이드의 노부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동안 여행에 피로했는지 정말 잘 잤다. 노부부는 아들 셋을 두셨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다. 링컨 다음 인물이라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새겨진 50센트 기념 주화를 나에게 주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iverside)에 있는 마치 공군기지(March AFB)를 방문하여 사령관을 예방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기념 쟁반을 전했다. 마치 공군기지는 아시아를 지원하는 미 공군 전략 공군기지였다. 그리고 이곳 숙소(BOQ)에 짐을 풀었다.

12월 14일(목)은 LA에서 2일 차로 디즈니랜드(Disney Land)를 관광했다. 아침 식사를 한필순 소령님 댁에서 한식을 먹은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았다. (한필순 소령님은 5기생으로 당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으로 해외 유학 중이었다.) LA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디즈니랜드를 다녀왔냐고 물어봤다. LA 관

광하면 디즈니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 모양이다. 하루에 다 못 볼 것이 뻔해서 유명한 것 몇 개만 골라서 보기로 했다. 우연히 교포 부인 한 분을 만났는데 통역을 해주어서 쉽게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실제와 가짜를 구별 못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 그 규모와 정교함에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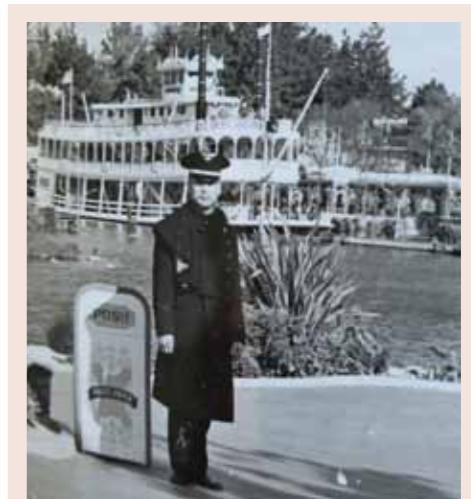
이날 저녁도 나이그로 소령은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함께했다. 오늘 메뉴는 스파게티였다. 처음 먹어 보는 국수 같은 음식인데 입맛에 맞아 많이 먹었다. 그날 내 별명은 ‘스파게티’가 되었다.

12월 15일(금)에는 LA 여행 마지막 날로 노스아메리칸(North American) 항공사 방문 후, 오후에는 귀국을 위해 시애틀 남쪽 맥코드 기지로 다시 돌아왔다. 노스아메리칸 항공사에서는 1967년 1월 발사했던 아폴로 우주선(Apollo Spacecraft) 실물을 견학하고 기록 영화를 봤다. 그리고 우주선이나 항공기 기체에 사용되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벌집 모양의 허니컴(honey comb) 조각을 기념 선물로 받았다. 오후 3시에 LA 공항을 출발하여 시애틀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던 길을 반대로 돌아갈 귀국 준비를 했다.

LA 여행 중에 듣고 본 견문 사항이다. 당시 LA는 6백 50만 인구에 7백만 대의 차가 있다고 했다. 한 집에 차 한 대 이상을 가진 셈이었다. 여행 중 다녀본 도시 중에서 높은 빌딩도 제일 많았고 차도 제일 많았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LA의 주변 교외로 쭉쭉 뻗은 고속도로 그리고 그 위에 달리는 차량이 많은

데 놀랐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달리는 차량 행렬의 빨간 후미등의 긴 줄은 나로서는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 그리고 깜빡이 등도 새롭게만 보였다. 또한, 시내를 지나면서 큰 건물 건설 공사장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군데군데 높은 크레인만 보였다. 당시의 우리 공사장과는 달랐다.

12월 16일(토)은 미국여행 22일째로 4번째 맞는 토요일이다. 우리 일행은 맥코드 공군기지 숙소에서 귀국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다. 이날 내 일기장 내용이다.



디즈니랜드의 마크 트웨인 유람선 앞에서

*“24:00시에 이륙이다. 지금은 20시 30분. 21시에 기지에서 차가 나오기로 되어 있다. 떠나는 기분에 서운한 감은 조금도 없다. 너무나 기간이 짧아서 좋은 것만 보고 간다. 같은 사람이 사는 곳 물론 기후와 풍*



**토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그러나 추한 곳과 우리를 못 따라 오는 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가는 것이 제일 섭섭하다. - 중략- 시애틀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만난 것 같다. 사관생도의 블루 유니폼은 누구든지 반겨주었다. 이 옷을 벗고 오면 어떠할까? 누가 나를 반겨 줄까? 다시 한 번 생도의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이제 3시간만 있으면 고국을 향해 날아간다.”**

12월 18일(월)에 우리 일행은 3주간의 미국 방문 여정을 잘 끝내고 김포국제공항 맥 터미널(MAC Terminal)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 맺는 글

우리 일행은 여행 중 새로운 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안내장교를 만났다. 모두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도와주었다. 반세기가 넘었지만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지금에 와서야 글로 전한다. 또한, 우리는 여행 중 많은 공사 선배님들도 만났었다. 위싱턴D.C.의 공군무관 마종인 대령님(1기), 락크랜드 공군병원에서 치료 중이셨던 박재성 중령님(2기), 락크랜드 연락장교 한영규 중령님(4기), 그리고 LA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이셨던 한필순 소령님(5기)은 모두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는 훌륭한 선배님들이셨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여행 중에 우리 일행이 방문했던 곳은

주로 미 공군의 교육부대로,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미 공군의 장교와 사병을 양성하는 기술교육 및 비행훈련을 수행하는 핵심 기지들(맥코드, 라우리, 락크랜드, 윌리암스, 마치 공군기지)이었다. 이 기지들은 대부분 탈냉전 이후 1990년대에 와서 군사기지 재조정 및 폐쇄(Base Realignment and Closure)계획에 따라 공군 예비군 기지 또는 육해공군 통합기지로 재조정 되거나, 민간 시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자가 워싱턴D.C.에서 공군무관을 마치고 귀국하던 1990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현장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던 변화였다.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전혀 볼 수 없는 1967년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냉전 시대, 미 공군의 한 모습을 보고 온 것 이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미 공군이 우리 일행에게 보여준 것들은 당시 본토의 미 공군의 핵심 교육기관과 한국공군과 관련된 항공기(F-86, F-5) 제작사였다. 그때 우리 일행은 이러한 미 공군의 제도나 능력을 이해 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때 경험한 일들은 나의 공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경험 중에 일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이 기행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강한 인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웠다. 미국 북부에서나 남부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속도로의 셀 수 없는 차량들,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광활한 땅 위의 도시들, 풍부한 자원과 물자! 물론 남북 전쟁 등 고난의 시대도 있었지만,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였다.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그 생활 정도와 규모가 원전히 달랐다. 우리나라와는 모든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나 할까 나는 이런 세상을 주마간산 식이지만 3주간 보고 왔다.

서울에서 자랐으나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나는 새로운 세계를 잠시나마 보고 난 후,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꾸어도 될까 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무리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접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미 해사를 방문했을 때 안내를 해주었던 “국력이 약하니까 힘이 없다”는 교포 조생도의 말이 귀국해서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정신적으로는

괴로웠던 3주간의 여행이었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오래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의 미국여행은 내가 군 생활을 하는데 의욕을 복돋아 주고 자극을 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후배들을 비롯해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였지만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끝으로 글을 맺으면서 지금처럼 이 나라를 잘 살게 이끌어온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생겨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54년 전 그때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었다! (동 원고의 ‘원본’과 ‘1967년도 일기’는 공사 박물관의 유물담당자와 상담결과, 미공사에 대한 자료가 매우 희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여 공사 박물관에 전달했습니다.) ➔



# 나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광성(20기)

전역한지도 어느덧 18년이 지났다. 세월이 유수와 같은 말이 실감난다. 이젠 인생의 황혼기란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돈 벌 궁리를 해야 하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지금 중요한 일은 나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돈과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1%로도 안 되는 인종이지만 세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후손들에게 지배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 교육의 중심에는 “부”에 관련한 교육이 있다. 어려서부터 돈을 늘려 나가는 교육을 시킨다. 우리는 반대다. 어린놈이 공부나 하지 무슨 돈에 집착하느냐고 편찬한다. 그러니 뒤늦게 혼자 깨우치느라 시행착오만 거듭한다. 결국 빈곤하게 되고 여생을 불우하게 살다 간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쓰라린 좌절을 맛본다.

내가 나의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것 중 두 가지만을 나열해 본다.

## I. 인간관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보람과 불행과 치욕을 맛보게 된다. 이왕이면 행복과 보람을 갖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고집대로, 타고 난 성격으로 살면 손해뿐

이다.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한 철학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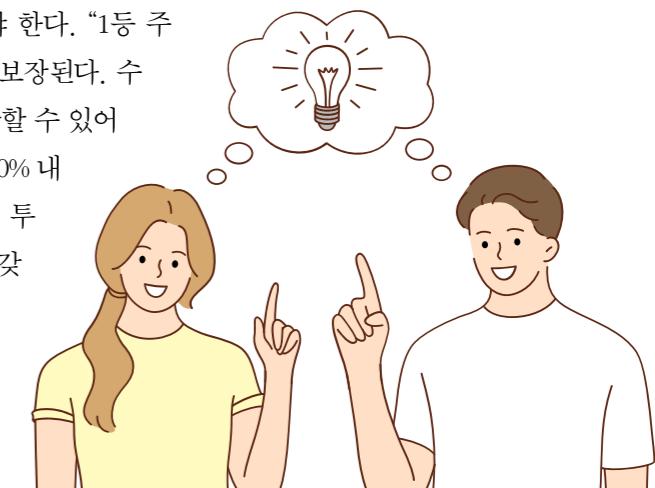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후 대처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밝은 미소로 먼저 접근하여 설득하여야 되는지, 위엄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복잡한 상황을 한동안 방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 먼저 감정이 격해지면 문제는 꼬이고 얻는 것은 없다. 상대방이 좋은 싫든 호의적으로 대하면 만사가 편해진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 II. 재산 관리 지침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가산 향진의 원인은 욕심에 있다. 더 많이 벌려는 탐욕 때문에 쪽박 찬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돈을 억지로 벌려고 쫓아다니지 않는다.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 그리고 부의 원천은 땅에 있으므로 재산의 20~30%는 땅에 묻어 둔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한다. 재산관리가 귀찮다고 한 곳으로 몰아 관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택, 토지, 주식, 상가, 연금 등 조금씩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한다. 주식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1등주식과 ETF주식을 적립식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보유하면 복리의 놀라운 마법으로 부를 쌓을 수 있으니 장기투자의 장점을 살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달 여유 돈으로 조금씩 적립(월별 1회)하며 20년

이상을 갖고 간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1등 주식”을 평생 갖고 가는 사람은 부가 보장된다. 수시로 사고파는 방법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성공하는 10% 내에 들기 위해선 1등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여 적금 형식으로 오래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안



정직으로 돈도 벌고 마음고생도 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흐름과 생활경제(회계)에 대한 공부를 계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좋은 입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산관리의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남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재산에 관해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이 노출되는 순간, 남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보증도 서 주지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야 한다.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는다. 망하는 길이다. 넷째, 잘못 구입한 부동산은 없느니만 못하다. 특히 상가는 조심한다. 다섯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 조건이 좋은 것은 모두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친절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유 없이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신용을 얻은 다음, 왕창 빼먹는 수법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주의하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백 원을 벌면 천 원을 갖고 싶고, 천 원을 벌면 만 원을 갖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공통된 욕망이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통계에 의하면 10%도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다. 인간의 본능인 탐욕 때문이다. 주식으로 벌면 벌수록, 손실이 나면 날수록, 탐욕은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꿈같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탐욕을 억누르고, 연 10~20% 정도로 만족한다. 많이 벌수록 욕망은 커지기 때문이다. ➡

##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다



석현수(1871)

### I.

먼 길 돌고 돌아  
가을에 함께 만났네  
한자리 모였네  
졸업 반 백년 만에  
저마다 잘 물든 나부되어  
고운 단풍 숲을 이루어 주었네  
1970년 졸업했으니  
2020년 졸업 50주년 행사  
사관학교니까  
임관이라 해야 좋을까?  
그길로 내리 30년  
푸른 옷에 실려 간 꽃다운 청춘  
'늙은 군인의 노래'로 자위(自慰)하고 싶어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 II.

단상으로 임석하시라네  
오래 살고 볼일  
극진히 모셔주는 군  
화려한 낙엽 대접 받았네  
서울 대방동에서 충북 쌍수리로  
등지는 옮겼지만  
정기(精氣)는 그대로  
홍안의 생도(生徒)들을 보다  
어느새 나도 청년사관(青年士官) 되어버렸네  
가쁜 숨 몰아쉬고 있네.  
이제나 저제나  
군기(軍紀)는 그대로  
살아있네  
살아있어!  
선배는 후배를 믿는다고  
늘 하던 소리  
나도 한번 해 본다  
'조국은 그대들을 믿는다'고



## III.

사열(查閱)중  
 잊고 지낸 교번 18031이 떠올랐고  
 2대대 3편대 1분대 까지  
 M1 총기번호와 사(射)거리는  
 도무지 메모리 복구가 되지 아니하더라.  
 ‘하늘을 달리는 우리 힘을 보아라’  
 공군가(空軍歌) 첫 소절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교가(校歌) 끝 맷음.  
 복 쉬도록 외쳐보고 싶었지만  
 마스크가 입을 막네  
 코로나19가 웬수  
 ‘부대 차렷’  
 군악대 음악에 놀라 실눈 크게 뜨니  
 ‘선배님들께 대하여 받들어 총’  
 ‘증성’  
 옛날 옛적에는 ‘필승’이었는데….

## IV.

오랜만에 챙겨보는  
 동기생(同期生) 현주소?  
 81명 졸업,  
 14명 소천(召天)하고,  
 4명 바닷물 물 건너 살고, 5명 주소지 불명,  
 총무님 유후나, 세고 또 세고  
 쉽지 않았겠지  
 돼지 열두 마리 소풍갈 나이니까  
 60주년 행사  
 10년 후 이대로 다시 보잔다.  
 꿈도 야무락지다  
 여든 다섯 나이에  
 과연 몇 명이 단상으로?  
 현충원에 가 있는 숫자도 많을지도?

## V.

만찬은  
 간소하게 준비했다지만  
 이름 한번 거창했으니 수라상(水刺床)이라 했다  
 왕(王)으로 모셨나 보다  
 흡족했다, 큰 호사(豪奢)를 누렸다.  
 갈 길은 멀고  
 길동무(道伴)는 가자고 손을 끄네.  
 가을날 해는 빨리 저물고  
 오랜만에 회포도 어지간히 풀었으니  
 마냥 뒤돌아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상념(想念)에서 깨다  
 현업으로 돌아가야지  
 거창하지는 않지만  
 노인네가 할일  
 책보고, TV 보고, 운동하고, 얼라(孫子) 봐주려  
 지금은 헤어질 시간  
 바람이 낙엽을 흘려 주고 있네  
 헤쳐 모여!  
 졸업 60년, 여든다섯 나이에  
 그날도 쾌청한 이 날 되길 빌면서! ➔



# 세 번으로 그치지 않을 산티아고 순례길



금기연(21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세 번 다녀왔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있는 산티아고(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 대성당으로 향하는 순례길의 정식 명칭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파스텔라'는 직역하면 별(스텔라)이 비추는 들판(콤파스)에 있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카미노)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한 산티아고는 예수가 활동하던 시절엔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곳으로, 야고보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가 제자들 중 처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유해를 스페인으로 옮겼는데 이슬람의 공격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지요. 먼 훗날 9세기에 수도자 펠라요가 기도 중 별빛에 이끌려 들판으로 나아가 조개로 덮힌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였답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조개를 상징으로 배낭에 달고

걷습니다. 성인의 유해가 발견되자 그곳에 성당을 세웠고, 이후 파괴와 재건축 및 증축과 개축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장엄한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3대 가톨릭 성지이며, 순례길은 최초의 유럽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거리 799km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녀 순례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프랑스 길은 첫날 출발점인 '생 장 뼈에 드 뾰흐'에서 시작하여 피레네를 넘어야 합니다. 해발 고도 200m에서 시작하여 1,430m까지 올랐다가 다시 900m로 내려가니 고도변화가 심합니다. 산이 높으니 맑다가 흐렸다가, 또 어느 순간엔 일부에만 헛빛이 비쳐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은 설레면서도 과연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

합니다. 한편으론 순간마다 달라지는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을 거듭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는 헛별이 찢어내리듯이 조금 떨어진 저곳에는 짙게 낀 구름 아래로 철 지난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길은 눈 내리는 그곳을 지나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가고 싶지만 일정상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축복입니다. 오기 힘든 곳이니 한 번 왔을 때 좋고 웃은 여러 경험을 두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눈과 함께 세찬 비바람까지 함께 하는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서로 팔짱을 끼거나 부둥켜안고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넘어져 다치거나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천후 산행 경험을 살려 일행을 다독여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란 화살표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페인트나 공예, 조각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된 노란 화살표는 목적

지인 산티아고 데 콤파스텔라의 대성당까지 이어집니다. 순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 이 자기 인생의 화살표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혼자 걷더라도 가는 곳, 겪는 것, 추구하는 바가 같으니 순례자들은 쉽게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일행이 되어 함께 가더라도 걷고 쉬고 먹는 등을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동기와 신체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도 함께 가고, 함께 가도 혼자 간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가끔 함께하다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순례를 하노라면 함께 하면서도 따로 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서양 순례자들과 한참을 같이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함께 걸었던 그 친구들이 다짜고짜로 "레인보우, 레인보우"를 외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쌍무지개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순례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들 순례 중에 천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는 것은 일상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순례자들은 세계의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이들과 의사소통이 수월하다면 순례길의 즐거움은 훨씬 커집니다. 함께 걸으며 부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그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물론, 북한과 한국이 왜 큰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기도 저절로 생깁니다. 다음에 가면 K방역도 화제가 되겠지요.

아침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오래 걸은 뒤의 휴식은 꿀맛입니다. 휴식이 가능한 숙소에 도달하는 것은 하루의 작은 목표 이자 희망입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빠



르거나 늦은 순례자를 뜻밖에 다시 만나는 기쁨도 큽니다. 샤워와 빨래를 한 뒤 쉬거나 마을구경을 나갑니다. 소문난 맛집을 찾거나, 먹거리 구입하여 혼자 또는 여럿이 어울려 각 나라별 요리솜씨도 선보입니다. 먹고 걷고 잠자는 단순함의 반복 속에 성찰과 용서와 다짐이 이루어집니다. 훈치 않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순례자 마을은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가는 순례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순례자 숙소와 식당, 교회, 가게 등이 있습니다. 숙소는 공립은 하룻밤에 우리 돈 1만 원 미만, 사립은 배 정도입니다. 식당도 순례자에게 일반인 대비 약 1/2~1/3 정도 가격에 맛좋고 양 많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순례자에 대한 친절과 배려는 바로 천 년이 넘는 순례길 마을의 문화입니다.

강을 건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던 예전엔 순례자를 위한 다리의 건설이 최고의 자선이었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여왕의 다리’ 경당에 모셔진 성모자상에 작은 새가 매일 자신의 부리로 강물을 떠와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의 얼굴을 씻기고 날개로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새의 동정녀’라고 불리는 성모자상은 지금도 다리 옆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순례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이 깃든 곳이 여럿 있습니다.

8km 정도나 줄곧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다. 그러나 사방이 탁 트인 꼭대기에서의 전망은 긴 언덕길을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한 조각가가 순례를 주제로 만든 설치 작품이 세찬 바람 속에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한편에는 풍력발전기가 즐비합니다. ‘용서의 언덕’ 또는 ‘자비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페뜩 ‘누구를, 무엇을 용서해야 하나?’ 생각해보지만 ‘누구에게 용서를 청해야 할까’ 하는 반성이 금세 뒤따릅니다. 길노라면 잊어버렸던 예전의 아주 작은 일까지 떠올라 순례기간 내내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게 됩니다.

해발 고도 600~900m 고원지대인 ‘메세타(meseta)’는 ‘탁자’란 뜻입니다. 남한 면적의 약 5배인 스페인의 3/4 가량이 메세타라고 하니 그 광활함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사방 360

도 어디를 둘러봐도 지평선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원, 끝없이 광활한 대지에 무한정으로 펼쳐진 밀밭, 그것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장엄한 해돋이…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요, 황홀경입니다.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다 보면 문득 자신의 미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순례를 계속하는 자신의 대단함도 발견합니다. 넓디넓은 대평원 사이로 끝없이 이어진 길. 그 길을 따라 순례자들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찬 바람이 밀밭에 거센 파도를 일으키

면 순례자는 조각배 마냥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물집이 끓어 절뚝거리는 한 여대생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순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철 십자가’. 직경 10m 남짓한 등 그린 돌무더기 가운데에 5m 높이의 나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철 십자가가 얹혀 있습니다. 기둥 틈새에는 다양한 사연이 담긴 사진이나 엽서, 편지 등이 끼어져 있습니다. 돌무더기에도 온갖 사연이 널려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을 적은 돌을 집에서

부터 가져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한 소원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해돋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순례자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소원할까요?

막돌을 쌓아서

지은 시골의 작은 교회

가 왕립교회? 알고 보니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비바람 심한 14세기 어느 날 농부 한 명과 무심하게 미사를 올리던 사제, 축성 중 밀떡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했답니다. 왕이 그 때 사용한 성작과 성반을 가져가려 했지만 마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지요. 유명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왕이 보내온 유리장 안에 성작과 성반, 옆에는 사제와 농부 시신이 안치된 묘가 있습니다. 순례방향을 표시하는 노랑 화살표를 창안한 삼페드로 주임신





부의 묘가 성당 안에, 흉상이 마당에 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최종 목적지 산티아고 대성당.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면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광장에서 의식을 치릅니다.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가만히 눈물을 흘리거나 큰 소리로 통곡하는 사람, 춤추며 노래하거나 벌렁 드러누워 버리는 사람… 오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벽찬 환희와 성취감에 이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만도 감동입니다. 성 야고보 유해에 참배하고 순례자를 위한 미사에 참례한 뒤 순례증서를 받으면 걷는 순례가 끝납니다. 일상에서의 새로운 순례, 참 순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의 상징은 향로미사입니다. 20m 높이에 매달린 1.5m, 53kg의 거대한 향로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60km를 넘어 대성당 천정에 닿을 듯 시계 추처럼 흔들리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향로의 연기가 교회 꼭대기로 올라가듯 순례자들의 기도가 하느님께 도달하기를 바라고, 향내가 교회 건물에 배듯 기독교인의 미덕과 중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회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례를 마치고 향로의식을 보는 순례자들은 엄청난 광경에 벽찬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800km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니 성취감 뒤에 웬지 모를 허전함과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계

속 걷는 이유입니다. 이름난 순례길이 가까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나타나 야고보를 위로하셨다는 무씨아와, 스페인의 땅 끝 관광지인 피니스테레(또는 피스테라)까지 가는 길입니다. 한 곳에 도착 후 29km만 더 가면 양쪽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전체 거리도 120km가 채 되지 않아 걸어도 좋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세상 끝까지 선교를 했다지요. 결과가 한심하여 어느 바닷가에서 옮고 있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셔서 ‘최선을 다했으니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운 무씨아(Muxia)의 기념 성당은 다른 곳과 달리 도심에서 떨어진 바닷가에 있습니다. 순례를 끝내며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날을 다짐하기에 최적입니다. 며칠이고 머물고 싶은, 작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예전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땅 끝 마을 피스테라까지 가서 그동안 신고 입었던 신발과 옷가지 등을 태우고 대서양에 지는 해를 보며 잠들었다고 하지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태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나로서 일상에서 새로운 참 순례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처음엔 배낭에 이것저것 넣고 있지만 이내 비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열흘에서 한 달 이상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고 걷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길과 식당과 숙소를 물어야 하니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결손이 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장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몸, 일흔이 넘어 혼자 외국을 도보여행하는 도전정신과 외국어 능력, 산행과 암벽등반으로 익힌 노하우, 가족의 무한한 믿음, 친구와 친지들의 지지, 경험자들의 기록 등 넘치는 고마움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심심찮게 만나는 칠순이 넘는 순례자들은 자극제가 됩니다.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마을을 거치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현장을 걷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혼치 않은 장면을 담은 사진은 개인전의 소재가 됩니다. 다시 일상이라는 순례길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활력이 생깁니다. 한 번 순례길을 맛보게 되면 큰 길만도 열 개가 넘는 다른 순례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은퇴나 전직, 새로운 인생 설계 등 성찰과 치유, 결단을 앞둔 이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

## 조선왕릉탐방



김동기(21기)

왕릉은 으스스한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역사와 사색의 교과서이고 매우 정교하게 꾸며진 숲이요, 정원이다. 왕은 죽지 않는다. 육신은 비록 소멸되었으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있다. 오백년 조선왕조의 영육을 뒤로한 채 이승을 하직한 왕들의 무덤을 찾아 거닐어 보면 긴장된 당시의 역사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아스라이 펼쳐진다.



사진 출처 : unesco

조선왕조는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개국한 때로부터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 8월 29일 까지 519년을 이어져 왔으며 총 27명의 왕이 즉위하였다. 이 중 폐위된 왕인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로 격하되어 왕릉에서 빠졌고 비록 재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왕으로 추존된 5명(덕종, 원종, 진종, 장조, 문조)이 포함되어 30명의 왕이 왕릉에 안장되었다. 마찬가지로 왕후도 원비 27명과 계비 13명으로 총 40명인데 이중 폐비 2명이 빠지고 추존된 왕후 5명이 포함되어 43명이 안장되었다. 왕 30명과 왕후 43명 모두 73위의 유택이 능침(봉분) 64개를 이루면서 능 42기로 조성되었는데 이 중 북한 개성에 있는 2기(제릉, 후릉)를 제외한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왕릉의 형태는 무덤의 조성 형식에 따라 단릉 · 쌍릉 · 삼연릉 · 동원이강릉 · 합장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릉은 왕이나 왕비중 그 어느 한 명만을 매장하여 봉분이 하나인 능이고, 쌍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곡장 안에 매장하여 봉분을 나란하게 2기로 만든 능이며, 삼연릉은 왕 · 왕비 · 계비등 셋을 곡장 안에 나란하게 3기로 봉분을 만든 능이다. 동원이강릉은 정자각 뒤에 왼쪽과 오른쪽 두 언덕을 만들고 왕과 왕비의 능을 분리하여 한 언덕에 하나씩 봉분을 만든 능이고, 합장릉은 한 봉분 밑에 왕과 왕비를 함께 매장하여 한 개의 봉분을 만든 능이다. 일반적으로 능의 위쪽에는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여 동서북 삼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곡장 안에 봉분을 만든다. 봉분 밑부분은 12각의 병풍석을 둘러 봉분을 보호했고 병풍석에는 12방위를 담당하는 십이지신상을 해당 방위에 맞게 양각을 했는데, 십이지신상은 모든 방위에서 외침으로부터 능을 보호하기 위해 새긴 것이다.

조선왕릉은 고려말 조선초기 뛰어난 궁중 건축가였던 박자청이란 인물에 의하여 처음으로 설계되고 조성되었는데 박자청은 무관 출신이었으나 태종조에는 공조 판서까지 오른 인물로 세종왕릉 이전의 초창기 능을 조성했다고 한다. 당시의 기술로는 난 공사였던 연못위에 건물을 세우는 경희루를 완성한 것도 그였고, 창덕궁의 인정전 역시 박자청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 유명한 건축가 박자청의 사부가 환관 김사행인데 김사행은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왕릉을 호화관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태조 강비의 정릉 공사를 맡았지만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사사 당한 인물이다. 역사는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호화관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뻔 건축들은 거의가 불후의 주요 문화재로 남아있게 되는데 멀리는 이집트의 피라미 이 그렇고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진시황의 무덤이 또한 그렇다. 조상들의 피땀이란 한숨을 후손들이 먹고 산다고 해야 하나, 하여간 고려와 조선을 잇는 천재 건축가 박자청에 의해 조성된 태조 · 정종 · 태종 등의 초기 왕릉은 자연히 고려의 양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조성된 모든 왕릉의 전형이 되었다.

그러면 왕릉의 구조물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곡장** : 봉분의 동서북쪽에 둘러 놓은 담장
- **봉분** : 왕릉의 주인이 잠들어 있는 곳
- **병풍석**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아래에 둘러 놓은 돌
- **난간석** : 봉분을 둘러친 울타리 돌
- **석양 및 석호** : 능을 지키는 양과 호랑이 모양의 석물
- **망주석** : 봉분앞 좌우에 세우는 돌기둥
- **흔유석** : 석상이라고도 하며 봉분 앞에 왕의 혼이 노니는 곳
- **장명등** : 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 석등



- 문인석 : 왕을 보좌하는 문관을 상징하는 석물
- 무인석 : 왕을 호위 하는 무인을 상징하는 석물
- 석마 : 문인석과 무인석 옆에 세우는 말 모양의 석물
- 예감 : 산릉 제례때 사용한 축문을 태우는 곳
- 정자각 : 산릉 제례때 제사를 지내는 건물
- 수복방 : 왕릉 관리자가 머무는 건물
- 흥살문 :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붉은 기둥의 문
- 금천교 : 능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돌다리

조선시대 오례의 예법과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에서는 왕과 왕후의 무덤을 도성에서 100리(약 40k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는 왕의 능행에 변고가 생길 경우 빨리 환궁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화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신하들이 100리가 넘어 안된다고 하자 정조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원을 80리로 한다”고 명했다는 얘기라던지, 세종대왕릉을 대모산에서 여주로 천장할 때는 실제로는 140리 길인데 뱃길로는 하루 거리밖에 안되므로 괜찮다며 억지로 합리화했다는 야사도 있다. 왕릉 40기는 서울에 8기(정릉, 현릉, 선릉, 태릉, 강릉, 외릉, 인릉, 정릉), 경기도 구리시에 9기(건원릉, 현릉, 목릉, 휘릉, 승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 고양시에 8기(경릉, 창릉, 효릉, 희릉, 명릉, 익릉, 흥릉, 예릉), 파주시에 4기(공릉, 숭릉, 영릉, 장릉), 남양주시에 4기(사릉, 광릉, 흥릉, 유릉), 화성시에 2기(융릉, 건릉), 여주에 2기(영릉, 영릉), 양주시에 온릉, 김포시에 장릉, 강원도 영월에 단종의 장릉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릉을 조성할 때면 장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임시 행사본부로 산역도감을 둘 정도로 국력을 기울여 정성을 다했고, 당대의 풍수대가들이 조선적인 장례 이론과 격식에 맞추어 조성한 것으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보존 실태와 국민들의 보존 의지도 따진다고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물론 고유한 보편적 가치일 것이다. 조선왕릉은 인류 역사상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틈틈이 찾아본 것이 이제 절반쯤 된다. 금년 말까지 전 왕릉 탐방을 목표로 하는데 탐방 전 관련 실록을 숙독하고 당대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들을 가능한 공부하는 것 이 중요한 것 같다. 여행이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유적 탐방은 이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

## 제2의 직업



서성도(23기)

신축년 새해가 되니 나의 나이도 어느덧 72세가 되었다. 옛날로 치면 나도 상늙은이로 살아야 하건만, 세상이 바뀌어 아직은 늙은이 축에 들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나이이다. 집안 가족들을 보아도 70세인 아내는 전직 종합병원 간호부장이었으나 지금은 요양병원의 간호사로서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다. 영국에 있는 나의 딸은 런던에서 독일은행에 근무한다. 작년 서른아홉살에 아들을 낳아, 이제서야 겨우 두살짜리 나의 후손을 하나 두게 되었다. 그것도 남편이 영국인이며, 런던대학 교수로 있기에 영국인 외손자를 두게 된 것이다.



요사이 가끔은 나의 지난날들을 둘이켜 본다. 1975년 공군사관학교 23기로 졸업하였고, 바로 소위로 임관하였다. 다사다난했던 세월 속에서, 나는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군인으로서 국가방위의 사명을 가

슴에 새기면서 47년의 세월을 그런대로 별 탈도 없고 재미있게 살았다는 생각이 듦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비행기를 타며 2,600여 시간을 하늘에서 살았고, 2년간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원에서 젊은 학도들과 항공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이어 공군본부에서 6년간 국방기획관리제도에 의거한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분석업무를 하면서 바쁜 세월을 보냈다. 또한 공군1호 헬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항공기 구매 사업도 하였다. 90년도에는 1년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다니면서 150여 명의 공무원 및 육·해·공군·해병대 동기생과 국가안보 수업도 받고, 한편으로 운동을 통하여 친밀감과 함께 교분도 즐겁게 쌓았다.

1995년에는 운이 좋게도 국방대학교에 배속되어 많은 육·해·공군 학생들에게 War Simulation을 가르쳤으며, 그것이 기회가 되어 1년간 미국의 Joint Wafighting Center(Virginia Hampton City 소재)에서 근무하게 되는 행운도 잡았다. 그곳은 경치가 너무나 좋았다. Chsapeake Bay의 바닷가 첫번째 집이며, 미육군교육교사령부(TRADOC) 관사에서 살았다. 아침이 되면



대서양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키다란 창문을 통하여 맞이하였고, 동쪽 바다의 일출을 즐기면서 일어났다. 낮에는 Norfolk 미해군함대사령부로 입출항 하는 항공모함, 핵잠수함과 크루즈 유람선 및 기타 미해군의 다양한 선박들이 나의 눈앞에서 지나갔다. 또한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과 함께 멀리 Virginia Norfolk과 Delaware를 이어주는 '19 Mile Bridge'에서 불빛이 영롱하게 빛났다. 내가 1년간 살았던 Fort Monroe는 정말 혼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있는 곳이었다.

전역 후 2006년부터 3년간은 워게임 교수로 대전의 공군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57세에 얻은 직장이라 매우 즐거웠고 유익하게 보냈다. 업무도 국방대학교 근무 할 때와 같은 형태의 일이라, 내게는 매우 익숙하였다. 예비역은 종일 근무가 아니라



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사회활동도 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가졌으며, 특히 군인이 아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나는 3,000평 밭에 사과나무 1,080주를 재배하는 사과농부다. 나의 사과농장은 파주시 적성면에 있으며, 3개의 사과농장이 있다. 제1농장은 경기 5악(감악, 관악, 송악, 운악, 화악)중에 하나인 감악산 아래에 2,000평이 있고, 제2, 제3사과농장은 각 500평으로 조선조 광해군 시절에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의 역사적 사실이 서려 있는 '원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는 곳인 임진강변에 있다. 모두 휴전선과 접경한 지역이다.

내가 사과농사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다. 사실 나는 일반적인 텃밭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전연 없었다. 그러나 군복을 벗고 공군대학에서 근무하면서 그간 알게 된 친구와 접촉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파주에 농토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사의 기반인 토지는 그때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다.

2011년이 되었다. 그해 나의 아내도 양시 노인재활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였다. 그리고 아내는 나에게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요원으로 남미 폐루에 2년간 간호분야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 하였다. 좋은 소식에 나도 남미여

행의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내 혼자 폐루로 보내게 되었다. 당시 나의 생각은 텃밭농사로 소일하자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2011년부터 100평 정도의 텃밭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니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이었다. 상담을 하니 서울시민은 농사일을 배우는 교과과정에 등록이 불가능하였다. 단지 '농업경영 CEO과정'은 등록이 가능하였다. 꿩대신 닭이라고 '그곳에서도 배울 것이 있겠지' 하며 10개월 과정을 등록하였다.

이것이 제2의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될 줄이야! 파주시의 농업에 일가견이 있는 많은 유지들을 포함하여 '농업경영 CEO 과정'에 40여 명이 등록되었다. 1개월 정도 수업을 받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서교수는 사과농사를 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이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파주시에서는 농촌소득증가사업으로 'DMZ 청정지역 사과재배 단지조성'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도 주무부서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인 것이었다.

2,000평 사과밭 조성은 4,2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농민부담은 50%인 2,100만 원이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즉시 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파주시에 주소를 옮기고 사업신청을 하였

다. 바로 허가가 나오고 차근차근 재배단지 조성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2012년 4월 5일 600주의 사과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그래서 적성면 감악산 아래 2,000평의 제1사과밭이 탄생되었다.

2017년이 되었다. 내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파주시 사과연구회 감사로 선임되었다. 아마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대변할 것으로 50여 명의 회원들이 생각한 것 같았다. 사과농사를 짓다 보면 사과연구회 간부는 회원 간의 유대는 물론 공무원과의 회의도 자주 하게 된다. 그래서 농사 정보를 많이 접하고 상세히 듣게 된다. 2018년 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국내개발 사과 품종을 심어야 하며 인건비는 농민 부담이었다. 쉽게 말해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사과밭을 만들면 돈이 들지 않고 만들 수 있었다. 즉시 신청하였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2,300만 원을 지원받아 제2, 제3사과밭 1,000평을 조성하였다. 모든 과정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사과는 고소득 작물이다. 학교급식과 군급식도 한다. 더욱이 서울, 경기라는 넓은 시장이 있고, 학교도 많고 전방이라 군부대도 많다. 그래서 판로에는 큰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나무를 키운다는 것이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 또한 이런 명언도 있지 않은가!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

# 자전거 타고 해남 땅끝 마을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자전거를 탄지 6개월 만에 뚝섬을 출발하여 설악산 한계령을 넘어 낙산까지 220Km 라이딩 완료 후 계획한 것이 저 멀리 해남 땅끝 마을을 '환갑 맞이 기념'으로 가겠다하였고 드디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겨 무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출발하여 해남까지는 465Km에 이르고 페달링한 지 26시간 10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해남 땅끝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또 일부 만류하는 지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날씨 예보도 밤에 비가 온다는데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마치 소풍 전날에 잠이 안 오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충분한 잠을 자야 될듯해 나름 잠자리에 들었건만 중간에 이미 꿈속에서 자전거 타고 천안까지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튼 잠을 설치고 일어나 걱정하는 여자 친구(?)를 뒤로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가니 50여 명의 함께할 카페 회원들이 팀복을 입고 분주히 준비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 출발~

애당초대로 목표는 땅끝 마을!

작년에 한계령도 넘었으니 해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GO이다. 모든 회원들이 준비로 부산하다. 옷 갈아 입고, 준비 운동하고, 사진 찍고~ 시원하게 반팔, 반바지로 시작한다. 컨디션 OK. 날씨도 이만하면 편찮다. 비록 이따 비가 올지라도...

나는 어쩌다 후미 안전요원으로 깜짝 발탁되어 맨 후미에서 X밴드를 들렀다. (후미 안전

요원 ; 교통 통제와 타이어 평크 났을 때 도움 주는 임무) 달리기 시작했고 좋은 느낌만 가지고 앞장선 고수님들의 페달링을 보면서, 가능한 한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 쪽으로 기어비에 신경 쓴다. 체력을 아껴야지!

## 수원, 평택, 천안, 녹산까지~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신호등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지방으로 나가면서부터는 평속 30Km로 계속 고고싱이다. 사실 일반인들이 30Km로 달리는 것은 잠깐은 몰라도 뉴룩치 않은 속도이다. 보통 자전거도로로 다닐 때보다 노면상태가 좋아 라이딩하기 수월했고 지나가는 어떤 시민들이 손 흔들어 주거나 차타고 가며 파이팅을 외쳐주는 덕분에 힘이 솟아오른다. 점심은 성환에서 해장국으로 때우고 한 시간 넘게 라이딩 후 한 번 휴식할 때마다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지 배가 터질 지경이고 태어나서 이렇게 이를 동안 많이 먹어보기는 아마도 메추리 기본 군사훈련 말고는 처음이다. ㅋㅋ



## 익산, 고창을 지나 영광으로~

익산에 도착하니 땅거미가 우리를 반긴다. 저녁을 먹고 모두 전후방 라이트를 켜고 야간비행(?) 준비 완료... 얼마나 달렸을까? 영광 지나면서 드디어 달갑지 않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기에 알립게도 북서풍이 아닌 남동풍이 불어오니 좌측 맞바람이고 그냥 싫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달리기도 그렇지만 자전거도 앞바람은 라이딩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 적이 우리 모두를 겹준다. 비도 싫지만 비바람 진짜 싫은데... 아니나 다를까 우비를 입었지만 비가 온몸을 적신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불어 시야가 영 안 좋다. ㅠㅠ





### 함평, 목포를 지나며~

다시 서너 명이 라이딩을 포기하고 준비된 지원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열심히 페달링을 하고 또 한다. 그런데 나한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에고, 왼쪽 무릎에 신호가 온다. 꿩, 어찌나? 앞으로 9시간은 더 달려야 하는데… 그래도 목포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하며 다음 휴식 때 잘 챙겨야지 하고 달린다. 휴식장소에서 에어파스를 마구 뿐리니 기분상 좋아진 듯한데 그것은 착각! 다시 무릎이 아파온다. 하는 수 없이 오른쪽 다리로 페달링을 하고 왼 다리는 당기는 상태로 지루하고도 외로운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구간마다 지루한 느낌이 드는 건 아파서 그럴까? 무릎에 신경이 쓰여 다른 것을 즐길 여유를 빼앗긴 탓이다. 가벼운 비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굵게 쏟아지고 많이 콧은 날씨 덕분에(?) 서서히 내 모습은 상거지의 형상이 되어간다. 날씨 탓을 하다 보니 다행히 무릎의 통증은 잠시 잊을 정도지만 그런데 시야가 좋지 않고 브레이크도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 이건 적신호다. 안전상 베스를 타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해낼 수 있어!!! 암! 다시 간헐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해서인지 칠혹 같은 어둠이 이어진다.

구간마다 주는 대로 다~ 받아먹었는데 그래도 밥이 들어가니 이거 정말 웃긴다. 선배들 말씀이 계속 먹지 않으면 라이딩 못한다니 그저 먹을 수밖에… ㅠㅠ 야식 먹고 나니 이제 오전 1시. 앞으로도 9시간 남짓?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남은 힘은 좀 있다. 3시가 지나니 고요하기

만 하고 이젠 지나는 차도 드물다. 불빛에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는 주변 숲들도 적막하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화적 패거리들처럼 우리는 잔차로 와~~~ 하고 내달린다. 놀란 동네 개들의 짖음이 뒤로 적막하게 사라진다. 좋다! 어깻죽지가 많이 굳었다. 서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게 팀워크인가 보다. 훨씬 낫다. ㅎㅎ 어려움을 겪으며 동지애(?)가 생기나 보다. 보급 품(?)이 기가 막힌다. 정신을 차리고 잘 보니 보급품 1톤 트럭이 뒤따르고 있다. 어떻게 다 준비하셨는지… 감탄한다. 물, 이온음료, 땡, 바나나, 포도, 사과, 초코파이, 양갱 등등…

### 빈바이 식당 옆을 지나며~

뽀빠이? 히히 그건 내 별명이네? 덕분에 공연히 힘이 더 생긴다. 그것 참~ 앞뒤에서 지원 차량의 음악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는 회원이 있으신 듯한데 신기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음이 온다는 것이… (예전에 생도 때 야간행군을 하면서 출던 생각이 스멀스멀….) 나는 아직 커피를 거푸 마셔서인지 생생하다. 어둠이 깊은데 정신은 더 맑아지는 것 같은데 왜일까?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젠 동트는 것을 봐야겠는데 자꾸 무릎이 더 아파온다. 그런데 낚였다! “이제 5구간 밖에 안 남았어”라는 어느 분의 말씀에~ 5구간이라고? 아직 2구간 더 갈 힘은 남은 듯하고 에라 해보자! 그 와중에 알파한 생각도 들었다.

이럴 때 평크가 나면 한 구간을 쉬면서 갈 수 있는데… ㅎㅎ 논리성을 잃었다. 생각해 보면 시간 대비 거리 계산이 바로 나오는데… 그냥 꼴딱 넘어갔고 하지만 잘 넘어갔다! 모든 것이 잔차처럼 흘러간다. 정지 샷이 없다. 새벽의 푸르른 힘도 하늘이 열려가는 순간도 속도 속에서 사라진다. 쉽 없이 달리는 것이 한순간 슬퍼졌고 슬플 거를도 없이 또 내달린다!

### 목포에서 해남 땅끝 마을로~

목포는 항구다!를 느껴볼 틈도 없이 이정표를 지나 제방 옆을 통과한다. 업다운이 연속이고 절로 굴러 주는 듯 하던 바퀴가 이제 힘을 요구한다.

### 해남 땅끝 마을로~

드디어 해남과 땅끝의 교통 표지판이 빛나게 보인다. 회원님 중에 이곳이 고향인 사람이



몇 명 되는듯한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이다. 이제 동이 트고 시야가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누런 나락과 코스모스가 멋있게 안 보이는 것은 아마도 요즘의 무릎 때문이리라. 땅끝 마을이 표지판에 등장한 지 꽤 된듯한데… 이제 우측의 바다 멋진 풍경을 따라 달리고 있다.

땅끝은 여전히 땅끝에 있나 보다. ㅠㅠ 잊은 지 오래됐던 무릎으로 살짝살짝 연락이 온다. 좋지 않은 징후다. 이제 마지막 업힐 하나가 있다는데 넘길 수 있을지… 에잇!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체력이 아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거워진 다리가 조금 신경 쓰인다. 기억에, 어느 라이딩 중에 약간씩 느낌은 있었지만 이런 통증이 오기는 처음이다. 보통 때 같으면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올라갈 그런 고개가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기에 아직도(???)이다. 하지만 정신력이 그 고개를 가볍게(?) 넘어가게 해 땅끝 마을 언덕을 드디어 넘었다!

### 최종 목적지 땅끝 마을 표지석으로~

드디어 언덕을 넘고 나니 저쪽에 있는 표지석이 눈에 들어왔다. 아, 업힐을 힘들게 하면 엑스터시의 순간이 온다고들 하는데 그 희열은 나를 비켜갔다. ㅎㅎ 끝까지 견뎌준 무릎에 일단은 안도한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다. 나를 끝까지 소진하지 않았음인가…? 하긴 아직 10% 정도의 힘은 남은 듯하다. 그렇게 465Km의 긴 여정이 끝이 났다.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비에도 나는 이제 평화롭다. 아주 대단히!



### 식당

ㅎㅎ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배려까지? 옷을 갈아입으니 날아갈 듯하다.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비에도 나는 평화롭다. 어쩌면 날씨가 나의 완주에 일조를 했을 것이다. 하나, 이게 웬일? 떡 벌어진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쿠데타다! 애구머니나, 허벅지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네? 정말 뭉쳐서 주인께 반란이다. 앉고 서는 단순 작업도 주변 사람의 팔뚝을 빌린다. ㅎㅎ 살짝 염살도 보태서!

### 에필로그

얼떨결에 해냈다. 친구 따라 구경 갔다가 오히려 내가 길거리 캐스팅된 듯한 느낌이다.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한 구간, 한 구간… 이렇게 왔고 오다 보니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왔다. 무릎에 신경 쓰다 보니 엉덩이 아픈 건 생각도 못했네. ㅋㅋ

생각해 보면, 잘 짜인 틀 안에 내가 있었던 듯하다. 그 틀을 짜 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기 위해 나머지는 물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그 일각을 즐기는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자. 여기서 아~주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꾸벅^^

그런데 주는 대로 날름 날름 받아먹다 보니 1톤은 먹은 듯한 느낌이고 지금은 얼굴이 먹고 싶지 않은 찐빵처럼 통통 부었다. 전라도 사투리를 빌어본다.

“이거 다~ 어쩔거여, 책임 지시요잉~!” 이제 더 이상 내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안하리라! 환갑 기념 이벤트는 이것으로 끝이니… 이미 10여 년이 지나서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 공사 총동창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필승!!! ➡



# 국력이 강해야



김국휘(25기)

먼저 32년 가까이 공군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방면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조국의 영공수호와 국방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틈틈이 주어진 기회로 여러 국가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거나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분들의 격려와 지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 또한 해외근무 기회는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과 시야를 확충시키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국력이 밀반침해 주는 국가위상의 중대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 계기도 되었다.

중국에서 무관으로 근무(96~99년)하던 시절, 한국을 보는 일반 중국인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부러움 그 자체였고, 되돌아 보건데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면서 그들로부터 최상의 예우를 받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것은 그 당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를 현격한 경제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그들 국민에게 “한국을 경제발전을 위한 둘 모델로 삼아라”라는 말을 했겠는가. 우리나라 위상의 막강함에 어깨 힘주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

IMF가 닥쳤을 때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두 번 놀랐었다. 그 한 번은 IMF가 터지는 순간 그들은 “한국이 IMF를 당하다니! 한국도 별 수 없구나”라고 놀라면서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 후 우리 국민들 개개인은 가정에 보관 중이던 크고 작은 금붙이를 자발적으로 들고 나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이러한 장면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중국인들은 또 한 번 더 놀랐다. “세상에 이런 민족도 있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IMF를 극복하다니!”라고. 이러한 그들의

평가를 보면서 국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가를 피부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1997년 초 전 북한노동당 비서요,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던 황장엽씨가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북경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체류하였던 33일간은 아국 대사관의 주재관들이나 우리 교민들에게 살벌하고 초긴장되었던 시간이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북한의 특수공작요원들이 북경에 대거 잠입했고 아국 대사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암살지령 첨보가 있으니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을 24시간 무장하여 철통경비를 해주었고, 중국 당국의 우호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어려웠던 시간을 무사히 넘긴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서로가 혈맹지간이긴 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국익에 절대 필요한 존재였으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은 중국이 그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었다고 회고된다.

이스라엘 무관으로 근무(2004~2007년)하면서 알게 된 전직 은행원이었던 한 유대인 지인이 2007년 한국방문의 기회를 가져 며칠 동안 같이 서울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는데 떠나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은 잠자고 있어 Israel is sleeping”라고 실토를 한 기억이 난다. 다니면서 우리의 발전상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에 상대적으로 뿌듯해진 내 가슴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다. 또 다른 유대인 어느 교수는 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이 합치면 세계 최강국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석권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시스템 수출은 세계 4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금융, 언론,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다수 배출한 국가가 아니던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국민이나 국가안보에 침해를 받았을 땐 지체 없는 피의 보복을 불사하는 겁 없는 소강국이다. 이런 세계 내로라하는 유대인의 부러움을 사는 우리나라,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전역 후 나는 미7공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로 5년여 근무하는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장기거주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하였고, 은퇴 후 최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현지의 한 사립 고등학교의 한국어지도 강사로 얼마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면서 한국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10대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도 우리의 K-POP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고 흥미에 찬 관심을 보이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곳 사립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와 함께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국위선양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지내는 한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감동되어 “한국은 말레이시아인에겐 선망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 말은 나에게는 자긍심 넘치는 큰 활력소가 되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제3국인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온 자들이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이들을 마주할 때는 늘 마음이 찬하다.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기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큰 소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회의 땅으로 비쳐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열심히 살아왔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경이적 결과를 낳았다. 국력이 강하면 우리 국민, 특히 고국을 떠나있는 해외거주 교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애국심은 저절로 마음 한 구석에 튼튼히 자리 잡게 된다. 우리 모두는 교만과 방심을 멀리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을 더욱 신장시키고 다져가야 할 것이다. ♣



성일환(26기)

##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



### F-15K 7,225km를 날아가다

2013년 8.2일 04:30, 6대의 F-15K 전투기가 대구기지의 새벽하늘을 가른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가에 눈망울을 맷개 하고 전투기 꽁무니에서 뿐어내는 긴 불기둥을 만들면서 머나먼 알래스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른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9시간이라는 대장정의 길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도전이기에 전투조종사들은 가슴이 설레고 임무완수에 대한 비행지식을 총동원할 것이다. 또한 항로상의 다양한 기상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항공기에 이상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고, 바다와 구름, 동료기와 급유기를 벗삼아 전/후방조종사 간의 숨소리를 수없이 들어가면서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극복해 갈 것이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 활주로에 살포시 착륙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10.1일 19:00(현지시간), 태극마크를 단 6대의 F-15K 전투기는 아일슨 공군기지에 무

사히 착륙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먼저 도착한 우리 정비사들과 지원요원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한 영광된 날이다. 얼마 후 태평양 미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알래스카에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공군의 소식을 들었다. 공군사령관은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전투기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연합 훈련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훈련참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공군의 임무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날 하와이를 떠나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로 날아갔다. 때마침 F-15K 전투기



가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다. 머나먼 알래스카 하늘에서 우리의 전투기가 날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 벅차고 자부심이 절로 느껴졌다. 주기장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가 우리 F-15K와 나란히 주기되어 있었고, 개선된 탑재장비 외장과 짙은 항공기 도색은 항공자위대 항공기보다 무게감도 더 있어 보였다. 정비사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고, 조종사들의 걸음걸이도 당당하다. 우리 요원들 모두가 멋있게 보이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훈련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합동전술 공중전투훈련이다. 여름철에 연 3회 운영 되고 우리 공군은 2001년에 처음으로 수송기가 참여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낮의 길이가 너무 짧기도 하지만 엄청 추워서 비행 훈련을 할 수가 없다. 비행단장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기지 내 별도의 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란다. 알래스카의 여름철은 비행훈련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광활한 전투훈련장은 고도, 속도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무기체계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한되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로 신규 도입된 공중급유기와 함께 장거리 비행능력도 지속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을 열다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하늘 길은 일본열도가 감싸고 있다. 일본열도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당시 한일관계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다. 일본을 경

유하여 북태평양으로 비행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어느 날 담당참모가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좁은 쓰가루 해협 상공이 국제항로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한다. 일본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지금까지 외국 항공기가 일본 내해나 다름없는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적이 없단다. 만약 통과를 시도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F-15K전력을 미 공군의 편대군으로 편성하여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를 앞세우고 최단거리 경로인 쓰가루 항로를 통과하기로 최종 결심하였다.(2회차부터는 일본열도 동쪽으로 우회하여 비행함.)

대구기지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비행경로가 확정되고, 소요예산, 군수지원, 미군과의 협조 등 모든 일이 참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종사들의 장거리 비행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공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고민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미 공군은 수시로 공중급유 하에 장거리 비행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공군이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 미 공군과 공중급유 훈련도 많이 해왔고 자격도 다 갖추었는데… “혹시 비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고민을 더하게 만든다. F-16 조종사 출신인 당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걸프전 참전

시 F-16전투기를 몰고 14시간동안 비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연히 단좌로 비행했다.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그 말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조종사들의 장거리 비행에 대한 고민은 더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을 열기 전에 우리 공군은 2012.7월 영국에서 블랙이글스의 멋진 에어쇼를 선보이면서 해외비행이라는 좋은 경험을 얻었다. 영국에어쇼의 영광은 이듬해 싱가폴 에어쇼(2013.2)에 참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TA-50 항공기는 대만, 필리핀, 브루네오를 경유하여 동남아시아로 가는 하늘길을 먼저 열어 놓았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랙이글스가 싱가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영국 하늘에서 세계 제일의 에어쇼팀으로 평가받은 블랙이글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인도네시아 공군도 우리나라가 수출한 KT-1항공기로 에어쇼팀을 만들어 참가했다. 싱가폴 하늘은 T-50블랙이글스와 KT-1 에어쇼팀이 완전 장악했다.



영국에 이어 싱가폴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블랙이글스의 해외 활동과 TA-50 수출 관련 장거리 비행경험은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공군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이내다. 2019.1월에 그토록 염원했던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었다. 도입된 공중급유기는 연료뿐만 아니라 일반 여객기와 같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충분한 좌석(300석)과 일정량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이다. 2020년에는 정찰비행단도 창설되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공군 항공 전력이 선진국 형 구조로 상당수준 갖추어 졌다고 생각된다.



블랙이글스의 해외원정 에어쇼 참가와 T-50항공기 수출, 수송기의 해외수송 임무, 그리고 F-15/16 전투기의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참가 등은 우리 공군의 수준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 군사력 등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 없고,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세계 평화유지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UN평화유지군소속으로 지상군이 세계 도처에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 전력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한반도를 벗어난 비행 경험은 수송기를 제외하고는 오래 되지 않았다. 알래스카로 가는 하늘길뿐만 아니라 동

남아시아지역까지 큰 제한받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정립되고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군으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세계 속의 공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본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



권석원(27기)

### 後見之嘆

#### 국비장학생, 봉급지급, 해외유학도 가능!!!

길거리에 붙은 생도모집 포스터에 혼혹되어 주제도 모르고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최종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낙방!!

“아니? 어떻게 사관학교가 이런 실수를 하지?” 시골에서 그럭저럭 영리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살았는데 “어째, 사관학교가 인재를 몰라봐도 유분수지!” 오기가 생겨 다음해 다시 도전하여 겨우 턱걸이로 사관학교에 입학은 했습니다.

그러나 생도생활이란 이런 유치한 자신감과 자유분방을 억제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생도생활은 꽤나 피동적이었습니다. “에라이, 수업도 들어준다, 훈련도 해 준다, 졸업도 해 준다” 등등. 이런 피동성이 깨진 것은 아마도 비행훈련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비행도 해 준다”에서 솔로비행이 닥치자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지만… 때는 늦었고 결국 중등비행 솔로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대령진급 심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니, 공군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인재를 버리다니!” 진급을 위해 이런저런 보직과 경력관리, 학벌구비도 했고 여러 차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나름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도 기여하고 스펙 관리를 아주 잘 해왔다 생각했는데… 오직 이 한 길로 달려 왔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것 버리고 공군이나 국방부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아니면 대학교에 자리가 없나 인맥 찾아 쫓아다녀볼까? 아니야! 자존심이 있지! 그냥 낙향해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저런 번민으로 밤잠을 설치던 와중에 지나가던 선배 사모님의 뉴질랜드 이민 이야기





를 듣고, “그래, 낙향해서 농사짓나 이민 가서 농사짓나 매 한가지가 아닐까?” 하는 유혹이 혼란스럽던 마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 거기로 가면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마음 편히 살지도 몰라”

이처럼 이민 생활은 참으로 우연하게 결정되었고 답사 한 번 없이 짐 챙겨서 비행기에 올랐고 이후 거의 20여 년을 낯선 뉴질랜드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니

뉴질랜드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스스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아침은 새소리로 일어나고 어둠이 짙어지면 잠을 청하면 그뿐입니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공업 시설이 거의 없어 공산품의 가격은 비싸지만 대신에 공해를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공간적·시간적 여유가 참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 모든 상점과 가게들이 오후 4, 5시에 문을 닫으니 저녁/밤문화가 없고 현지 꼬맹이들은 거침없이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고 은행이든, 관공서든, 상점이든 모두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일상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편안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사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꽤나 불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난 이후의 저녁시간과 농한기의 비오는 겨울밤을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헛간이나 창고에 틀어박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거나 시시콜콜한 가구나 가재도구를 만들며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것 또한 사람 나름이고…, 저는

저녁 한가한 시간이 되면 60~70Km 운전을 해서 시커먼 짜장면에 반주 한잔이 늘 고왔습니다. 값싼 골프장이 즐비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여기 와서 배운 낚시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보트를 스스로 운영하기 어려우니, 상업용 낚시 배를 타야하고 이를 위해 기상체크에 인원 구성, 낚시 경비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토큰데, 사실 저는 손이 아무지다거나 맵지 않은 편이라서 무얼 만들고 조립하고 몸을 쓰는 일이 남보다 서투르고 게으른 편입니다. 결국, “아! 역시 나는 인문형 인간이지, 자연과학적 인간은 못 되는구나”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가끔은 “뉴질랜드 적성이 아니구나” 합니다. 더불어 저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시작한 뉴질랜드의 생활은 사실 아내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온전한 가정주부로 가사활동으로만 살아 왔을 터인데… 이 나이 즈음 다들 해외여행이나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벼슬을 하겠다고 이민에 동조하여… 시커먼 작업복에 낡은 작업장갑을 끼고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며 일을 해야 하는, 장인장모까지 여위어 사고무친이 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픈 마음을 어디에 숨겨 두어야 하나 난감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물론 이민을 온 이후 그리고 제대로 제가 철이 들어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과 세파를 함께 헤쳐 온 전우애(?)가 생기기 이전까지 우리 부부는 많이도 싸웠습니다.

토마토 잎을 가위로 칠 것인지 칼로 할 것인지? 오른쪽부터 시작할지? 왼쪽부터

시작할지? 토마토 열매 다듬기를 아침에 할지 오후에 할지? 매사에 부딪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해서 같은 일을 오래 함께 하다가 보니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참으로 다양하구나.’하는 인간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 생긴 것이지요. 더불어 돌볼 틈이 없어 방목(사실상 방치?)해 둔 애들은 나름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독립심, 자립심은 가진 것 같답니다. 따라서 저의 이민생활에 스스로 성적을 매긴다면 아마 어중간한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으로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겠다던 저의 작은 자존심은 오롯이 지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참 많은 희생을 강요했고, 가족들의 헌신위에 공군에서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허공에 날려 버린듯한 어리석음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의 궤적을 이렇듯이 돌이켜 보니, 사관학교에 응시를 한 것이나, 동기생 소개로 아내를 만난 것이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것이나 제 인생의 참 결정적인 고비들은 모두 스스로 잘났다던 제 자존심이나 알량한 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정지어졌다는 자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던 선친의 말씀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의 범주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상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삼가며 살라는 깊은 뜻이었겠지요. 더불어 학문의 길에 들어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해 주신 “자네가 뭘 모르는지는 자네만 모를 수도 있다네”하는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두고 조신하고 겸손하게 이 삶을 채워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28년여 세월을 보낸 공군이 제게 가르쳐준 아름다운 교훈이니까요. ➔



# 해외 대학 파견 객원교수로서의 활동 소감



신영덕(28기)

나는 공군사관학교에서 24년간 생도들을 가르치다가 2008년 6월 30일에 예비역 공군 대령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전역 후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서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로 다시 파견되어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온지 12년이 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어떻게 객원교수가 되었으며 객원교수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역 후에 무슨 일을 할까 모색하던 중 나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한국어 혹은 한국학을 가르칠 객원교수를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객원교수로 선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였기에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기대도 되었다. 2009년 2월 19일, 아내

와 함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행 항공기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에 봄늦게 도착한 나는 기숙사에서 하룻밤 잔 뒤 이튿날 학생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이를 후부터는 강의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을 좋아했다. 덕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한국문학사〉 강의는 학생들이 어려워했다. 내용이 쉽지 않은데다가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가 없으니 더 그렇다고 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기가 끝나자마자 나와 아내는 학교 어학원(BIPA)에 등록하여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년 만에 3단계 과정을 모두 수료했다. 이제까지 여러 외국어를 공부했지만, 회화는 거의 하지 못했다.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주로 눈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것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대학

이 재미있었다. 강의 시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좋았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한국문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여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원,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한국인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나시오날 대학교 등에서 주로 한국문학이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한류, 청소년 진로 문제 등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심사를 맡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호리손(HORISON)』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잡지가 있다. 한국전쟁소설에 대한 나의 문학 평론을 인도네시아 대학교 로스티뉴 교수님이 인도네시아로 번역해 주어서 원고를 보냈더니 게재되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 잡지에 실린 최초의 한국문학 평론이 아닐까 싶다. 이외에도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한인신문과 잡지 등에 여러 번 글을 게재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복단대학 및 전남대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이후에는 『한국명작의 이해와 감상』과 『한국문학사』라는 제목의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야기』를 기획 편집하여 책으로 출판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종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 집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인도네시아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의 임기는 2015년 1월 말까지였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외국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생각이 많았다. 아내는 84세의 노모를 모시고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고 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어교육과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不敢請 固所願’이라고 나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는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이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우리나라 교원대학교와 유사하다. 작년에는 국립대학 전체 중 2위를 했다고 한다. 그리



한국어 교육 방법 워크숍

고 비동맹회의가 열린 곳으로 유명한 도시 반동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때에는 수도였던 곳이다. 반동은 자카르타와 달리 해발 700미터쯤 되는 곳에 있어서 1년 내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이다. 이곳에는 한국인이 5,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공군사관학교 후배와 가족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43기 후배 부부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민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50기 후배 부인은 이곳에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을 잘 양육하고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며칠 후 나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를 찾아가서 당시 어문학대학 학장이었던 디디 교수를 만났다. 현재 대학 부총장인 그는 한국어교육과를 개설하고 싶으니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먼저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라 한국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디 교수와 함께 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와 한국국제협력단장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다행히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몇 달 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객원교수 1명,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한국어 전공 단원 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나에게 객원교수로 재파견 되고 싶으면 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2015년 6월 경 나는 시험에 응시하여 객원교수로 다시 선발되었다. 이후 7월에 반등으로 이사했다. 학과에서는 한국인 강사 3명을 현지 채용했다. 이때 한국어 교원자

격증을 지니고 있던 아내도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다. 이후 우리 부부는 활동을 거의 같이 했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업 계획서도 작성하였다.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학교육학회(AKSEIN)>를 결성하여 교수 간 학술정보 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한국어, 한국학 교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한국학 교육의 발전을 꾀하였다.

이후 나는 신생 한국어교육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7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외 대학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지원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나는 사업 책임자로서 2020년 6월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내에 한국



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3년 동안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관련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집도 발간하였다. 또 한 인도네시아 설화와 한국 설화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여 이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와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윤동주의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2018)를 인도네시아어로 공동 번역하여 인도네시아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어 교수, 교사, 학원 강사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자 협회(AJARI)>를 결성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나는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년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에는 회원인 인도네시아 교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어로 된『한국사 이해』(2019),『한국문학 이해』(2020)를 공동 집필하여 출판하고 출판기념 행사를 통해 기쁨을 나누었다. 인도네시아로 된 교재를 발간하고자 했던 숙원의 사업이 11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외에도 나는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한국문학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이후에는 한 학기 강의 내용을 2주 동안 매일 강의하기도 하였다.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 2019년에는 수라바야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윤동주의 생애와 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



였다. 이때 시 낭송을 듣다가 감격이 되어 눈물이 나서 당황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육부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소설 “라스까르 뿔랑이(무지개 군단)”의 무대인 블리똥에 갔던 일, 아세안 문학자 대회에 한국 문인 대표로 참석하게 된 일 등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객원교수로 있는 동안 나는 여행도 많아 했다. 보통 아내와 함께 했지만, 동료 교수나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도 여행을 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수마트라의 또 바 호수, 룸복 등에 가 보았다. 그리고 해외로는 프랑스, 중국, 카자흐스탄, 미국 등에도 다녀올 수 있었다. 군에서 근무할 때



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할 수 없었는데, 객원교수가 된 후로는 1년에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처럼 나는 해외 대학 객원교수로 파견되어 보람을 느끼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국에서 유학한 후 돌아와 교수가 되고,

나와 함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저

서를 출판한 일 등이다. 2020

년 12월에 나와 아내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로부터 제1회 명예상을 받았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상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 특히 곁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린다. ➤

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할 수 없었는데, 객원교수가 된 후로는 1년에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처럼 나는 해외 대학 객원교수로 파견되어 보람을 느끼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국에서 유학한 후 돌아와 교수가 되고,

나와 함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저

서를 출판한 일 등이다. 2020

년 12월에 나와 아내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로부터 제1회 명예상을 받았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 상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진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 특히 곁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린다. ➤



이두희(29기)

## 인생 결과 보고서

모델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부터가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군 생활 동안 인생모델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신 선배님은 한둘이 아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직접적인 힘과 용기를 주신 분도 있지만 대대장과 전대장 시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정신적 모델도 있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만약 그분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였다. 그 덕분에 그리 길지 않은 지휘관 시절이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기반은 사관학교 교육에서 마련된다. 사관학교 지휘관과 윤육요원만큼 장교로서의 기본소양을 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도 특별했던 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본론부분을 지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은 생도시절 담당 중대장이셨다. 4학년 생도로 승급한 직후 음주사건에 휘말려 퇴교직전에 있었을 때 그분은 극적으로



나를 구해내셨다. 삼금(三禁)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칙을 어긴 이상 일말의 재고나 선처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교육적 열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4학년생도 35명+α가 안양의 ○○ 식당에서 식사도중 음주… 세부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할 것” 이란 전문이 학교에 접수되면서 밝혀진 이른바 ‘하야비치(술의 상표명) 사건’이었다. 곧바로 훈육회의가 소집되었다. 훈육회의에서는 38명 전원을 퇴교시킬 수는 없으니 모두 1급 비행(非行)으로 처벌하되 사건 주동자인 중대임원 1명을 퇴교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분은 한 제자의 인생을 가벼이 보지 않고 지휘관과 훈육요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더구나 생도전대장께는 눈물의 호소를 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어떠한 동기로 외부에서 단체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교칙에 위배되는 음주로 이어졌는지 등 중간 과정은 의미가 없다. 단지 단체로 교칙을 위반하였고, 훈육회의에서 주동자 퇴교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교육자의 열정 덕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처음 1주일간은 4학년 전체가 일과 후 1시간 동안 대강당에서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어서 한 달 동안 4중대 4학년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오전오후 2시간씩 단독군장 구보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봄은 주말마다 비

가 내렸다. 장대비를 맞으며 연병장이 온통 진창이 되도록 돌고 또 돌며 하야비치 구령을 외쳤다. 그 다음은 개인에 대한 처벌로서 벌칙보행이 시작되었다. 결국 벌칙보행은 1학기가 끝나도록 다 채우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4학년 근무생도 보직은 물론 당직사관근무도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채 생활의 황금기인 4학년 시절을 마쳤다.

그 당시 나에게는 퇴로가 없었다. 퇴교가 되면 2년 간 군복무를 마쳐야 하고 그 후엔 시골로 내려가 농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 6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누군가 부모님을 거들어 농사를 짓어야 할 형편이었다. 사관생도 신분에서 농군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품어왔던 청운의 꿈과는 한참 먼 길이었고, 그 길로 들어섰다면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과 방황이 따랐을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퇴교를 대신하여 겪어야 했던 고통도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내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신적 자극이 되기도 했다. 인생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한 현실이 때론 너무나 혹독하기에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로 위로하고 수긍해야 한다. 어쨌든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제2막이자 본론부분의 시작이었다.

졸업 후 그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그분은 민간항공조종사로 진로를 바꾸셨고 나는 공군에 계속 남았다.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분 앞에 열심히 살고 있다며 나설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저 언젠가는 다시 만나 뵈어야할 인연으로만 여겼다. 그러다가 2년 전 사관학교 비행교수를 끝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의 연락처를 접하게 되었고 가슴 벅찬 전화를 드릴 수 있었다. 지난 40년간의 경과를 그분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중도에서 갈라져 약간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살아온 세월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어떠한 자

세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분은 반대를 무릅쓰고 나의 퇴교를 온몸으로 막고 나섰을 것이다.

그분과의 첫 통화가 끝난 후 곧바로 나의 군 생활을 정리한 수필집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를 보내드렸다. 그분께 드리는 그동안의 ‘인생 결과 보고서’였다.

그분, 김만철 중대장님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 어쩌다 한의사



차종환(29기)

**“Did you say Needles?”**

“지금 침(針)이라 했어요?”

네, 덩치 큰 미국 사람들 유난히 침(針; Needle)을 무서워하죠.

이곳 미국 동부 뉴욕 주의 Middletown이라는 중소 도시에서 한의사, 정확히는 Licensed Acupuncturist(침술사)로 일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제 29기로 임관한 차종환입니다. 상대방의 나이 묻는 것을 실례로 여기는 이곳 미국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나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의사가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인이었고, 전역해서는 사업가로 변

신했다고 들었는데, 느닷없이 한의사 명함을 가지고, 그것도 미국에서 생소한 한의사로 일하고 있으니 그런 질문은 당연히 많이 듣게 되지요.

때는 전역하고 3년째, 한창 사업을 하고 있던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상 가깝게 지내던 네덜란드의 Jaap H.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에너지 연구소인 ECN(Energy Research Centre of Netherlands)의 시니어 엔지니어였죠. 어느 날 비즈니스 차 한국을 방문하는 그를 인천공항에서 픽업하고 호텔에 내려주었더니 오후 3시경, 그러니까 저녁식사 이전에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자

생한방병원’에 본인이 미리 예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그때 제가 되물었죠, 한방병원이 맞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의아해하면서 ‘왜 한의학 본고장에서 한방병원 찾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한의학이 대체의학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라 한국에 오는 시간이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Jaap은 운동으로 수구(水球, water polo)를 즐기는 친구였는데, Frozen shoulder, 즉 오십견(五十肩) 증세로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답니다. 자기네 나라 네덜란드에서 주치의를 비롯한 여러 의사들에게 2년간이나 치료를 받아 보았지만 실패하였다고요. 그래서 한방치료를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것 이었답니다. 그 후 몇 번 치료 후에 예후가 좋아 잘 회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우리 둘 간에는 많은 논쟁과 토의가 있었는데, 그 때는 주로 제가 한의학에 대해 비판적이었죠. 그래도 매년 네다섯 차례 찾아오는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탐nik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는 일찍 마치고 이 친구와 둘이서 대구 ‘약령시장’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한의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과 제가 통역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의사가 되었을까? 스스로 되물어 보기로 합니다. 한 가닥 짚히는 실

마리가 있는데, 아마도 제 가족력에 얼마간의 유전자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은 제 외조부께서 고향에서 유명한 한의사이셨습니다. 작고하신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고향에서 ‘서의원’ 하면 누구든지 아실만한 분이었는데, 가업을 물려받을 외삼촌께서 요절하시는 바람에 대가 끊기게 되었건만, 생각지도 않게 외손인 제가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랜 기간 생각해 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앞으로 기약 없이(?) 남아 있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품어 주고 성장시켜 주었던 공군이나, 전역하여 몸담았던 반도체 회사 모두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된 직장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익숙하게 적용해 온 조직생활이 저를 편안하게 해 주었지만 언젠가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늘 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직문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나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제가 배운 만큼 남에게 한껏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생 설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가장 체계적이고 강사진이 든든했던 ‘뜸사랑’에 등록하게 되었고, 서울 근교 판교에 살고 있던 저는 한강 건너편 서울 청량리에 있는 교육관으로 공부하



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뜸사랑’은 작년 말 105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구당(灸堂) 김남수 옹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모두 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한의대를 나오지 않으면 침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자리 잡고 있던 중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나이이지만 더 늦기 전에 유학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이제 막 미국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한의학을 그곳에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기초는 한국에서 닦았으니, 제대로 된 자격을 얻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South Baylo University(Anaheim, CA 소재)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MSAOM(Master of Science in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즉 4년의 한의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국가고시를 통과한 후 2019년부터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의사 국가고시는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각 주마다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주



는 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자격증(License)을 발급해 주는 주가 있고, 두 과목, 세 과목, 또는 네 과목 모두 통과한 이후에도 별도로 그 주만의 추가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과목은 한의학 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 경혈학(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양방(Biomedicine), 그리고 방제학(Chinese Herbology) 등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방(Biomedicine)이 많은 수험자들을 애먹이는 과목입니다. 이는 Medical doctors들과 협업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Western medicine에 대한 탄탄한 지식,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다양한 약(drugs)의 명칭과 효능, 부작용 등을 익히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과목을 모두 통과한 저는 초기에 어느 곳에 정착할지 몰랐고, 또 조금 욕심을 부리기도 해서 여러 개 주에 응시해 지금 7개 주에서 침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뉴저지 등). 여러 주를 방문해서 서로 비교 검토한 후에 결국은 이곳 뉴욕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동부 뉴욕 주의 조용한 중소 도시인 Middletown이라는 곳입니다. 뉴욕 맨해튼(Manhattan)까지는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맨해튼까지 버스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일종의 Bed Town 도시라 할 수 있죠. 최근

COVID-19 Pandemic 사태로 도심을 빠져나와 근교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곳이라 한의학에 대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한의학, 실은 우리에게 한의사라는 용어가 익숙한

데, 실제로 미국에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Licensed Acupuncturist, 즉 침술자격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많은 약물과 과잉진료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이제는 대체의학으로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활발히 운용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용기를 내어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Community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 현지인들 모두에게 생소한, 한의학 치료방법에 겁먹지 않게 잘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익숙지 않은, 몸에 꽂아넣는 침(needles)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는 등에 남아 있는 부항 자국을 본 여자 친구로부터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혼났다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미국인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생소한 내용이지만 들어 주려



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약 5분 정도로 브리핑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개 한 번은 시도해 보겠노라 동의를 하죠. 그러면 한국에서 배우고 익혔던 것처럼 빠(?)세게 하지 않고 살살 다룹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감을 갖게 되면 고정 손님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Veteran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찾아보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지만, 가끔 Korean War Veteran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럴 때는 늘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병원 CEO와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영원한 모군(母軍)인 공군에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골 뜨기에서 국제 신사가 될 수 있도록 성장 시켜 주었고, 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전거밖에 모르던 제가 첨단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재밌는 사실은 전투대로 배속된 이후에야 뒤늦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다는 것이죠. 그때는 학원도 마땅히 없을 뿐더러 차를 운전해 볼 기회가 없으니, 부대 지프차로 오르막

길 미끄러지지 않는 연습을 몇 번 하고 시험을 치렀죠. 당시엔 수동 기어를 사용하던 때라 오르막에 셔다가 밀리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게 난제였습니다. 또 하나 공군에 큰 혜택을 입은 것이 바로 해외 유학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전자공학 분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만 아니라 전역 후 사업을 할 때에도,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당 김남수 옹이 뜻 사랑을 통해 제창했던 것처럼, ‘배워서 남주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 있을 때에도 지방과 캄보디아 같은 제 3국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는데, 이곳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곳 지역 재향군인에 대한 봉사활동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재작년까지 머물렀던 베지니아 주에서 일했던 경험을 보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지니아에서 만났던 몇몇 재향군인들은 제가 언급하는 군 경력을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었지만 어느 나라 군인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했느냐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다행히 뜻을 같아하고 있는 병원 CEO가 도와주고 있어 쉽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선후배님들이 많으실 텐데, 부족한 제 얘기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의 제가 있도록 품어 주고 키워 준 모군(母軍) 공군에 거듭 감사하며 이만 줄입니다. ➡

## 지금은 독수리 구호가 필요할 때! 독수리 구호 준비!



김정수(43기)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점에서 치러진 제68기 졸업식은 감동과 환희 그 자체였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의 축하영상을 보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친지를 초청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들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졸업생들의 가족들이 졸업생들 몰래 축하영상제작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다. 이러한 가족들의 축하영상은 소수 몇 명만이 알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채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축하영상을 보는 순간 졸업생뿐만 아니라 졸업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68기들이 가족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나도 생도전대장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났었다.

졸업식에서 가장 환희를 느낀 순간은 공식행사가 끝나고 연병장에서 바로 독수리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진 그때였다.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였던 기념 촬영이 끝나고, 신임 소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공군사관학교 재학 생도들이 정열하고 있는 연병장으로 안내했다. 재학생들은 대통령 내외를 향해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생도들로 둘러싸인 대통령께 신임 공군소위 대표는 “대통령님, 힘든 시기에도 저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생과 재교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공군사관학교의 응원구호를 준비해봤습니다”라고 소개하며, “다 같이 독수리 구호준비”를 외쳤다. 이에 신임 소위들과 재학생들이 “아악”이라고 외치며 준비했고, 이어 “독수리 구호 시작”과 함께 수백 명의 생도와 소위들은 공군사관학교 독수리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독~수리 독~수리  
쓸어 쓸어 쓸어 쓸어  
싸악 쓸어  
뭉쳐 뭉쳐 뭉쳐  
싸워 싸워 싸워  
이겨 이겨 이겨!!

독~수리 독~수리  
쓸어 쓸어 쓸어 쓸어  
싸악 쓸어  
수리수리 마수리 싸악  
무적공사 필승공사  
해이 해이 해이 야~



사실 독수리 구호는 졸업식 하루 전날도 아닌 행사 당일  
날 오전에 단 한 번의 연습만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준비를 모두 마친 졸업식 하루 전날 저녁에 교장  
님께서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졸업식인  
만큼 독수리 구호를 대통령님과 국민들을  
위해 외치자는 제안을 하셨고, 이에 졸  
업식 당일 아침에 명예광장에서 독  
수리 구호 연습에 돌입했다. 당시  
막 가입교를 끝낸 1학년은 독수  
리 구호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재  
학생들도 삼사체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 구호를 많  
이 외쳐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대장들과 훈육관들  
이 명예광장이 떠나가라 시범  
을 보이고, 생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여 완전  
한 팀웍을 이루며 독수리 구호를  
준비하였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대  
통령님과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마음을 모아 어느 때보다 힘차고 감동  
적인 독수리 구호를 준비한 것이다.



68기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졸업생 가족친지 초청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참석 여부를 졸업식 며칠 전에서야 결정을 하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도들이 대통령님과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는 독수리 구호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응원구호였으며, 공사 졸업식 이후에 다른 사관학교에서도 응원구호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을 응원하였다. 감동과 환희의 68기 졸업식 영상은 21년 2월 현재 62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는 독수리 구호가 필요하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쓸어내고 뭉쳐 싸워 이겨내기를 기원한다. 독수리 구호 준비! 쓸어 쓸어 쓸어 싸악 쓸어! 뭉쳐 뭉쳐 뭉쳐! 싸워 싸워 싸워! 이겨 이겨 이겨!

#### 유튜브 영상

문재인 대통령도 놀랄 정도로 감동 모멘트  
가득했던 행사! 축하영상과 독수리 구호까지  
포인트만 담았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 임관식 현장,  
<https://youtu.be/Tb7p97IIKeU>

## 희망과 사랑을 찾아



김광희(30기)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었나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시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니 삶의 행동환경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간 날 때 한번 보자고 말하였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지 오래가 되었다.

자칫하다 요원한 추억이 되어 버릴 몇 해 전 동기생 송년회가 문득 그립다. 연어 가 매년 모친으로 희귀하듯 우리들의 아지

트 공군호텔에서 끊쳤다. 마스크는 물론 주 먹치기 악수는 태곳적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반갑다고 부둥켜 안았고,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신나게 트위스트 추던 그 시절…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자연의 변함 없는 순환과 이치에 따라 코로나도 떠나가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눈 내리는 창가에 어울리는 곡 이 듣고 싶어진다. 주민센터 통기타 동호회에서 합주하던 노고지리의 “찻잔”이다. 통기타 6번 줄과 5번 줄을 교호하는 베이스음의 전주는 언제나 옛 추억을 소환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시나브로 마

시는 커피와 함께 동화책 **파랑새** 이야기를 반추해본다.

2009년 6월 중순에 방문하였던 미국 시애틀 해변 인근의 스타벅스 1호점! 생각보다는 협소하고 특별한 게 없었으나, 1등은 기록이 바뀌나 1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5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긴 행렬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을 보았다. 파란색 물병 블루보틀 커피매장이란다. 로고도 정말 단순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뭐 특별한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있지? 그때는 몰랐다. 여기는 커피 열매 갈아낸 가루에 손으로 직접 물을 부으면서 걸러내는 핸드드립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관광을 마치고 마셨던 85°베이커리 씨솔트(sea salt) 커피! 문자 그대로 섭씨85도 온도로 데운 소금 커피이다. 원조는 대만이라고 들었는데 흔들어서 마실 수 있도록 컵의 윗부분이 비닐로 씌워져 있다. 소금이 들었다고 짠맛이 나지는 않았고 묘한 단맛이 미각을 자극하였다.

환갑기념 영국 여행을 하던 중 마주한 플랫화이트(Flat White) 커피! 코스타(costar) 카페에서 마신 플랫화이트는 조금 진한 라떼 커피 맛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커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것은 강릉의 테라로사 카페를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커피 생산 공장이다. 그 규모는 요즘말로 넘사벽이다. 한편 구 공장건물을 개조한 테라로사와 상반되게 야산에 자리 잡은 원주의 사니다 카페는 역시나 상상 초월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카페에서 면 산능선까지 볼 수 있으니 ‘어떻게 이곳에 커피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듈다.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유명관광지에 우선하여 찾는다는 곳이다. 앤트리사이트 한립점! 전분공장이었던 흔적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피와 공존하는 공간이다. 주변에 험재 해수욕장 외에는 특별한 곳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게 오히려 특별한 한마디로 섬씽 스페셜이 아닐까!

동화책 **『파랑새』**는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면 여행을 떠났고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 새장 속에 평소 비둘기로 알고 있던 새가 바로 그토록 찾고자 했던 파랑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거리이다.

그간 일상에서 열심히 찾아 다녔던, 스타벅스 1호점을 비롯한 블루보틀의 영업 전략, 소금 커피의 독특함과 변형 라떼 플





랫 화이트에서는 커피라는 물성에 이름표, 즉 브랜드 네이밍을 이렇게 달아 주었구나에 집중할 따름이었고, 테라로사나 사니다 카페에서는 외형적인 규모를, 앤트 러사이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창의적 공간을 그리워하는 트랜드를 알 수는 있었지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필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수원 화성 성과 내 방화수류정에서 마주친 5301% 카페였다. 본인의 성명에서 오ㅅ영을 숫자로 표현하였고 1%는 최고, 최초가 되는 목표를 담았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하였듯이 5301% 카페도 훗날 테라로사, 사니다에 벼금가는 카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히즈빈스(His Beans) 커피점에서는 사랑과 정성이 라는 파랑새를 찾게 되었다. 이곳은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목표로 일군 텃밭이다. 30대 중반의 대표는 10년 전 포항의 모 대학 재학시절 도서관 한 모퉁이에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작은 사람들 장애인분들을 바리스타로 양성하여 지금까지 22호점까지 확대하였다. 장애인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일하면서 돈도 벌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란다. 판교에 위치한 히즈빈스 와디즈점에서 마셨던 스페셜 커피 콜드브루의 맛은 지금까지 염지 척이다. 커피 한 잔에 진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100세를 넘긴 김형석 선생님께서는 “희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새해 덕담을 남기셨다. 여전히 코로나는 공존하는 상황이지만 희망과 사랑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어렸을 적 배운 파랑새를 바라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에 마음껏 비상하기를 바란다. ➔

## 우상, 은사 그리고 아버지



은석준(60기)

올 1월 중순, 아버지께서 만 43년간의 비행 생활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은퇴를 맞이 하셨지만 중국 코로나19 관련 상부 지침에 따른 외출 제한으로 인하여 최종 비행 후 열린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송구한 마음과 함께 존경을 담아 아버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려 한다.

나는 결혼한 지 약 2년이 지났으며, 4월 이면 첫 아이를 만날 예정이다.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보면 가장으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자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연상한다. 유복하지 못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덕에 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절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당연하게 여긴 그 안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의 가정을 꾸리며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속엔 경제적 측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다.

유년 시절 모두가 그러하듯 나 역시 다양한 장래희망을 품었고 또 수시로 바뀌기도 했지만, 무수한 변화 속에서 조종사라는 직업은 가슴 한편을 우직하게 지켜왔다. 사

관학교 선배이자 조종사로서 제복을 익숙하게 만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리라.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고 공사와 항공대 진학을 고민하던 중 아버지의 글을 접했다. 사관생도와 전투 조종사로서의 삶, 당신의 성공과 눈물을 솔직담백하게 적은 기고문은 사춘기 소년의 끊어오르는 가슴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고 공사 진학을 결심한다. 고2 여름, 가족 식사 도중 환경과 격려를 예상하며 의사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해 보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다. 어렸을 적 청개구리라는 별명 때문에 있을까 오히려 솟아난 오기와 함께 더욱 확신하고, 이를 확인한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 속에 공사에 입교하게 된다.

가입교 훈련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접하며 왜 아들의 사관학교 진학에 맹목적 환희로 답할 수 없었는지 깨달았지만, 가족이자 선배인 아버지로부터 경험으로 체득한 지혜를 조언받을 수 있었기에 1차원적 역경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중 통제에 염증을 느끼는 내게 ‘열차는 레일 위에



서 자유롭다'며 규율을 벗어난 군인은 선로를 이탈한 열차와 같음을, '극기는 최선의 승리'이기에 인내의 결과물은 성취임을 강조하신 말씀은 당시의 위로를 넘어 군 생활의 모토로써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육체적 통제보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자부심과 영광으로 느껴졌던 타이틀이었다. 2008년 아래로 '대를 이은 생도, 장교, 조종사'라는 수식어는 언제나 날 따라다닌다. 특히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전대장생도 – 우수한 비행 성적 – 90년도 공군 최우수 조종사'라는 엘리트 아버지의 아들에게 쏟아지는 주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난 기대와 달리 전국에서 모인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수한 자원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보단 그들을 따라가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커짐과 동시에 이목은 부담이 되어 열등감으로 다가왔다. 특히 한정된 시간 내에 일정 수준을 요구하는 비행 훈련은 나의 숨통을 조였다. 체득 속도가 느렸던 탓에 재분류에 대한 심적 부담뿐 아니라 '호부견자'로서 누를 끼친다는 압박감은 극에 달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기나 사정을 모르는 친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었기에 자연스레 가정에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다. 언제나 탁월했던 아버지는 답답할 법도 하지만 질책이나 비행에 대한 훈수보다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진인사대천명'의 의연함을 강조하셨다.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짐은 내려놓고 현재의 위치에서 본연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2대째 공군 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결론을 내렸고,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군인은 복무를 하며 크고 작은 고민을 수없이 하고 이에 관련하여 많은 선택의 기로를 접한다. 비행대대 생활뿐 아니라 국

방부장관 부관, 항공사 운항본부장 등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가진 34년 선배는 아직 모르는 바가 많은 후배의 등대 역할을 도맡는다. 강요가 아닌 실력으로 세운 권위는 자체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기에 넓은 시선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고 현답을 얻는다. 앞으로 또 다른 아버지가 될 내게 이처럼 든든한 베풀이 있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행운이다.

**축구선수 차두리가 국가대표 은퇴 후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아버지께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대변했음에 깊은 감정이입을 느꼈다.**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실의 벽을 느꼈다. 아버지의 아성에도 전했으나 실패함에 대한 자책감과 아쉬움도 남았다.'**

그래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자 를모델이 아버지이다. 집에 돌아가면 항상 사랑으로 힘들 때마다 보듬어주는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다.'



통상 결혼식에서 주례는 은사, 은인 등 의미가 깊은 분께 부탁을 드린다. 고로 난 우상이며 은사인 아버지께 주저 없이 주례를 맡겼다.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군살 없는 몸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이지만 어느덧 만 65세를 맞이한 당신을 찾아뵐 때마다 늘어나는 세월의 흔적은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막중한 책임감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평균 연령 100세 시대에 아버지의 인생 2막이 행복하시길 응원한다. ♡

# 우정 기고



178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을 회상하며 | 윤응렬

182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 김진표

185 인정받지 못한 메추리… | 도경완

188 변화하는 시대에 공군이 나아갈 길 | 서영득

191 명예졸업장을 받으며 드는 생각 | 김요안

#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을 회상하며



윤응렬  
(전) 공군작전사령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공사총동창회로부터 후진들을 위해 성무지에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선뜻 좋다고 받아들였다. 공군사관학교장과 공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나로서는 자나깨나 공군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해왔고, 반세기 이상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는 세계 유수의 강한 공군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공군이 더 없이 자랑스럽고, 동시에 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온 후배들에게는 고맙기도 하고 또 일면 대견스럽기도 하여 기꺼이 응했던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공군의 활약할 만한 성장은 내 자랑스러운 공군의 후진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일 년 365일을 하루같이 세계일류공군이란 목표를 앞세우고 멸사봉공 정신으로 헌신해온 결과이며 그런 면에서 후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내게 전투조종사로서 평생 잊히지 않는 전투를 들라면, 그것은 한국전쟁사에 길이 빛나는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어릴 적 생활터전이었던 승호리의 철교는 나에게 추억의 장소

였다. 소학교 시절 학교림(林) 작업을 하러 봄, 가을로 지나다녔던 다리였기 때문이다. 1952년 1월 15일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 명령을 받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향의 그 유명한 철교 폭격 임무가 나에게 떨어진 것이다.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Km 지점의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철교로서 중국과 소련의 만주지역으로부터 군수물자가 평양으로 집결되고 다시 평양에서 이 철교를 거쳐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승호리 철교는 적의 핵심 보급로였다. 본래 승호리 철교는 미 공군이 폭격하여 차단했는데, 적은 그 하류 200m 지점에 다시 철교를 부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미 공군은 이미 500회 이상의 출격을 하고도 이 철교를 파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공군에게 임무를 넘긴 것이다.

우리 공군의 승호리 철교 폭격을 위한 출격은 1월 12일 07:40에 동기전우 편대장 김두만 소령이 지휘하는 5기편대가 처음으로 출격했으며, 표적 상공에 도착하여 500파운드 폭탄 10발을 투하했으나 폭탄이 교

각 사이의 모래밭과 물속에 떨어져 성공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내가 지휘하는 3기 편대(2번기 주영복 대위, 3번기 정주량 대위)가 출격하여 재차 폭격을 시도했으나 교각 위의 철로만 손상시켰을 뿐 교량 파괴에는 실패했다.

첫날 임무에 실패한 김신 전대장은 참모들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미 공군 전술교범대로 8,000피트 상공에서 강하해 3,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정밀한 폭격을 위해 6,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공격전술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종사들이 적의 고사포에 심하게 노출되는 저고도 전술로써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감행해야 하는 공격전술이었다.

1월 15일 공격편조는 2개 편대로 구성했는데, 제1편대장인 나와, 2번기 정주량 대위, 3번기 장성태 대위였고, 제2편대는 편대장 옥만호 대위, 2번기 유퇴곤 중위, 3번기 박재호 대위로 구성되었다. 모두가 일본 소년비행병학교 동기생 출신의 베테랑 전투조종사들이었다. 우리는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숙지하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한 나는 목표 접근경로와 공격 방향 및 각도, 이탈경로 등을 전우들에게 세밀히 설명했다.

당일 아침 작전참모 강호률 소령의 브리핑에 이어 전대장 김신 대령

은 부하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지나친 저공 공격과 3회 이상의 공격은 염금한다는 작전지시를 내렸고, 기필코 임무를 성공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라는 뜻에서 캐나다산 위스키 VO 한 병을 상으로 내걸었다.

08:25분 나는 얘기인 무스탕 35호기에 올랐다. 주기장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고흥주 정비중대장과 이청진 기장이 반갑게 맞이하며 항공기의 출격을 위한 점검사항에 이상 없음을 보고했다. 항공기에는 각각 500파운드 폭탄 2발과 5인치 로켓 4발, 기총탄 1,850발로 무장되어 있었다. 마침내 PSP판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항공기는 비행장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고도를 취하며 편대를 이룬 후 목표지역으로 향했다. 왼쪽에는 장성태 대위가 오른쪽에는 정주량 대위가 편대를 이루어 눈 덮힌 산하를 가로질러 승호리로 날아갔다.

승호리에 근접하자 드디어 적의 고사포 탄들이 올라와 검고 하얗게 터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좌우로 경로를 틀면서 적의 고사포를 교란하며 목적지로 비행했다. 평양 인근으로 접근하자 낯익은 지형이 눈앞에



출처: 공군박물관



펼쳐졌다. 동강난 교량, 폭파된 철도 등이 곳곳에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 승호리 고개가 나타났고, 그 왼쪽으로는 평양이 내려다보였다. 산모퉁이를 돌자 은백색의 남강줄기가 나타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승호리 철교가 시야에 들어왔다. “전방에 표적!” 반드시 폭파해야 한다는 집념을 다지는 사이 철교는 더 크게 부각되었다. “2시 방향 고사포!” 하는 정주량 전우의 콜과 함께 하얀 연기가 몇 군데서 퍼졌다. 고사포탄이었다. 적은 생명선인 승호리 철교를 방호하기 위해 수많은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고 대응사격을 해대고 있었다.



출처: 공군박물관

나는 항공기를 좌우로 흔들어 요기들에게 공격신호를 한 다음 승호리 철교를 좌측 하단에 두고 표적을 확인하면서 공격대형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교범보다 더 낮은 고도인 6,500피트에서 태양을 등지고 K-14A 조준기를 조절하여 표적을 오버하지 않도록 셋팅하고는 무장 스위치를 켜고 “넘버원 인!” 콜과 함께 표적으로 곧장 수직에 가까운 70도 각도로 급강하하며 표적으로 돌진했다. 조준기 반

사경 안의 다이아몬드 중앙에 철교의 중간 교각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폭탄발사 스위치를 힘껏 눌렀다. 덜커덩 소리와 함께 가벼운 기체 진동을 느끼는 순간 두 발의 폭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돌진했다. 그 때 고도 1,500피트, 조종간을 세차게 잡아당겨 우측으로 급상승하면서 표적으로 부터 이탈했다. 너무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나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는가 싶었고 G-meter엔 7G나 걸려 있었다. 이탈하며 표적을 보니 철교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정확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명중이다!” 폭탄은 보기 좋게 철교강판을 타격했다. 뒤이어 2번기와 3번기가 같은 패턴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돌진했고, 철교는 연이어 명중된 폭탄으로 섬광과 함께 불기 등이 솟구쳐 올랐다. 검은 연막 사이로 두 동강난 철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남아있는 로켓포로 다시 적을 공격했다. 공격각도를 약간 낮게 잡고 250야드까지 접근하여 엄지손가락으로 발사버튼을 눌렀다. 쟁 소리와 함께 로켓들이 날아갔고, 폭탄보다 더 정확하게 철교를 타격했다. 제2, 3번 기도 같은 패턴으로 로켓탄을 발사했고 철교는 다시 한번 검은 연막에 휩싸였다. 확인 차 강하하면서 철교를 살피니 중간에 교각이 파괴되어 두 동강난 모습이 드러났다. “작전 성공! 만세!”를 외쳐 요기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귀환 길에 올랐다.

통상 F-51기로 적지에 침투할 때는 1만~1만 2천피트의 고도로 침투하며 항공기 간격은 50피트를 유지하여 적의 대공포, 고

사포를 피하고자 했다. 적의 대공포탄이 터지면 즉시 지그재그 비행으로 기동하면서 표적으로 향했다. 제1파 공격에 이어 제2파 공격을 감행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피하여 적의 대공포를 회피했다.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의 성공은 다음날 미 제5공군합동작전센터에서 파괴된 승호리 철교 사진을 보내와서 더욱 확실히 확인되었다. 미 공군은 평소와 다르게 두 동강난 승호리 철교 사진을 프랙 오더(Frag Order)를 통하여 우리 전대로 보내주었고, 김신 전대장은 이를 전 대대원 앞에서 자랑스럽게 치하였다. 미5공군사령관 에버레스트장군은 직접 축전을 보내 축하해 주었다. 불과 단독작전 개시 3개월 만에 이같은 혁혁한 전과를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도 받았고, 작전역량을 인정받아 F-51 전투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도 했다. 작전에 참가한 6명의 조종사들은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그때까지 공군에서 단일작전으로 참전용사 전원이 표창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표창장에는 우리 출격 조종사 6명의 이름만 적혀 있어 아쉽게도 이 작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신 전대장, 강호륜 작전참모, 정비중대장과 항공기 기장들, 또 출격을 위해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전우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항공작전은 특히 어려운 작전일수록 조종사들의 공훈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전투기의 이상 없는 출격을 위해 차가운 혹

한을 뚫고 이른 새벽부터 항공기를 준비하고 출격 후 다시 무사 귀환할 때까지 노심초사 조종사의 안전을 기원하며 성원을 아끼지 않는 지상 전우들의 그 헌신이 없으면 항공작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우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임무를 완수할 때, 아무리 고난도 임무라 할지라도 너끈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전쟁사에 빛나는 우리 공군의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은 이 같은 제10전투비행단 전 부대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였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돌아보는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은 이 노병에게 치열했던 격전에 관한 많은 회상을 되살려 준다. 무엇보다도 청춘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산화한 많은 전우들, 특히 스물다섯 꽂다운 나이에 하늘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정주량 전우에게, 살아남은 자로서의 빛진 짐을 아직도 가슴에 안고 있다. 해방의 격동기를 겨우 지낸 20대 중반의 청년비행전사들에게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은 혹독하기 그지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으며, 풍전등화의 국기위기 앞에서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한목숨 아깝지 않게 바쳤던 하늘의 용사들이었다. 이제 90을 넘긴 시점이지만, 가슴속 꿇었던 격전지에서처럼 변함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간 전우들의 명복을 빌며, 공군의 후진들에게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군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기원한다.

#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공군 창설 72주년, 그리고 공군의 디딤돌인 공군사관학교가 개교된지 72주년인 올해 드디어 국민의 염원인 국산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출고되었습니다. 과거 제대로 된 전투기 1대 없던 민족상잔의 6.25 당시부터 지금의 국산 전투기 개발까지 공사인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사 총동창회로부터 ‘성무지’에 기고 의뢰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 현대 전장에서 공군 전력의 중요성

1990년 걸프전 이후 항공력이라 불리는 공군 전력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적을 죽이는 섬멸전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신속히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켜 전쟁 의지를 꺾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항공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통신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1980년대 정보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기와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력으로 표적을 확인하고,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과거에는 보지 못한 전투효과를 달성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전 초기 공군력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사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한국 공군의 발전과 국산 항공기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력은 어떻게 발전하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6.25전쟁 이후 전국이 초토화되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당시에는 우리나라 하늘마저도 잿빛으로 어두움이 느껴

졌습니다. 1955년 한국을 방문한 영국 ‘런던 타임즈’ 기자는 한국 상황을 보면서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은 피는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비옥한 정원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향기로운 장미꽃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은행(WB)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사상 최초로 G7에 진입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사는 우리 공군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1974년 8월 F-5E를 도입하고, 1975년 12월에 국민의 성금(방위성금 현납기)으로 F-4D를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F-5E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고고도무인정찰기(RQ-4), 스텔스전투기 F-35A 등 첨단화된 공군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첨단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하면서도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함에 따라 2000년 국산 훈련기인 KT-1을 시작으로 경공격기인 FA-50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국산 전투기 시제기가 출고되어 세계 최고의 명품 공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국산 전투기 개발에 밑거름이 된 공군사관학교

1949년 개교한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군 리더와 항공력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천문대, 수중생환훈련장, 항공체력단력장 등의 전문 시설을 갖춰 21세기 항공우주시대에 걸맞는 연구 수행은 물론 장차 대한민국의 간성이 될 건전한 인성과 사고력을 겸비한 사관생도를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화된 공연 시설과 성무공원, 항공기 전시장 등의 시설은 청주 시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등 민·군이 함께 숨쉬고 화합하는 상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공군사관학교를 거쳐간 1만여 명의 공사인들은 공군의 발전과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어 왔음은 물론,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요청하여 왔으며, 전역한 이후에도 항공우주분야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우리는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공군사관학교에서 뿐만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나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늘로 우주로’, 공군의 발전 방향 및 그 노력에 항상 감사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WMD 및 재래식 전력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의 동북아 주도권 확보 경쟁으로 인하여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은 최근 발간된 ‘공군비전 2050’과 ‘에어포스 퀸텀5.0’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주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은 정밀 타격 능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는 물론 창의적 인재 양성과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현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전장에서 공군의 중요한 역할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공군은 상기 비전서 등을 통해 필요한 전력과 인적자원의 구축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52.8조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군비전 2050’, ‘에어포스 퀸텀5.0’ 등을 통해 전략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세금인 국방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현명한 우리 국방의 핵심군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하늘로 우주로’라는 공군 구호처럼 공군의 힘이 우리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현역 군인들과 전역 이후에도 공군의 발전을 위해 몰입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예비역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국민과 상생하는 공군, 공사인으로

공군호텔에 가보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슬로건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믿음직한 공군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사관학교 동문 및 현역 공군인 여러분!

올해는 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출고되어 우리 공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의미 있는 한해로, 공사인들의 자부심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과 여러 가지 시험비행을 수행해야만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과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KF-21 사업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공사인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성무지에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

## 인정받지 못한 메추리…



도경완  
방송인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하고 있는, 행할 언행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반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자. 그리고 행하면 그것이 명예다.’

이 구호를 내가 맞게 기억하는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하다. 어쩌면 기억함의 의미 자체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동안 놓고 싶지 않았다. 너무 오래 전이고 기간도 짧았지만, 지난 20여 년의 세월 속에 나를 다잡아준 가훈 같은 말이었으니까.

늘 턱밑까지 숨이 차있던 ‘가입교 훈련’. 지상 최대의 꿀맛 ‘메추리천하’. 영광 그 자체 ‘관숙비행’. 싫다는 나를 왜 데려 갔어요 ‘대표생도’.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그 시절의 키워드들.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였다. 이 개연성 없는 단어들만 쟁겨 나는 서둘러 성무대를 빠져나왔다. 눈물 때문에 버스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터미널에서 차표를 살 돈은 있는지 중요치 않았다. 그저 내 몸이 쌍수리에서 멀어지는 것만 느껴지면 다행이고 그만이었다.

아마 생도대장님은 나약함에 껴여 비겁하게 탈출하려는 날 잡으려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그때 그 말이 난 너무 아팠다. 나만 아는 줄 알았던 나의 나약함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하던 그 순간, ‘극복’이란 말보단 ‘회피’ 혹은 ‘부정’이 떠오른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누가 될 뿐이다. 조국 영공 수호는 남 얘기다. 나가는 게 맞다. 일단 내 마음대로 결론지어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난 철저히 에피알테스였다. 생도대장은 레오니다스 왕이었고, 2중대 나의 동기들은 말 그대로 스파르타였다. 너무 수치스럽고 처참했다. 내가 자처했고 내가 그런 그림이었지만, 남은 앞으로의 인생은 ‘최선’이 아닌 어디까지나 ‘차선-그나마 많이 뒤처지지 않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새로운 대학을 갔고, 또 한 번의 군 입대를 겪었다. 당연히 나는 ‘공군’이란 단어는 최대한 멀리 두었고, 나만의 복수 아닌 복수를 준비해야만 했다. 대한항공 가려고 지원했다는 그녀석도 임관했고, 나보다도 느리게 달리던 그녀석도 장교랍시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텐데 볼품없는 난 지금 이게 뭐람… 복수의 열정은 점점 뜨거워 졌고, ‘최선을 이긴 차선의 신화’를 쓰리란 야욕이 내 안에서 꿈틀댐을 느꼈다.

그리고 찾아온 갈림길… 나는 가까스로 에피알테스가 되진 않기로 했다…

“도경완씨는 전공도 공학이고, 말을 그리 잘하는 편도 아닌데 왜 굳이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2008년 12월, 무려 대한민국 공영방송사 KBS 최종면접 자리에서 받은 질문에 나는 혼들리지 않았다. 허를 찌르는 처음 듣는 질문이었지만 이런 분위기에 이런 날카로움을 어디선가 경험해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입술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어떤 참신함이 터져 나올까 숨죽여 지켜보던 그 꼰대들에게 멋지게 한방 날렸어야 했지만 나는 그리하지 못했다. 대답을 위해 입술을 떼려던 그 찰나의 순간, 어지러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미움 뒤에 미안함이 숨어있었고, 외면 이전에 그리움이 있었다는 걸 하필 그 순간 알았다. 완벽하게 제거한 줄 알았던 생도 시절의 기억을 나는 오히려 그리워했고, 남겨둔 내 메추리들에게 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음을 역설적으로 KBS 입사 최종면접 자리에서 인지했다.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뜨거운 눈물이 활각 쏟아져 나왔다. 참신한 대답이 아닌 참신한 눈물에 당황한 면접관들이 내 눈치를 보게 됐고, 나는 짧지 않은 하소연을 대답이랍시고 늘어놓았다.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포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내가 못났으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주변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먼저 연락해주는 그들을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앞서나가는 그들이 부러우면서도 야속했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좀 따라잡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야 지난 원망의 시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도도 군인도 아니지만 멋진 사회인으로 남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제 언행의 흐름이 이성과 양심에 반함이 없는지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에 대한 철학과 자세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전공과 언변에 얹매이지 말고, 적절한 분노의 이유가 있는 제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꾸준히 연락해주는 나의 고마운 공군사관학교 54기 이강록 메추리가 공군을 위한 글을 써 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딜 감히 중도 탈락자가 염치없이 글을 쓰나 싶어 한사코 못 한다 안 한다 거절했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할 방법이 어쩌면 이 글이 유일하고 마지막일 수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가르침만 한가득 안고 살았습니다. 이기적이지만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영양분이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혼한 아나운서로 아셨겠지만, 그 혼한 아이가 여러분을 짹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안타까운 순간을 방송국에서 뉴스로 전하며 혼자 웃기도 울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집착은 아닙니다. 그저 미안함과 고마움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글을 끝으로 오래 된 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짐을 내려놓든 더 짊어지는 자네 맘이요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공만큼이나 제 마음도 맑고 여리답니다. 제 마음 제가 지켜야지요. 이제 저도 훌가분하게 새로운 인생 개척하며 여러분과 제 사이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온 국민의 사랑받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필승… ♪



# 변화하는 시대에 공군이 나아갈 길



서영득  
공군학사장교회장

현대전에 있어 공군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현대전은 신속 감시, 한발 앞선 타격이 요구되는 초정밀, 전자전의 시대이므로 공군이 우선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공군도 스텔스기능을 갖춘 최첨단 항공기를 구입하였고, 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와 공중급유기도 도입하였다. 덧붙여 순수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또한 출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작전권전환에 따라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타격 및 방어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공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공군이 힘주어 강조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명실공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모두 스마트하고 장병들 또한 우수한 자원들이다. 공군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최고라는 점도 든든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더라도 누구

도 따라할 수 없는 정밀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육군의 유도무기나 드론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인항공기나 AI기술이 접목된 무기 체계 속에서도 공군 조종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보다 명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공군은 스스로 기술 군으로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면이 있다. 새로이 추구하는 사이버와 우주영역에서의 경쟁에서도 매사 기술로만 접근하는 점이 없지 않다. 기술은 민간 영역에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응용하고 정착시킬지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 군도 조직이다 보니 타군과의 관계,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요도, 국민의 호응도 등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인이 더 많다. 그런 점에서 공군은 세상 물정을 더 많이 알아야 할지 모른다. 인위적으로 정권에 따라 공군출신을 중용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외 보직이나 예산 등에서 경쟁하며 보이는 타군의 배타성을 공군 또한 자체적으



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군이 시급히 개선할 점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조종사 위주의 군 운용방식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와 조종사 중심의 군 구조이다 보니 그런 측면이 존중받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종사를 기술인으로만 머물게 하여서는 안 된다. 비행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통합군 운영의 종합적인 사고와 첨단의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배우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시설특기도 비행단장을 하는 미국을 볼 때 반드시 조종특기가 비행단장을 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종특기가 군수부장 등 소위 말하는 후방특기의 책임자를 맡을 필요도 없고 그에 따라 진급의 파이가 커져서도 안 된다. 진급하지 못한 조종특기를 위해 능력에 걸맞은 자리나 보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눈도 침침하고 혈압도 높아지는데 유지비행에만 신경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용을 다른 방도로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위직 조종사들만이 할 수 있는 한국형 공중 작전술이나 교리 등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해외 무관이나 청와대 등 대외부서에서 타군과 대등하거나 우수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군 보직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국민이 보기에 군의 기강해이가 많이 우려된다. 공군의 사안은 아니나, 여러 차례 북한 주민이나 군인이 남으로 올 때 경계 임무가 소홀하고,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부사관이 참모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기관에 제보하고, 병영내 병사들이 휴대폰을 통해 주식투자도 한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돌고 있다. 군이라고 사회와 동떨어진 집단이 아님 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굽곡이 병영생활에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한국전, 월남전, 해외 파병 등에서 보여준 우리 국군의 늄름한 모습에 늘 기대고 안도하고 있다. 이런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병영생활지침은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되어야 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지휘관, 책임자에게는 대폭적인 면책사유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예인 등에서 보이던 팬덤문화가 정치로까지 확대되면서 국가정책 또한 자신들의 지지 진영에 의한 취사선택이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이다 보니 미래성과를 염두에 둔 장기적 전략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군인들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고, 진급의 주안점도 바뀔 수 있다. 정당에 따라서는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나 방어를 우선

시할 수도 있고, 반면 북한의 핵 억제야 말로 진정 평화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제5조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일원인 개개인으로서는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군인은 사명감으로서 사는 집단이다, 군의 존립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시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환경속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이상 출세가 아닌 존경받는 선배가 되는 길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군의 종국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공군인이라면 웬지 든든하고, 공군의 무기체계는 최고라는 믿음이 있고, 향후 전개될 우주에서의 군사적 확장에서도 공군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확신이 서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군이라면 예산획득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군도 최

첨단 외국 무기만 추구할 것 이 아니라 국산화에 앞장서며 우리 민간기술이 공군력 구성에 기여할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교, 부사관, 병 어느 분야에서든 서로 유기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하고, 예비역들조차 출신과 무관하게 공군사랑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역사상, 위안스카이나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서 당한 굴욕은 강한 군사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배운 바 있다. 남북간이나 주변국간의 관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공군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군과 공군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

## 명예졸업장을 받으며 드는 생각



김요안 신부  
28기 명예졸업

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다.

1976년 2월 공군사관학교 28기로 가입 교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기간에 전례 없이 혹독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위로 누나들 뿐인 집안에서 독자로 태어나 유소년기를 왕자처럼 자란 나로서는 공사의 그 혹독한 훈련과 교육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소리쳐 외우는 공사십훈, 즉 용의단정, 청렴결백, 성심복종, 책임완수, 신의일관, 공평무사, 침착과감, 신상필벌, 솔선수범, 은위겸비는 나의 정신자세를 가다듬게 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 안에서는 성무 정신으로 자리 잡아갔다.

솔선수범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앞장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동기생들은 그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차츰 나의 이러한 자세를 이해하며 호평해주었고, 마음을 털어놓고 지낼 만한 동기들이 생겨나 생도생활에 정이 붙고 막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청천벽력과 같은 불의의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마산통합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의

이제 막 정상궤도에 오른 생도생활을 즐기며 비상하려던 꿈을 접으려니 얼마나 섭했던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의 명령이니 달리 방도가 없었고 믿기지 않게도 공군사관학교를 떠나야 했다. 난생 처음 뜻하지 않게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격언처럼 공사에서의 짊았지만 고된 생도 생활은 이후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로 복귀하여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천주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관학교와 같은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공군사관학교가 신체 및 정신을 중요시했다면 신학대학교 또한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중요시하였다. 사제가 되기 위한 수도생활도 장교가 되기 위한 생도생활 못지 않게 엄격하고 힘든 과정이었다. 사제가 되



어 육군군종장교로 임관하였고, 신부로서 근무하던 중 1986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는 육군현역 군종신부로 복무하였으며, 육군소령으로 전역하였다. 군종신부로 재직 시 장병들의 신앙생활 및 정신전력 극대화를 위해 성당과 교육관을 건축하는 등 열정적으로 사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육군사관학교 성당의 신부로서 사목활동을 하면서 사관생도들의 신앙지도를 하게 된 것은 내게는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또한 미국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선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일에도 힘을 썼다. 현재는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을 잘도 극복하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발전한 대한민국이 전능하신 천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품안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 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16년 7월 2편대 동기생 전우들이 내가 사목하고 있는 전주교구 임실성당으로 단체방문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앞뒤 따질 것도 없이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윽고 동기생 26명이 방문하여 열사의 무더위 속에서도 즐거운 하루를 함께 지냈다. 모두들 훌륭하게 성장하여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경력을 쌓았고, 국방발전에 기여한 자

긍심들이 배어 나왔다.

이번에 제28기 동기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젊었을 때의 로망이 드디어 결실로 다가온 것이다. 뜻하지 않게 공사를 떠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섭섭함이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열배 스무 배의 기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나이 60을 넘어선 노년에 이르러 그간의 인생여정을 회고하며 명예스럽게 졸업한 것이다. 그동안 성원해 준 동기생들과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공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이 있 기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천주님께 감사드린다.

신부로서 공사동문들을 위한 ‘아브라함 선조의 믿음을 본받자’는 말씀을 이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건 긴 여정 끝에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부인 사라는 65세로 젊지 않은 나이로써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였는데, 그 후 25년이 더 흘러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느님은 천사들을 파견하여 재차 약속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고,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 이니 이름을 이사악으로 지어라.”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고 이사악으로 이름 지으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하느님 말씀에 자신의 방식대로 반신반의하면서 지냈는데, 이사악이 태어나자 자신의 방식을 버리게 되고, 완전히 달라져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순수 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보지 말고 하느님 말씀만 믿고 붙들고 말씀만 받아들이자,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따르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2월 16일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존경받으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소천)하신 날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어느 방송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게 떠오릅니다.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자들에게 사랑을 설교할 때에 머리로서만 강론하였고, 60년 넘

게 사제 생활하면서 이제 사 진정한 사랑을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었으니, 참사랑을 깨닫기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0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보 중의 바보입니다. 바보 추기경입니다.” 아브라함 선조는 25년이 걸렸고, 추기경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60년이 걸렸겠으나 저는 감히 깨닫지 못하고 삶을 마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 공사 28기 동기생들은 1957년 태생이 대부분일 것이어서 앞으로 30년 지나면 하늘에 있을 동기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겠지만, 인생의 지금쯤에서 성경 속 아브라함 선조의 믿음을 본받고, 창조주를 향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로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스컴에서 공군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 관심 있게 보고 듣곤 합니다. 제 삶의 한 부분이 공군의 역사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여, 공군에 대한 자긍심으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

2021. 2월 전주 화산동 성당에서



한체세부화보 구매, 도서방 등

을샵



# ALL# (을샵) 공공기관 ERP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솔루션

any OS any DBMS, 클라우드 서비스



예비역/현역, 군기족 여러분 모두!!

「혜택 만점 건강검진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국가와 가정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바로 건강입니다.



암검사, MRI·MRA, CT, 내시경 등 100여 검진항목  
**100만원대의 종합 건강검진을 25만원에!!!**

## 서비스 대상

-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분
  - 하사 이상 현역·예비역 군간부
  - 전·현직 군무원 /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공무원
  - 전·현직 KIDA직원, 국방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 검진기관

- ▶ 하나로의료재단, KMI한국의학연구소 등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지역 소재  
※ 전국 확대 추진중

## 신청방법

- 1 건강검진 신청사이트 접속  
(<http://health.mmaecnc.or.kr>)
- 2 익스헬스케어 선택하여 회원가입
- 3 원하는 지역의 검진기관, 검진항목, 날짜 선택  
(정밀선택검사 2개 기본 선택)
- 4 검진기관 예약확인  
(검사용품 및 문진표 발송 등을 위한 확인)
- 5 검진 당일 신청기관 방문 후 건강검진 실시
- 6 검진 완료 후 해당 검진기관에 비용지를  
\* 정밀선택검사 2개 포함 25만원 정액
- 7 검진결과 발송(동기우편, 이메일 등)

## 검진 비용

- ▶ 정밀선택검사 2개 기본 포함 25만원 정액
  - \* 정밀선택검사 2개 초과시 별도 비용 발생

## 검진 항목 안내

- ▶ 기초검사
  - 문진 / 기초검사(혈압, 신체계측) / 사력 / 청력 / 안과  
대·소변검사 / 혈액검사(CBC검사) / 혈 결핍성 빈혈  
심혈관검사 / 간기능검사 / 신장검사 / 당뇨검사 / 혈장검사  
전해질검사 / 간염검사 / 통풍·류마티스검사 / 감염검사  
심·폐기능 / 갑상선검사 / 종양표지자검사 / 비타민 D검사

## ▶ 기본정밀검사

- 소화기검사 : 위내시경(일반 or 수면)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상복부, 하복부, 유방)  
부인과검사(유방X-ray, 자궁암) / 채성분검사  
골밀도검사 / 동맥경화검사 / 스트레스검사

## ▶ 정밀선택검사 2개 선택(기본)

| 검진항목   | 비고 |
|--|----|
| MRI-T2(뇌 or 요추 or 경추) / MRA / 대장내시경  | 택1 |
| CT(뇌 or 요추 or 경추 or 심장 or 肺) / 심장초음파 / NK세포검사 / 유전자검사 / 심근경색위험인자 / 남성호르몬 / 여성호르몬 | 택1 |

## 문의전화

익스헬스케어 : 070-5066-3558

# 동문동정



## 10기 십칠회

- ‘십칠회 산우회’ 회원 12명은 총동창회에서 최초로 시행중인 성무 장학사업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백승웅 동문이 자서전 「오늘이 더 행복한 이유」를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80 평생의 삶을 뒤틀어 보며 마음속에 담아온 이야기들을 1부 My Life, 2부 My Family, 3부 My Church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 13기 패공회

- 전회원의 아호 작명 활용
  - 기품 존칭 친근감을 주는 호칭의 격을 높임
  - 친지 동료 상하간 부담없는 호칭임
  - 개인 작품 서화의 낙관으로 사용



★ 새活力이 충만한 號 라기보다 尊稱을 살펴보면  
 신해/해정(海靜) 명준/유당(裕堂) 희본/도경(道耕)  
 무신/솔뫼(松山) 양수/덕행(德馨) 영부/태촌(太村)  
 종식/풍천(豐川) 준언/의암(毅岩) 진석/용암(龍岩)  
 철옹/서청(瑞庭) 기철/희성(熙聖) 양식/서안(瑞雅)  
 관수/만종(滿弘) 창규/여여(如如) 덕규/서봉(瑞謙)  
 병철/덕천(德川) 근우/의성(義誠) 시상/우림(友林)  
 병각/우정(宇庭) 재명/비룡(飛龍) 강령/태원(太垣)  
 기현/해원(海圓) 승대/기만(加滿) 승배/자강(慈剛)  
 준순/강촌(江村) 정호/지광(至光) 종대/길암(吉庵)  
 종화/호안(虎眼) 완구/노암(老岩) 태규/거용(巨風)  
 덕수/청성(青星) 명호/법공(法空) 건환/상록(瑠鹿)  
 대길/태정(太庭) 창수/해룡(海龍) 길용/목천(睦泉)  
 재구/범산(梵山) 종덕/인산(仁山) 영덕/한정(閑亭)  
 안일/정성(正性) 종민/정선(正宣) 진삼/류강(柳鍾)  
 동석/정암(正岩) 영체/진평(眞平) 병하/무등(無等)  
 해성/SeaStar 병각/SilverBell  
 회관/신부/권의

### • 계절별 활동



춘계

고궁, 역사/문화 유적, 박물관 탐방, 기타



하계

피서, 체력 단련



추계

인근 둘레길, 가벼운 등산



동계

추한기 피한 산행 및 단련

## 21기 여명회

- 이광영 회장과 배민섭 총무 및 회원들은 2020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사동 소재 ‘조형 갤러리’에서 서각, 서예, 한국화, 탱화, 사진 등을 전시한 여명회원 7명의 “여유회전”을 찾아 작품을 둘러보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전역 후 틈틈이 각자 취미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함께 모인 7명이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자고 한 것이 일부 고교 동문들까지 합세하여 인사동에서의 전시회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7명은 권근(사진), 금기연(사진), 김태욱(서각), 박희영(서각), 오진교(한국화, 탱화, 서예), 이찬(서예), 정용운(서예) 등으로 다음에는 더 많은 동기생들의 참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동기생이 함께 한 전시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을 통틀어서도 처음일 터.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다른 기수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 26기 아람회

- 코로나로 동호인 모임이 저조합니다. 공사 26기 이대열 동기생이 남대전 로타리클럽 46대 회장으로 2020년 7월 23일 취임하였습니다. 국제 로타리클럽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사회에서 초아의 봉사활동과 국제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27기 석로회

- 지난 5월 16일 월간 ‘석로 News Letter’ 창간호(PDF)를 발행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가벼운 소통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동기들의 근황 뿐만 아니라 추억의 생도생활을 소환하기도 하며,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창간호에는 특별히 당시 졸업식 동영상과 QR Code를 탑재하였으며, 이 남자가 사는 법, 나의 인생 사진, 그때 그 순간, 동호회 활동 소식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 상한가를 구가하고 있는 트롯트 가수 영탁의 특별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News Letter를 통해 그동안 꺼내기 쉽지 않았던 동기생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임원진들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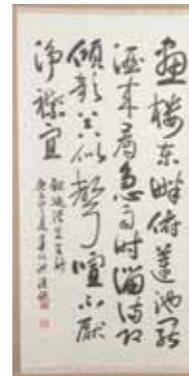


## 28기 애채회

- 동기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골프, 자전거, 등산동호회 등의 야외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 홍순협 동기가 2020년 제32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행  
서·초서 부문에 참가하여 전국에서 출품한 850여 점 중  
에서 당당히 입상을 하였습니다.



-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 전우를 위한 현충원 참  
배에 참석하였습니다.



## 29기 휘조회

- 김규진 동기가 2021년 1월 27일부로 제5대 대한장애인축구협회회장으로  
취임하여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규진 신임회장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며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말했습니다. 김회장은 LIG  
넥스원, CR 기획실장을 역임한 뒤 2015년부터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부회장  
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07년 설립한 대한장애인축구협회는 청각, 시각, 지  
적,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선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김성일 전 공군참모  
총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  
Korean Paralympic Footbal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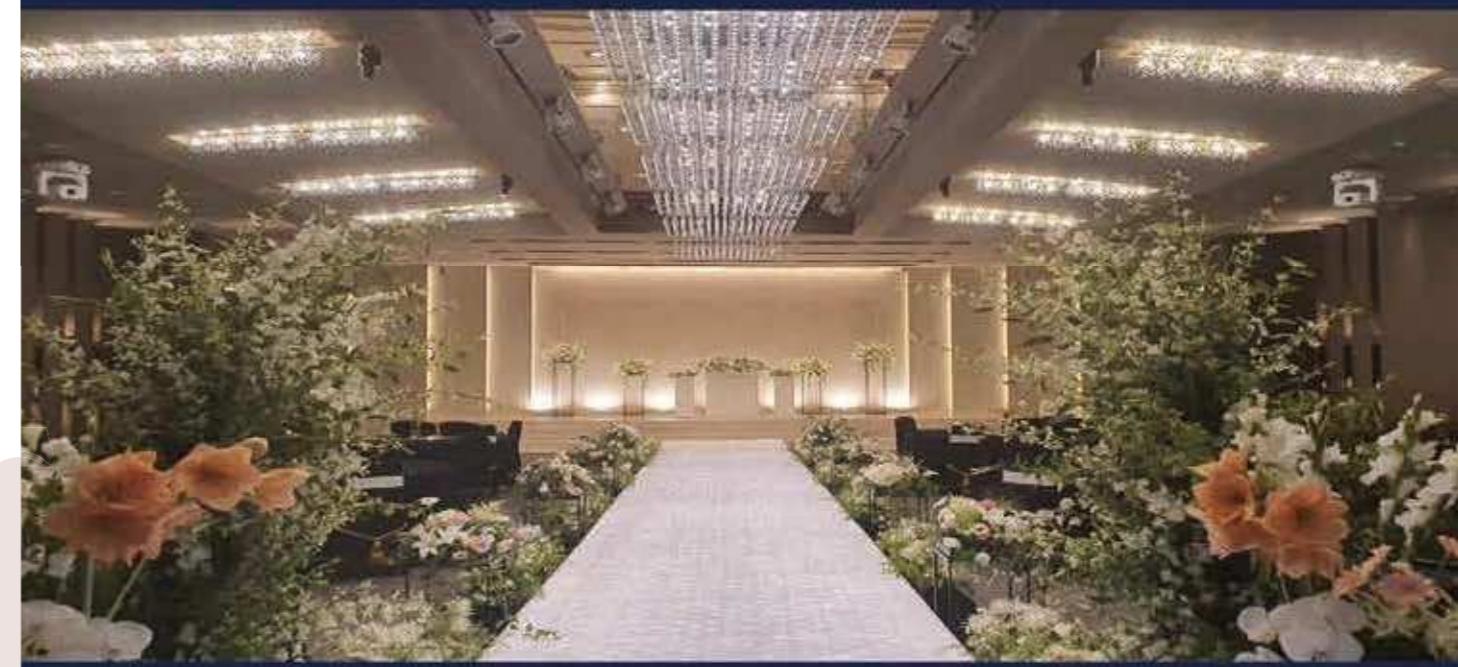
## 31기 한돌회

- 정석환 동기가 2021년 3월 29일 병무청장 취임식에서 “정의로운 병무행정  
을 구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병역이행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자”며 “국민의  
신뢰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공군호텔이 새로워졌습니다

공군회관 → 호텔로 승격



공군호텔을 아껴 주시는 공사총동창회 회원님 감사 드립니다!

작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회원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 호텔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환경을 고급호텔 수준으로 전면 개선하고 새롭게 편성된  
우수한 셰프들이 한식, 중식, 양식, 뷔페 메뉴를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예식·연회·각종 모임을 저희 호텔에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공군호텔 이구목 사장, 임직원 일동

예약문의 02-844-0336  
[www.airforcehotel.co.kr](http://www.airforcehotel.co.kr)

# 「성무장학사업」시행 원년 보고서



이석원

제28차 총동창회 사무총장

## 공군의 장학사업은?

공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하늘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출신에 구분없이 비행사고로 순직한 모든 공중근무자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생 신분에 따라 장학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공사총동창회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위에서 언급한 하늘사랑장학재단 수혜자를 제외한 총동창회원의 초·중·고등·대학생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성무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 1. 성무장학사업의 태동

성무장학사업의 최초 구상은 지난 2019년 7월 제27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진이 제26차년도 선배들로부터 인수를 받고 제반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정기 이사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중, 00기수 동기회장 및 총무가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유인 즉, 00기수 모 동기생이 현역시 지병으로 타계를 하였는데 고인은 사망 당시 2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직처리가 되지 않아 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수년이 흐른 후 남은 유가족(미망인, 대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중인 두 자녀)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동기생들이 발견하고 동기생회에서 돋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동기생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총동창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논하러 왔다면 꼭 도와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접한 제27차년도 총동창회장 이영만 장군은 총동창회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다고 결심하고, 동 사안을 정기 이사회에 발전과제로 보고 후 임기 중 성무장학사업과 관련

된 제반 규정을 만들고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타계한 우리 동문들의 유자녀 중에 대학생과 초·중·고생들이 약 30명 내외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장학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늘사랑장학회를 비롯하여 일부 대학교 총동창회의 장학사업도 참고로 하여 1년여 간의 임기 중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성무장학 사업 규정을 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 2. 장학기금 마련의 난관을 뚫고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장학사업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금만이 연속성과 항구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제27차년도 운영진은 연간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사업의 잉여 예산과 제49호 성무지 발간시 수주 받은 광고 예산 중 발간에 소요된 제비용을 제한 금액 등을 모두 망라하여 총 4,040만 원의 초기시행자금(seed money)을 조성, 제28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진에게 장학기금으로 인계해 주었다.

### 3. 제28차년도 장학사업 추진 방침 설정

제28차년도 운영진에서는 우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석부회장 김영민 장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기금이 부족한 관계로 ①대상을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②금액은 연간 1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할 것과 ③지급 시기는 신입생 입학 등록시기 및 졸업생 등을 고려 2월 말~3월 초에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성무장학사업 원년 시행 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아울러 향후 장학기금 조성은 ①평생회비 적립금의 1년 만기 이자와 ②총동창회 운영 후 잉여예산, ③성무지 제작 후 제비용을 제한 잔액을 비롯하여 ④동문 또는 외부 단체(개인 포함)에서 장학기금으로 지정 회사하는 금액으로 지속해서 적립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4.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외부 인사 또는 업체에 장학금 기부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동문 유자녀는 우리가 먼저 도와준다는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8차 총동창회장 최차규장군 명의로 전체 동문을 대상으로 문자 서신을 통해 성무장학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십시일반 도움을 요청한 결과, 첫 달인 2020년 8월 한 달 동안 총 41명이 동참하여 1,067만 원이 모금 되었으며 9월에는 21명이 602만 원 등 장학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듬해 2021년 2월까지 총78명이 2,500여 만 원을 회사해 주셨다. 기금을 회사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일같이 현황을 파악하여 빈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장학기금 모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과 함께 우편으로 감사의 서신을 보냈다.

#### 5. 동문들의 정성어린 회사금이 답지하다

장학기금을 회사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있는 뜻을 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중 28기 최병주 동문은 생일을 맞아 장남으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은 어려우니 부산으로 부부여행을 다녀오시라며 부산에서 가장 일류호텔인 L호텔을 1박 2일(약 30~40여 만 원 소요) 예약해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총동창회에서 추진 중인 성무장학사업의 취지를 설명 후 여행 대신 소요 경비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가 하면, 10기 산우회(山友會)에서는 회원들이 100만 원을 모금하여 보내 주셨으며 29기 양철환 동문은 지난 해 120만 원에 이어 금년에도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 주고 있고, 28기 유길형 동문은 향후 10년간 매월 1만 원씩, 42기 백도석 동문은 3년간 매월 1만 원씩 성무장학기금 계좌로 자동이체 해 주고 있으며, 30기 김광희 동문, 26기 오중기 동문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각 10만 원씩을 회사해 주었다.

#### 6. 드디어 최초로 성무장학금을 지급하는 감격

먼저 규정에 따라 실 지급 대상자 파악을 위해 금년도(21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96년생~'01년생 대부분이 35기 ~49기 유자녀임을 감안, 융통성 있게 34기~50기로 확대하여 확인한 결과, 의외로 4명만이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 상당수가 부친이 타계한 후 어머니 혼로 자녀들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 중도에 대학교 학업을 포기한 인원도 있었고, 아예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경우도 있어 '우리 총동창회가 장학사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하는 자책감도 들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이 애초 예상했던 14명보다 훨씬 적은 관계로 지급 금액을 계획(150만 원) 대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되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대상자 중에서 다행히 마지막 학년에 장학금을 받게된 모 가족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 또한 공사 가족으로서 추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3월 5일 공군호텔에서 장학금 수혜가족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와 함께 간담회를 겸한 성무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면서 총동창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장학증서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 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 사진 촬영과 함께 관련 내용을 취재 후 국방일보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폭넓게 홍보하는 기회도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 7. 남은 과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장학사업의 지속성/항구성 등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장학기금의 확충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동문들의 기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현실로 총동창회 산하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게 되면, 외부 기업 또는 개인이 장학기금을 기부할 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다소 활발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리라 생각되며, 그리하여 기금이 충분히 확충되면 수혜 대상자를 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시한번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회사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성무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무사히 마친 우리 동문 유자녀들이 돌아가신 부친의 가르침대로 공사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건실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어 주길 바라며 이들의 건승을 빌어 본다. ➔

성무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총동창회 알림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성무 장학사업 안내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서,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당 20만 원입니다.  
 납입하신 회비는 총동창회 연간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기금의 연간 이자는 성무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은행에 계속 적립하여 향후 총동창회관 등의 건립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납 회원들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평생 회비 완납 기수 1~35기, 57기, 59기, 61기, 63기, 65기

#### 제28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 06. 01. ~ '21. 06. 30.

| 기수 | 현재 인원        | 납부 인원 | 미납 인원 | 납부자 명단   |    |     |              |     |     |  |
|----|--------------|-------|-------|--|----|-----|--------------|-----|-----|--|
| 26 |              |       |       | 홍순택(준회원)   |    |     |              |     |     |  |
| 28 |              |       |       | 신언필(준회원)   |    |     |              |     |     |  |
| 36 | 256          | 36    | 220   | 우맹호, 이재섭, 조수형  |    |     |              |     |     |  |
| 37 | 255          | 91    | 164   | 김선국, 김현준, 서해원, 흥호진   |    |     |              |     |     |  |
| 38 | 231          | 77    | 154   |  |    |     |              |     |     |  |
| 39 | 220          | 18    | 202   | 홍인식  |    |     |              |     |     |  |
| 40 | 241          | 23    | 218   |  |    |     |              |     |     |  |
| 41 | 238          | 18    | 220   | 윤길구  |    |     |              |     |     |  |
| 42 | 275          | 29    | 246   |  |    |     |              |     |     |  |
| 43 | 271          | 27    | 244   |  |    |     |              |     |     |  |
| 44 | 221          | 23    | 198   | 강원철, 김훈경, 나관영, 박도원, 박성진, 박재목, 오창호, 이상덕, 이중호, 최영호, 최재만, 흥청현 |    |     |              |     |     |  |
| 45 | 220          | 21    | 199   |  | 46 | 226 | 5            | 221 | 서정민 |  |
| 47 | 201          | 6     | 115   | 강훈영  | 48 | 192 | 105          | 87  |     |  |
| 49 | 200          | 3     | 197   |  | 50 | 193 | 4            | 189 |     |  |
| 51 | 203          | 2     | 201   |  |    |     |              |     |     |  |
| 52 | 202          | 5     | 217   | 김위경, 박준규, 조후준  |    |     |              |     |     |  |
| 53 | 211          | 4     | 207   | 박주경  |    |     |              |     |     |  |
| 54 | 192          | 0     | 192   |  | 55 | 186 | 2            | 184 |     |  |
| 56 | 155          | 1     | 154   |  | 57 | 157 | 157          | 0   |     |  |
| 58 | 134          | 0     | 134   |  | 60 | 148 | 1            | 147 |     |  |
| 62 | 145          | 0     | 145   |  | 64 | 160 | 50           | 110 |     |  |
| 66 | 137          | 0     | 137   |  | 67 | 148 | 0            | 148 |     |  |
| 68 | 158          | 0     | 158   |  | 69 | 167 | 0            | 167 |     |  |
| 합  | 현재인원 : 9,700 |       |       | 납부인원 : 4,568   |    |     | 미납인원 : 5,132 |     |     |  |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12. 7. 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무 장학사업 안내

**목 적** 회원 유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부모님 추모 및 성무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학업에 전념 지원

**대상** 공사 총동창회 회원 유자녀 (초, 중, 고, 대학생) ※ 공본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

**금 액** 소정의 금액 (매년 운영위에서 결정)

## 기금 적립

- 평생회비 적립 이자
- 총동창회 운영 종료 후 일반사업비 잉여금
- 성무제 밭간 광고비 중 제비용을 제한 잔액
- 동문 개인 및 기업 등 단체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등

## 성무 장학금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afaaa.or.kr](http://kafaaa.or.kr) > 성무장학기금)
- 보낼 곳
  - 우편 :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태성관 3층 공사총동창회
  - 이메일 : [04airfa@hanmail.net](mailto:04airfa@hanmail.net) (추후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각 기생회장/총무는 해당인원 여부 파악 및 안내 요망

## 각 기수별 성무 장학기금 기탁하신 분

(개인 : 92명, 단체 : 2, 총계 : 3,337만 원)

| 기수 | 인원 | 성명 (금액)                                       |
|----|----|---|
| 1  |    |   |
| 2  | 1  | 박재성(100)                                      |
| 3  | 1  | 백낙승(100)                                      |
| 4  |    | 4기 ~ 14기 없음                                   |
| 15 | 2  | 김덕훈(100), 김주식(10)                             |
| 16 | 3  | 김익래(100), 김희동(20), 임정빈(10)                    |
| 17 | 5  | 강희간(10), 고영섭(30), 김익창(10), 이문호(10), 이한호(100)  |
| 18 |    |   |
| 19 | 2  | 민주동(20), 정성진(20)                              |
| 20 | 5  | 김성일(100), 김정기(30), 손준영(30), 이재명(100), 한광성(30) |
| 21 | 5  | 배민섭(10), 배창식(30), 신문식(30), 유근국(10), 이광영(30)   |
| 22 | 4  | 김은기(50), 민형기(10), 오원용(20), 이영하(20)            |
| 23 | 3  | 이계훈(50), 이정욱(20), 장창연(10)                     |

|    |    |   |
|----|----|---|
| 24 | 2  | 이준우(20), 황원동(30)  |
| 25 | 9  | 김찬환(30), 김홍진(30), 류홍규(10), 송명진(20), 이성재(50), 임종호(20), 장희태(20), 하왕규(10), 이승구(100)  |
| 26 | 5  | 박기순(20), 배충영(50), 송길수(10), 오중기(20), 하대용(20)   |
| 27 | 2  | 김수은(10), 이희명(20)  |
| 28 | 13 | 강영철(5), 김도호(100), 김주언(30), 김학수(20), 박병구(50), 안재모(30), 유길형(10), 윤우(20), 이상욱(10), 이석원(30), 지윤규(10), 최병주(30), 최차규(50), 흥성표(40) |
| 29 | 11 | 남승우(30), 박성기(30), 박재복(30), 서부종(30), 안준기(30), 양철환(150), 이경달(20), 조병호(100), 조평현(50), 한봉완(50), 문병규(30)                         |
| 30 | 3  | 김광희(20), 최영훈(20), 심인태(30)   |
| 31 | 3  | 고종봉(10), 박양기(100), 이왕근(50)  |
| 32 | 2  | 박승룡(10), 허창희(30)  |
| 33 | 3  | 박광필(10), 이병권(10), 정영철(10)   |
| 34 |    |   |
| 35 |    |   |
| 36 | 2  | 박영준(10), 박문덕(30)  |
| 37 | 1  | 정장용(20)   |
| 38 |    |   |
| 39 |    |   |
| 40 | 1  | 오제정(10)   |
| 41 |    |   |
| 42 | 1  | 백도석(10)   |
| 43 |    |   |
| 44 | 2  | 고준기(12), 최영호(10)  |
| 45 | 1  | 이형섭(10)   |
| 46 |    | 46기 ~ 69기 없음  |
| 단체 | 2  | 10기 산우회(100), 미서부지회(30)   |

## 성무 장학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2021년도 성무 장학금 지급현황

수혜 명단 (총 4명)

| 기수 | 고인      | 학생 성명  | 재학 대학교  | 지급액    |
|----|---------|--------|---------|--------|
| 35 | 채기석(중령) | 채수명(남) | 경희대 3년  | 200만 원 |
| 37 | 윤재훈(대령) | 윤호연(여) | 가톨릭대 4년 | 200만 원 |
| 37 | 장은석(중령) | 장준혁(남) | 충남대 3년  | 200만 원 |
| 42 | 이재근(소령) | 이연서(여) | 충북대 3년  | 200만 원 |



## The New One LIG Nex1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미래 전장을 압도할 혁신으로 새로움을 선사하다.  
차원이 다른 기술, 미래를 이끄는 혁신 with LIG Nex1



## 편집 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로운 만남이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50호 성무지가 탄생하게 되어 기쁩니다.

삶의 귀중한 시간을 위국헌신하시고 언제나 성무인의 공지와 품위로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귀중한 글을 나누어 주신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한 여러 동문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 기획 단계에서 더욱 많은 동문들과 공군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글들을 신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고 또한 기고 요청에 기꺼이 응해 주신 많은 분들의 협조가 마음 깊이 위로가 됩니다.

일부 기고문의 수정과 관련한 요청에도 부담 없이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집 과정과 출판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 선배님들과 총동창회 사무실 설민진 실장, 그리고 편집과 제작에 정성을 다해 준 대한기획인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차례의 편집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기고문들을 세밀히 검토해 주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기고 안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성무』지는 연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필, 여행기, 체험기, 취미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나누거나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 등 다양한 글들을 보내 주십시오.

제51호 성무지 원고는 2022년 9월 마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1. 7. 1

발행인 최자규

편집인 박병구, 지윤규, 탁효수, 신영덕, 배관현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 소 (우)069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 화 02-823-1091

팩 스 02-823-1092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afaaa.or.kr>

편집·제작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는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

국내 전지역 물류 Network를 보유  
one stop 화물관리 services



- 항공/해상 수출입 화물운송 서비스  
Export and import cargo trucking services

- 창고 보관 서비스  
Warehouse services

- 수출 포장 서비스  
Export packing services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Container Loading and Unloading

- 환적화물 서비스  
Trans Shipment Services



**BML 백마종합물류(주)**

- CEO 한동식
- 공군사관학교 졸업(31기)
- 현 (주)백마종합물류 대표이사



##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 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宇庭 글로벌사회공헌센터 준공

기증자 :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일시 : 2013. 6. 19(수) 15:00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기증

M A G O K M I C E

# LE WEST

서울 최대 규모의  
**MICE복합단지 LE WEST가**  
곧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서울 최대 규모의 MICE복합단지 'LE WEST(르웨스트)'가 본격 추진됩니다. 마곡마이스PFV의 마곡 MICE복합단지 브랜드인 'LE WEST(르웨스트)'는 희소성, 가치의 극대화를 뜻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과 최상급(WEST), 서쪽(WEST)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가치를 넘어 함께하는 삶의 경험도시, 첨단산업과 문화가 태어나고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곡지구에 입주한 첨단 R&D(연구개발) 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고 최신 트렌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K-マイ스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성장하는 마곡지구에 세계 최고의 MICE로 성장할 LE WEST가 함께 합니다.



# 서울 ADEX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10. 19(화) ~ 24(일)

서울공항





# '대한민국의 힘'으로 만든 '차세대 대한민국 하늘의 시작'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과 노력을 담아** 대한민국의 하늘에 한국형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KF-21 최종 조립현장



KF-21 아이언버드(계통시험장)



KF-21 HQS(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시작과 미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들어 갑니다.